

이 보고서는 특정 시기에 어떤 말이 새롭게 쓰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조사 방법의 한계로 모든 신어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실린 말이라고 해서 국립국어원이 표준어로 인정하거나 사용을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어원 2017-01-15

2017년 신어 조사

연구 책임자

남 길 임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17년 신어 조사' 사업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17년 3월 8일 ~ 2017년 11월 30일

2017년 11월 30일

연구 책임자: 남길임(경북대학교)

연구 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남길임

공동 연구원 안미애, 최준, 홍미주

연구 보조원 이수진, 서은영, 오선영, 김예니
이민주, 김세연, 강현아, 신원석

[국문 초록]

‘2017년 신어 조사 및 사용 주기 조사’ 사업은 신어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를 통해 우리말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 기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신어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국어 어휘 자료를 풍부하게 하고 언어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계층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정보 공유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국민 언어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진이 수행한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신어 수집

- 신어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2017년 신어 후보 목록 추출
- 위 2017년 신어 후보 목록 중, 해당 기간(2016. 7.~2017. 6.)에 최초 출현한 『우리말샘』 미등재어를 신어로 수집

(2) 2017년 신어의 정보 기술 및 등록

- 2017년 신어의 형태, 뜻풀이에 관한 정보 기술 및 용례 수집
- 『우리말샘』 정보 구조 형태로 신어 분과에 등록

(3)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 2008년 신어 조사 자료(475항목)의 조사 시점부터 현재(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사용 추이 분석
- 위 475항목 중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의 목록 및 특징 분석
- 2016년에 수행된 2005·2006년 신어 231개 및 2007년 신어 201개의 사용 추이 조사 결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신어에 대한 최신 빈도 추가 조사

(4) ‘2017년 신어 조사’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 표제어, 원어, 뜻풀이, 용례 등이 기술된 최종 결과물 제출
- 2008년 신어의 사용 추이 분석 결과 분류된 신어의 유형별 특징 등이

기술된 최종 결과물 제출

핵심어: 2017년 신어, 신어 추출기, 2008년 신어, 신어 사용 추이

[Abstract]

‘New Words of 2017’ has been plann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collect and record the data of th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with our ongoing survey and supervision. This periodic collection of meaningful data will not only serve Korean users with convenience but also eliminate inequality in sharing information in the society, which consequently will activate opportunities for open communic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and social classes. The result will also enrich lexical resources of the Korean language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linguistic investigations and academic researches.

Contents of our survey are as follow:

(1) Collecting new words of 2017

- abstracting candidates of new words of 2017 by utilizing the new-word investigating system of Urimalsaem
- collecting new words among unregistered words that appear newly in Urimalsaem during the specific period of time (July 2016~June 2017) from the list of candidates of new words of 2017

(2) Describing and registering the information of new words of 2017

- describing information and collecting examples of forms and meanings of new words of 2017
- listing new words on the compiler in the given form of Urimalsaem

(3) Investigating usage shifts of new words

- analysing the shifts of usages for the previous 10 years from 2008 (475

items in 2008) to 2016

- analysing the list and characteristic factors of new word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used for the previous 10 years from 2007
- following up the survey of 2016 that investigated usage shifts of new words of 2005/2006/2007

(4) Reporting the results of 'New Words of 2017'

- submitting the final report on entries, origins, meanings, and usages of the collected new words
- submitting the final report on typical characteristics of new words classified from the analysis of the usage shifts of new words of 2008

Key words: New words of 2017, New words extraction tool, New words of 2008, Usage shifts of new words

[머리말]

매해 새롭게 등장하여 통용되는 신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물망을 촘촘히 하여 모든 신어를 걸러내는 것이 신어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이 신문 등 인쇄 매체를 조사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1994년의 국가 주도 신어 조사 사업 이후, 현재의 웹 기반 신어 추출기를 사용하기까지 조사 방법론은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치며 괄목할 만한 진화를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 자료에 나타난 신어 전체를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은 여전히 요원하다. 언중의 언어생활의 경로와 양상이 다양하고 언어 자료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현재의 방법론은 웹 기반 신어 추출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130여 개의 언론사 뉴스 기사를 수집하는 것으로 2012년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보다 확장된 언어 자료를 짧은 기간 안에 확보하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매년 수집·발표되는 신어 조사 결과의 일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 물론 이러한 방법론도 언어 자료의 발생 경로와 의미적 신어 등과 관련된 몇 가지 한계에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신뢰할 만한 온·오프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신어 자료를 주기적으로 일관되게 수집하는 것은 국어 어휘 자료를 풍부하게 하고 언어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올해 경북대학교 신어 연구진에서 수행한 신어 조사의 내용은 아래 두 가지이다.

첫째, 웹 기반 신어 추출기를 활용하여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출현한 2017년 신어 후보 목록을 수집하고 개별 신어 표제

어에 대한 사전 표제항을 구축하였다. 수집된 신어 후보 목록 가운데 보고서에 수록된 2017년 신어는 총 373개로, 해당 기간에 최초 출현하여 적어도 3회 이상의 출현을 보인 표현들이다.

둘째, 과거 신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대상으로 신어의 사용 추이를 조사하였다. 분석 대상은 2008년에 수집된 신어 475개로, 본 연구진에서는 이들이 2016년 12월까지 지난 10여 년간 매년 어떤 추이로 쓰이고 있는지를 빈도와 기사 건수, 연도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전 조사에서 수행하였던 2005·2006·2007년 신어 중 지속적인 사용을 보이는 어휘에 대한 추가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부문에 대한 조사 보고서와 수집 결과물은 경북대학교 신어 조사팀 연구진들의 수고로 완성되었다. 신어 추이 조사기의 운용에서 온라인상의 자료 수집과 관련된 몇몇 이슈로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실무 연구진들의 신속한 대처와 팀 간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연구진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신어 추출기의 성능을 보완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모색해 준 국립국어원과 다이퀘스트 시스템 개발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7년 12월
연구책임자 남길임

2017년 신어 조사 사업 요약

I. 2017년 신어

‘2017년 신어 조사’ 사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배포된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 181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신어와 미등재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진은 조사 대상 매체에서 새롭게 출현한 신어를 조사하고, 신어를 포함한 기사의 전문을 웹 크롤링한 말뭉치를 활용하여 신어의 출현 빈도를 계수하였다. 그리고 조사 기간 내에 최초 출현 이후 3회 이상의 출현 빈도를 보인 신어 총 373개를 2017년 신어로 수집하였다.

2017년 신어 총 373개의 전반적인 분포는 단어 188개(50.4%), 구 185개(49.6%)로 구와 단어의 비율이 비슷하게 출현했다. 일반어는 349개(93.6%), 전문어는 24개(6.4%)로 일반어 신어가 전문어에 비해 훨씬 풍부하게 생산되었다. 품사별로는 일반어 구와 전문어 구가 모두 명사구로, 신어의 약 99.7%가 명사 또는 명사구에 편중된 품사 분포를 보였다.

조어법별로는 복합어가 91.4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합성어가 64.89%로 가장 생산적이었다. 합성어 중에서는 두 단어 또는 어근이 결합된 단어 또는 어근의 일부만이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혼성’이 약 2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원어별로는 원어가 단일한 신어보다는 두 종류 이상의 원어가 복합적으로 결합한 경우가 근소한 차이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2017년 신어의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단일원어에서는 외래어(105개) > 한자어(64개) > 고유어(13개) 순이며, 복합원어에서는 한자어(132개) > 외래어(164개) > 고유어(95개)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신어 조사 사업에서는 전문어와 일반어의 이원적인 분류를 통해 개별 어휘들의 사용 분야를 조사하였다. 전문어(24개)에서는 경제와 법률 분야 신어가 각각 전체 전문어의 약 1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뒤로 의학, 복식, 사회 일반, 정보·통신 전문어가 많이 나타났다. 일반어(349개)에서

는 ‘사회생활’에 속하는 신어가 약 2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생활’과 ‘삶’ 영역에 속하는 신어가 많이 나타났다.

II. 2008년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본 사업의 두 번째 과업은 2008년 신어의 지난 10년간의 사용 추이를 분석하고 개별 항목들의 사용 추이 유형을 공통적인 경향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된 신어는 2008년 신어 475개이다. 조사 당해 연도(2007-2008년)부터 현재(2016년 12월 기준)까지 130개 내외의 언론 매체에서 2008년 신어가 출현한 연도별 빈도 및 기사 건수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조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총빈도’뿐만 아니라 ‘연도별 사용 분포’, 그리고 ‘기사 건수’의 기준을 마련하여, 총빈도 20회 이상, 10건 이상의 기사에서 출현하며 연도별로 5개 년 이상에 분포하여 출현하는 신어는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로 판별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신어 가운데 위의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 신어는 324개로 전체의 약 68%에 달하였다.

그리고 총 빈도(20회), 연도별 사용 분포(5년), 기사 건수(10건) 기준을 충족한 2008년 신어 134개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신어를 조사 시점부터 현재(2016년 12월)까지의 사용 추이에 따라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등으로 하위 구분하였다.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 가운데 43개가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분류되었고, 67개의 신어가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마지막으로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24개가 분류되었다.

작년 신어 조사 사업에서 수행된 사용 추이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명된 2005년과 2006년 신어 231개 및 2007년 신어 201개에 대해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 빈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05년과 2006년 신어 231개 가운데 26개와 2007년 신어 201개 중 1개는

‘총빈도, 연도별 사용 분포, 기사 건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차례

I. 2017년 신어 조사

1. 일러두기	21
2. 2017년 신어의 유형	37
3. 2017년 신어(빈도순)	51
4. 2017년 신어(가나다순)	131
ㄱ	133
ㄴ	141
ㄷ	146
ㄹ	149
ㅁ	152
ㅂ	157
ㅅ	162
ㅇ	171
ㅈ	183
ㅊ	188
ㅋ	191
ㅌ	194
ㅍ	197
ㅎ	204

II.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1. 2008년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215
2.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2006·2007년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233

<부록 1> 표제어 찾아보기	239
<부록 2> 표제어 역순 찾아보기	247
<부록 3> 표제어 빈도순 찾아보기	255
<부록 4>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8년 신어의 사용 빈도	261
<부록 5>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년 신어의 사용 빈도	267
<부록 6>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6년 신어의 사용 빈도	271
<부록 7>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7년 신어의 사용 빈도	275

표 차례

I. 2017년 신어 조사

<표 1> 신어 추출기 대상 매체	21
<표 2> <표 1> 외 포털 사이트 검색 대상 매체	22
<표 3> 빈도 조사 대상 매체	22
<표 4> 외래어 언어명 약어	28
<표 5> 전문 분야 분류	31
<표 6> 신어의 분포	37
<표 7> 품사별 신어의 분포	37
<표 8> 조어법별 신어의 분포	38
<표 9> 접두사 목록	40
<표 10> 접미사 목록	40
<표 11> 원어에 따른 신어의 결합 유형	42
<표 12> 원어 결합 유형에 따른 신어의 유형	43
<표 13> 전문 분야에 따른 신어의 유형	44
<표 14> 일반어 신어의 의미 영역 분류	46
<표 15> 의미 영역 분류	48

II. 2008년 신어 사용 추이 조사

<표 1> 신어의 사용 분야 분류	228
<표 2> 2008년 신어의 사용 분야별 빈도	230
<표 3>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8년 신어의 사용 분야별 빈도	231

그림 차례

<그림 1> 2008년 신어의 사용 빈도_고빈도순	218
<그림 2> ‘근황셀카’의 사용 추이	219
<그림 3> ‘키스방’의 사용 추이	220
<그림 4> ‘토크콘서트’의 출현 빈도 추이	223
<그림 5> ‘트렌드세터’의 출현 빈도 추이	223
<그림 6> ‘사이버모욕죄’의 출현 빈도 추이	224
<그림 7> ‘녹색성장’의 출현 빈도 추이	225
<그림 8> ‘교체지수’의 출현 빈도 추이	226
<그림 9> ‘규제일몰제’의 출현 빈도 추이	226

I . 2017년 신어 조사

1. 일러두기

1.1 표제어

1.1.1. 수집 및 수록 범위

1) 이 자료집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 모두 181개 매체(신어 추출기에서 검색되는 139개의 매체와 더불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언론사 뉴스’에서 검색 가능한 125개 매체)에 등장한 신어를 조사하고 신어의 어휘 사용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2) 조사 대상 매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강원일보, 게임동아, 경향신문, 골닷컴, 공감코리아, 국민일보, 기자협회보, 나일론미디어, 내일신문, 노컷뉴스, 뉴데일리, 뉴스엔, 뉴스와이어, 뉴스토마토, 뉴시스, 뉴시스와이어, 데일리안, 동아일보, 디스패치,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레몬트리, 레이디경향, 로이터, 리빙센스, 마이데일리, 매경게임진,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매일신문, 머니위크, 머니투데이, 무비스트, 무비위크, 문화일보, 미디어오늘, 민기자닷컴, 베스트베이비, 베스트일레븐, 베이비트리, 부산일보, 블로터닷컴, 빌보드코리아,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소년한국일보, 스포츠, 스타뉴스, 스타투데이,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스포츠한국, 스포탈코리아, 시사INLive, 시사저널, 시티라이프, 신동아, 신화사연합뉴스, 씨네21, 아시아경제, 아이뉴스24, 에센, 엑스포츠뉴스, 엔터미디어, 엠파이트, 여성동아, 여성신문, 여성조선, 여성중앙, 연합뉴스, 연합뉴스보도자료, 연합뉴스포맥스, 오마이뉴스, 오토타임즈, 우먼센스, 월간산, 이데일리, 이동진닷컴,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플러스, 이코노믹리뷰, 일간스포츠, 일다, 일요신문, 전자신문, 점프볼, 제이피뉴스, 조선비즈, 조선일보, 조세일보, 조이뉴스24,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주간한국, 중앙SUNDAY, 중앙일보, 참세상,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코메디닷컴, 쿠키뉴스, 티브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팝뉴스, 포모스, 프레시안, 한겨레, 한겨레21, 환경비즈니스, 한국경제, 한국경제TV,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헤럴드생생뉴스, 헬스조선, 10아시아, AP연합뉴스, bnt뉴스, EBS, enews24, EPA연합뉴스, imbc, IT동아, KTV, MBC TV, MBN, MBN TV, MK스포츠, OSEN, SBS CNBC TV, SBS TV, SBSE!, TV리포트, YTN TV, ZDNetKorea

<표 1> 신어 추출기 대상 매체

게임메카, 골프다이제스트, 뉴스1, 뉴스위크 한국판, 데일리e스포츠, 디스이즈게임, 마니아리포트, 머니S, 몬스터짐, 블로터, 스타캐스트, 스포츠월드, 스포츠타임스, 스포티비뉴스, 시사IN, 아이즈 ize, 앳스타일, 엠스플뉴스, 연합뉴스TV, 원터뉴스 코리아, 인벤, 인터풋볼, 정책브리핑, 채널A, 코리아넷, 테니스코리아, 포포투, 풋볼리스트, 헤럴드POP, JTBC, JTBC GOLF, KBO, KBS 뉴스, KBS 연예, MBC 뉴스, MBC 연예, OBS TV, SBS funE, SBS 뉴스, TV조선, YTN

<표 2> <표 1> 외 포털 사이트 검색 대상 매체

- 3) 2017년 신어 조사에서는 다음의 대상 매체에서 조사 대상 기간 내에 수집된 신어가 등장하는 기사문 전체를 웹 크롤링한 말뭉치를 구축하여 신어의 빈도를 계수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개인어와의 구별이 어렵고 충분히 사회성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저빈도어를 제외하고 말뭉치에서 빈도 3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어만을 수록하였다.

강원일보, 게임메카, 경향신문, 골닷컴, 골프다이제스트, 국민일보, 기자협회보, 노컷뉴스, 뉴스1, 뉴스엔, 뉴스위크 한국판, 뉴시스, 데일리e스포츠, 데일리안, 동아일보, 디스이즈게임, 디스패치,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레이디경향, 로이터, 마니아리포트, 마이데일리,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매일신문, 머니S, 머니투데이, 몬스터짐, 문화일보, 미디어오늘, 베스트일레븐, 부산일보, 블로터,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타뉴스,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타임스, 스포탈코리아, 스포티브이뉴스, 시사IN, 신동아, 신화사 연합뉴스, 씨네21, 아시아경제, 아이뉴스24, 아이즈 ize, 앳스타일, 엑스포츠뉴스, 엠스플뉴스, 엠파이트, 여성신문,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오마이뉴스, 월간 산, 원터뉴스 코리아,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 인벤, 인터풋볼, 일간스포츠, 일다, 재해재난속보, 전자신문, 점프볼, 정책브리핑, 조선비즈, 조선일보, 조세일보, 조이뉴스24,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중앙SUNDAY, 중앙일보, 참세상, 채널A, 코리아넷,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코메디닷컴, 테니스코리아, 텐아시아, 티브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포모스, 포포투, 풋볼리스트, 프레시안, 한겨레, 한겨레21, 환경비즈니스, 한국경제, 한국경제TV,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일보, 헝그리앱, 헤럴드POP, 헤럴드경제, 헬스조선, AP연합뉴스, enews24, EPA연합뉴스, JTBC, JTBC GOLF, KBO, KBS 뉴스, KBS 연예, MBC 뉴스, MBC연예, MBN, MK스포츠, OBS TV, OSEN, SBS CNBC, SBS funE, SBS 뉴스, TV리포트, TV조선, YTN, ZDNet Korea

<표 3> 빈도 조사 대상 매체

- 4) 2016년 신어 조사 기간에 수집되었지만 빈도가 2 이하여서 자료집에 수

록되지 못한 어휘를 다시 조사하였다. 이들 중 2017년 신어 조사 기간에 조사 대상 매체에서 빈도 3 이상 나타난 어휘들은 2017년 신어와 함께 제시하였다.

- 5) 이 자료집에 수록한 신어의 수는 신어 추출기 신어 157개, 직접 수집 신어 198개, 2016년 저빈도 신어 18개로, 총 373개이다.

1.1.2. 수집 원칙

- 1) 조사 대상 기간 내에 처음 등장한 말로, 『우리말샘』에 등재되지 않은 최신 어휘를 신어로 수집한다.
- 2)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거나, 기존의 말을 새로운 느낌으로 표현하기 위해 생성된 어휘를 신어로 수집한다.
- 3) 새로운 개념, 직종, 첨단 학문 등이 도입되면서,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전문어적인 성격을 띤 새로운 어휘를 신어로 수집한다.
- 4) 최근 신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융합, 축약, 탈락 현상에 의한 약어를 신어로 수집한다.
- 5)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와 형태는 같지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어휘도 신어로 수집한다.
- 6) 국어 순화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어휘를 신어로 수집한다.
- 7) 단어뿐만 아니라 표제어로 올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들도 신어로 수집한다.
- 8) 출현 빈도 3 이상의 신어를 수집한다.

- 9) 2016년 신어 조사 기간에 최초 출현했으나 빈도 2 이하로 자료집에 수록하지 않았으나, 2017년 신어 조사 기간 내에 빈도 3 이상으로 나타난 신어를 재수집한다.

1.1.3. 수집 방법

1) 신어 추출기 신어

① 정의

‘신어 추출기 신어’란 신어 조사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신어를 가리킨다.

② 선정 방법

(가) 일간지, 인터넷 매체 등 모두 139개(<표 1>)를 대상으로 하여 신어 조사 시스템을 통해 신어 후보 목록을 추출하였다.

(나) (가)에서 수집된 신어 후보 목록은 위 <표 1>과 <표 2>의 매체를 통해 해당 기간(2016. 7. 1.~2017. 6. 30.)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2) 직접 수집 신어

① 정의

‘직접 수집 신어’란 신어 추출기를 통해 충분히 수집될 수 없었던 어휘들로, 신문 기사, 잡지 등을 검토하여 수작업으로 직접 수집한 신어를 가리킨다.

② 수집 방법

(가) 신어 추출기에서 누락된 신어 후보 목록을 찾기 위해, 우선적으로 위 ‘신어 추출기 신어’가 포함된 기사를 우선 검토하였다. 신어는 또 다른 새로운 신어와 함께 나타나는 경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새로운 신어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나) 조금 더 직접적인 신어 검색 방법으로, 위 <표 1> 및 <표 2>의 기사를 대상으로 직접 ‘신조어, 신어, 은어, 유행어, 줄임말, 합성어, 파생어, 준말’ 등의 검색어를 포함한 기사를 찾고, 관련된 기사에 포함된 어휘를 검토하였다.

(다) 주제별로 다양한 신어 후보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주제별 기사 목록을 검토하였다.

예) 건강/다이어트, 디자인, 문화산책, 사진/카메라, 생활Tip, 애완/반려, 여행/맛집, 연애, 원예/정원, 육아/출산, 인테리어, 자기계발, 자녀교육, 자동차, 재테크, 책, 취미, 테크, 패션/뷰티, 푸드/레시피, 피플, 쇼핑.

(라) 각종 온라인 신어사전 목록을 검토하여 신어 추출기 신어 목록에서 누락된 신어 후보를 수집하였다.

(마) (가)~(라)에서 수집된 신어 후보 목록은 위 <표 1>과 <표 2>의 매체를 통해 해당 기간(2016. 7. 1.~2017. 6. 30.)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1.1.4. 제시 원칙

1) 표제어 제시 방법은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2) 표제어는 모두 주표제어로 제시하였다.

3) 표제어는 한글로만 표기하였다. 관용적으로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도 한글로 표기하였다.

4) 표제어 내부에는 ‘-’, ‘’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거나 띄어 쓰는 방법으로 표제어의 직접 구성 성분을 보여 주었다.

① ‘-’를 사용하여 단어 내부의 구조를 보여 주었다.

고나리-자, 먹-슬림, 법-꾸라지, 옳로-족

- ② 전문어 구 표제어의 경우 “^”을 사용하여 띄어쓰기 단위와 결합 구조를 보여 주었다.

고충^작업^차, 뉴^노멀^중년, 애국^페이^근절법, 전시^근로역

- ③ 일반어 구의 경우는 띄어쓰기를 통해 표제어 내부의 구조를 보여 주었다.

디지털 성범죄, 솔로 이코노믹스, 였로 라이프, 호모 스펙타쿠스

- ④ 혼성어로서 표제어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내가티브(내가<영>←negative), 일코노미(일<영>←economy)

- 5) 표제어는 각각 자모순으로 배열하되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자모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 ① 초성자: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ㆁ, ㆁ
- ② 중성자: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ㅖ, ㅗ, ㅛ, ㅜ, ㅠ, ㅡ, ㅖ, ㅗ, ㅛ, ㅜ, ㅠ, ㅡ, ㅖ
- ③ 종성자: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ㆁ, ㆁ

1.2. 형태 정보

1.2.1. 제시 원칙

- 1) 형태 정보는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 2) 형태 정보에는 한자어나 외래어의 원어 정보와 어종 정보, 발음·활용 정보, 품사 정보를 포함하였다.
- 3) 형태 정보란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단, 외래어는 해당 언어의

띄어쓰기 단위를 기준으로 띄어 썼다.

팩트 폭력(<영>fact暴力)

해시-크래싱(<영>hash crashing)

1.2.2. 원어 정보

1) 고유어로만 구성된 표제어의 경우 원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깃털 눈썹 (O)

깃털 눈썹(깃털눈썹) (X)

2) 한자어는 대응 한자를 밝히고 외래어는 해당 언어명을 ‘< >’ 안에 약어로 쓰고 뒤에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한한-령(限韓令)

휘게 라이프(<덴>hygge<영>life)

픽미 세대(<영>pick me世代)

언어명	약어	언어명	약어
그리스어	그	에스파냐어	에
네덜란드어	네	이탈리아어	이
노르웨이어	노	인도네시아어	인
독일어	독	일본어	일
라틴어	라	중국어	중
러시아어	러	체코어	체
루마니아어	루	타이어	타
말레이어	말	터키어	터
몽골어	몽	페르시아어	페
베트남어	베	포르투갈어	포
불가리아어	불	폴란드어	폴
산스크리트어	산	프랑스어	프
세르보크로아트어	세	헝가리어	형
스웨덴어	스	히브리어	히
아랍어	아	힌디어	힌
영어	영		

<표 4> 외래어 언어명 약어

- 3) 외래어에 대응 한자가 있는 경우는 ‘[]’ 안에 따로 표시하였다.

혼모노-족(<일>honmono[本物]族)

- 4) 우리말에서 발음이 달라진 한자어에는 달라진 발음이 포함된 형태 뒤에 ‘▽’를 붙여 구별하였다.

고나리-자(官▽理者)

- 5) 우리말에서 발음이 달라졌거나 축약된 후 발음이나 철자가 변한 외래어의 경우에는 원형을 제시하고 그 앞에 ‘←’를 붙여 표시하며, ‘<언어명 약어>←원어’의 형식으로 밝혔다.

갯꿀러(<영>get꿀<영>←er), 뷰알똥(<영>←beauty알똥)

- 6) 우리나라에서 외래어를 활용하여 새로 만든 단어나 구는 그 앞에 ‘▼’를 붙여 구별하였다.

엔딩 매직(<영>▼ending magic), 영포티-족(<영>▼young forty族)

- 7) 5)와 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와 ‘←’의 순서로 표시하였다.

그루답터(<영>▼←grooming early adopter), 휴보젠트(<영>▼←humanized robotic agent)

1.2.3. 어종 정보

- 1) 표제어와 원어 정보 다음에는 원어를 구성하는 어종 정보를 제시하였다. 원어는 고유어는 ‘고’, 한자어는 ‘한’, 외래어는 각 언어명의 첫 글자를 이용하여 약어로 표시하였다.

- 2) 표제어 구성 정보에서 제시한 ‘-’는 어종 표시에서는 ‘+’로 바꾸어 제시하였고, 표제어의 ‘^’은 어종 표시에서도 ‘^’으로 제시하였다. 표제어 구성 정보의 띄어쓰기를 나타내는 공백은 ‘_’로 제시하였다.

올로-족(<영>YOLO族) 영+한

뉴^노멀^중년(<영>new normal中年) 영^영^한

솔로 이코노믹스(<영>▼solo economics) 영_영

- 3) 표제어의 직접 구성 성분이 두 개 이상의 언어로 되어 있을 때는 ‘()’ 안에 각각의 어종을 표시하였다.

랜선 커플(<영>LAN線<영>couple) (영+한)_영

혼행-족(혼行族) (고+한)+한

1.2.4. 발음 · 활용 정보

- 1) 모든 단어에 발음 표시를 하였다. 다만, 외래어, 외래어가 포함된 단어, 단어 이상의 단위에 대해서는 발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뉴-칼라(<영>new collar) 영+영

법-꾸라지(法꾸라지) 한+고 [법꾸라지]

편퇴-족 한+한 [편퇴족/편퇴족]

피난처 도시(避難處都市) 한_한

2) 활용 정보는 ‘ [] ’ 안에 제시하였으며, 활용형의 발음도 함께 제시하였다.

야근-각(夜勤角) 한+한 [야 : 근각] [야근각만[야 : 근강만]]

길맥-족(길麥族) (고+한)+한 [길맥족] [길맥족만[길맥종만]]

1.2.5. 품사 정보

「명」은 명사, 「형」은 형용사, 「구」는 구를 나타낸다.

강세-권 한+한 [강세권] 「명」

휘게-스럽다 덴+고 「형」

화김 비용(火金費用) (한+고)_한 「구」

1.3. 전문 분야 정보

1) 전문 분야 정보는 대체로 <『우리말샘』 전문용어 재분류 지침>에 따랐다.

2) 특정 전문 분야에서 쓰이는 표제어는 해당 분야의 명칭을 ‘ [] ’ 안에 제시하였다.

3) 전문 분야는 해당 뜻풀이 앞에 표시해 두었다.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 한^한 『군사』 징병 종결 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보충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4) 전문 분야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교육	가톨릭	건설	경영
경제	고유명 일반	공업	공예
공학 일반	광업	교통	군사
기계	기독교	농업	동물
매체	무용	문학	물리
미술	민속	법률	보건 일반
복식	복지	불교	사회 일반
산업 일반	생명	서비스업	수산업
수의	수학	식물	식품
심리	약학	언어	역사
연기	영상	예체능 일반	음악
의학	인명	인문 일반	임업
자연 일반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치	종교 일반	지구	지리
지명	책명	천문	천연자원
철학	체육	한의	해양
행정	화학	환경	

<표 5> 전문 분야 분류

1.4. 뜻풀이

- 1) 뜻풀이는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 2) 모든 표제어는 직접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 3) 뜻풀이는 어휘의 개념적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부가 설명을 그 뒤에 제시하였다. 부가 설명은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여 서술형으로 제시하였다.

뉴-칼라(<영>new collar) 영+영 「명」 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인 ‘블루칼라’와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화이트칼라’로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직종의 노동자. 노동의 디지털화·자동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노동 장소와 시간 등의 제약이 감소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4) 약어의 뜻풀이는 “‘원말’을 줄여 이르는 말.”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였다.

뷰알못(<영>←beauty알못) 영+고+고 「명」 ‘뷰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5) 동의어는 뜻풀이 정보의 마지막에, ‘=’ 뒤에 제시하였다.

고층^작업^차(高層作業車) 한^한^한 『산업 일반』 사람이 직접 작업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 =고소 작업 차.

1.5. 용례

1) 용례는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2) 모든 표제어에 용례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문장 단위의 용례가 없는 경우에는 용례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용례는 ‘¶’ 뒤에 제시하였다.

4) 용례는 원칙적으로 출처가 분명한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5) 조사 대상 기간에 쓰인 용례를 제시하였다. 다만, 조사 대상 기간에 쓰인 용례보다 조사 대상 기간 이후에 쓰인 용례가 표제어의 실제 쓰임을 더 잘 보여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후에 쓰인 용례를 제시하였다.

6) 용례에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표제어로 있는 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적절한 용례가 없을 시 미등재어가 일부 포함된 용례를 제시하였다.

오피스템(<영>▼office←item) 영+영 「명」 예쁘거나 독특한 디자인의 사

무용품.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물건’을 뜻하는 ‘아이템(item)’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회사 안 자기 자리를 열정적으로 꾸미는 직장인이 늘면서 데스크테리어는 물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사무 용품을 뜻하는 ‘{오피스템}’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6년 12월》

- 7) 표제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용례는 선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적절한 용례가 없을 시 제한적으로 용례로 제시하였다.

내비게이션 소비(<영>navigation消費) 영_한 「구」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등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쇼핑 동선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형태. 『{내비게이션 소비는} 이용자의 모바일 쇼핑 동선을 파악해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를 말한다. 인공 지능을 이용한 ‘OO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국민일보 2016년 11월》

- 8) 제시한 용례에서 내용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기는 모두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서 제시하였다.

- 9) 용례에서 고유명사가 나타나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성씨는 ‘O’, 이름은 ‘OOO’로 교체하여 제시하였고, 단체명이나 기업명, 상품명 등의 기타 고유명은 ‘OO’로 교체하여 제시하였다.

팩트 폭행(<영>fact暴行) 영_한 「구」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팩트 폭격, 팩트 폭력. 『OOO이 일반인들의 {팩트 폭행에} 당황했다. 《엠비시연에 2017년 8월》

- 10) 용례의 출전은 ‘《 》’ 안에 제시하였다. 신문, 잡지, 방송 등의 기사의 경우, ‘매체명’, ‘발행년’, ‘발행월’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픽미 세대(<영>pick me世代) 영_한 「구」 자신의 특별한 행동이나 외모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에서 유래하였다. 『O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를 ‘{픽미 세대’라고} 정의했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1.6. 어원

- 1) 어원은 대체로 <『표준국어대사전』 편찬 지침>에 따랐다.
- 2) 약어의 어원을 밝히는 경우 용례 뒤에 제시하였다.
- 3) ‘【 】’ 안에 해당 원어의 어원을 제시하였다.

베지노믹스(<영>vegenomics) 영 「명」 채식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채소를 의미하는 ‘베지터블(vegetable)’과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채식 시장이 커져 감에 따라 생긴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채식주의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떠오르며 ‘{베지노믹스’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vegetable+economics】

- 4) 원어의 일부가 약어인 경우는 그 약어의 어원을 밝혔다.

올로-족(<영>YOLO族) 영+한 「명」 지금 살아 있는 이 시점의 삶에 충실하며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현재 삶에 기쁨을 주는 소비를 하는 ‘{올로족’들이} 공연장에서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2월> 【YOLO:you only live once】

1.7. 기타

- 1) 신어의 경우, 자료에서 처음 출현하는 연, 월 정보를 ‘【 】’ 안에 넣어 용례 출전 다음에 제시하였다.

일코노미(←<영>←economy) 한+영 「명」 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분야. ‘일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채널로 꼽히는 편의점뿐 아니라 슈퍼마켓부터 시내 백화점에서까지 ‘{일코노미}’에 집중하는 추세다. 《아시아경제 2017년 6월》 【2016년 10월 신어】

- 2) 조사 기간 동안 대상 매체에서 출현한 빈도 정보를 ‘< >’ 안에 넣어 제시하였다. 다만, 2016년 조사 기간에 처음 출현하여 빈도 2 이하로 나타났으나, 2017년 조사 기간에는 빈도 3 이상 출현하여 본 자료집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2017년 빈도와 2016년 빈도를 함께 제시하였다.

워라밸(<영>▼←work life balance) 영+영+영 「명」 직장 일과 개인적인 생활 사이의 균형성.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이르는 말로, 일을 뜻하는 ‘워크(work)’, 삶을 뜻하는 ‘라이프(life)’, 균형성을 뜻하는 ‘밸런스(balan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이다. ¶연봉이 높은 대기업과 연봉이 높은 않지만 ‘{워라밸}’이 좋은 기업 중 어느 곳을 택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는 이들도 많다. 《세계일보 2016년 9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08>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 한^한 『군사』 징병 종결 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보충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징병 검사 결과 병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 40세까지 복무하는 병역을 이르는 말. 원래 ‘제이 국민역’이었던 것이 2016년 5월 의결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O 씨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2016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98 / 2016년 빈도: 2>

- 3) <부록 1>에서는 자료집에 수록된 표제어 전체를 첫 음절 초성을 기준으로 배열한 가나다순 색인을 제시하였다.
- 4) <부록 2>에서는 자료집에 수록된 표제어 전체를 마지막 음절 초성을 기준으로 배열한 역순 색인을 제시하였다.
- 5) <부록 3>에서는 자료집에 수록된 표제어 전체를 높은 빈도 기준으로 배열한 빈도순 색인을 제시하였다.

2. 2017년 신어의 유형

2017년도에 조사된 신어는 단어와 구(句)를 포함하여 모두 373개이다. 이 중 단어는 188개(50.4%)이고, 구는 185개(49.6%)로 구와 단어의 비율이 비슷하다. 또한 일반어는 349개(93.6%), 전문어는 24개(6.4%)로 전문어보다는 일반어가 신어로 훨씬 풍부하게 생산되었다.

분류	단어		구		계
	일반어	전문어	일반어	전문어	
수(개)	186	2	163	22	373
비율(%)	49.87	0.53	43.70	5.90	100

<표 6> 신어의 분포

2017년 신어의 유형을 품사, 조어법, 원어, 전문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품사별 분포와 조어법에 따른 분포는 총 373개의 신어 중 단어만(188개)을 대상으로 삼았고, 원어별 분포와 전문 영역별 분포는 단어와 구를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2.1. 품사에 따른 신어의 유형

2017년도 신어 중 구를 제외한 단어를 품사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품사	명사	형용사	계
수(개)	187	1	188
비율(%)	99.5	0.5	100

<표 7> 품사별 신어의 분포

신어의 대부분은 명사이며, 신어로 조사된 일반어 구와 전문어 구가 모두

명사구이므로, 신어의 약 99.7%가 명사 또는 명사구라고 할 수 있다. 명사 외에는 형용사가 단 1개 나타나 다른 품사의 생산성은 명사에 비해 극히 낮다.

2.2. 조어법에 따른 신어의 유형

신어 중 구를 제외한 단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어법에 따라 구분하면, 먼저 단일어와 복합어(합성어,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단일어의 경우 ‘생성’과 ‘차용’으로 구분하고, 합성어는 ‘합성’, ‘혼성’, ‘축약’으로, 파생어는 ‘접두 파생’, ‘접미 파생’으로 나누었다.

조어법에 따른 신어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분류		수(개)	비율(%)	예	
단일어		생성	3	1.60	평작, 십시, 이저일고
		차용	13	6.91	테가지즘, 마라마마, 베지노믹스
복합어	합성어	합성	36	19.15	개사이다, 뉴칼라, 쌀설탕
		혼성	52	27.66	내가티브, 코렌터, 팩트리어트
		축약	34	18.09	악편, 워라벨, 겹잘싸
	파생어	접두 파생	6	3.19	대유잼, 재재입덕, 탈팩트
		접미 파생	44	23.40	올로족, 고나리자, 줄혼남
계		188	100		

<표 8> 조어법별 신어의 분포

구를 제외한 단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신어를 조어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2017년에는 단일어 26개(8.51%)와 복합어 172개(91.49%)의 신어가 생성되었다. 단일어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생성’과 외국어에서 들어온 ‘차용’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어로는 ‘대드버타이징(dadvertising)’, ‘베지노믹스(vegenomics)’, ‘캘렉시트(calexit)’, ‘에그테크(agtech)’에서와 같이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적극적이고 개성이 강한 이삼십 대 엄마를 나타내는 ‘마라마마(malamama[麻辣媽媽])’는 중국어에서 온 말이고, 구 체제 청산 혹은 인적 쇄신을 통해 겪게 되는 정치 체제의 변화인 ‘데가지즘(dégagisme)’은 프랑스어에서 온 말이다.

신어의 조어 유형 중에는 합성어가 64.89%로 가장 많다. 전체 단어 중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의 유형이 약 19%, 두 단어 또는 어근이 결합하되 단어 또는 어근의 일부만이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혼성’의 유형이 약 28%, 단어 및 구나 절을 줄여서 표현한 ‘축약’의 유형이 약 18%를 차지한다.

‘혼성’에는 두 단어 중 한 부분만 줄여든 ‘법-꾸라지(法꾸라지)’, ‘일코노미(一<영>←economy)’, ‘흙턴(흙<영>←intern)’과 같은 유형과 두 단어 중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만을 결합하여 만든 ‘역피셜(歷<영>←official)’, ‘그루답터(<영>▼←grooming early adopter)’, 그리고 두 단어의 일부가 결합하였으나 경계를 알기 어려운 ‘코렌터(<영>▼←Korea enter)’, ‘팩트리어트(<영>←fact patriot)’와 같은 유형이 있다.

‘축약’은 ‘악마의 편집’을 줄여 이르는 말인 ‘악편’, ‘워크(work), 라이프(life), 밸런스(balan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인 ‘워라밸’, ‘졌지만 잘 싸웠음’을 줄여 이르는 말인 ‘졌잘싸’ 등이 있다. 축약어는 하나의 단어부터 주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들을 갖춘 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단위들을 줄여서 만드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축약의 예로 든 ‘워라밸’은 단순 명사 나열 구성을 줄인 것이며, ‘악편’은 2어절의 명사구를, ‘졌잘싸’는 하나의 완결된 문장처럼 사용되는 단위가 줄어드는 경우이다.

신어의 조어 유형 중 파생어는 약 26.6%이며, 접두 파생어에 비해 접미 파생어가 압도적으로 많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접두 파생어는 모두 6개로 전부 한자어 접두사에 의해 생성되었다.

분류	접두사	수(개)	예
한자어	대(大)-	2	대-유점, 대-협치
한자어	탈(脫)-	2	탈-억제대, 탈-팩트
한자어	선(先)-	1	선-남방계
한자어	재(再)-	1	재-재입덕
합계		6	

<표 9> 접두사 목록

접미 파생어는 23.4%로 신어 전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는 소수의 생산력이 높은 접미사가 신어 생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분류	접미사	수(개)	예
고유어	-꾼	1	쓰랑꾼
	-스럽다	1	휘게스럽다
한자어	-족(族)	23	올로족, 혼행족, 일코노미족, 편퇴족
	-권(圈)	4	강세권, 다세권, 병세권, 청세권
	-층(層)	2	비혼층, 아재층
	-광(狂)	1	팩트광
	-남(男)	1	줄혼남
	-령(令)	1	한한령
	-론(論)	1	스몰토티론
	-생(生)	1	공취생
	-어(語)	1	교정어
	-원(員)	1	교순대원
	-자(者)	1	고나리자
	-제(制)	1	직시급제
	-파(派)	1	개헌론파
외래어	-어(er)	2	갯꿀러, 지방러
	-이스트(ist)	1	안아키스트
계		44	

<표 10> 접미사 목록

접미사는 한자어 접미사가 13개(39개 단어), 고유어 접미사가 2개(2개 단어), 외래어 접미사가 2개(3개 단어)로 모두 17개(44개 단어)이다. 한자어 접미사는 ‘-족’이 신어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족’ 접미사를 포함한 단어가 23개로 접미 파생어 전체의 약 52% 정도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권’, ‘-층’이 뒤를 이었다. 그동안 ‘-족(族), -남(男), -녀(女)’는 2012년부터 꾸준히 많은 어휘를 파생시키며 신어 생성에서 높은 생산력을 보인 접미사라고 보고되었는데 2017년 신어에서 ‘-족’은 여전히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지만, ‘-남’이 결합한 신어는 1개로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녀’가 결합한 신어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외래어 접미사로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접사 ‘-어(er)’와 ‘-리스트(list)’가 각각 2개, 1개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2.3. 원어에 따른 신어 유형

원어에 따른 신어 유형을 분석하여 신어 생산에 기여하는 원어의 결합 유형 및 결합의 경향성을 알 수 있다. 2017년 신어에서는 원어가 단일한 것이 181개(48.53%), 두 종류 이상의 언어가 복합된 것이 192개(51.47%)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7년 신어에서는 단일원어와 복합원어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어		수(개)	비율(%)	결합 유형
단일 원어	고유어	13	3.49	고+고, 고+고+고
	한자어	64	17.16	한, 한+한, 한+한+한
	외래어	105	28.15	외, 외+외, 외+외+외
계		182	48.79	
복합 원어	고+외	27	7.24	고+외, 외+고, 외+고+고, 외+고+외, 외+외+고+외
	고+한	59	15.82	고+한, 고+한+고, 고+한+한, 한+고, 한+고+고, 한+고+한, 한+한+고, 한+ 한+한+고
	외+한	96	25.74	외+한, 한+외, 외+외+한, 외+한+외, 외+한+한, 한+외+외, 한+외+한, 한+ 한+외+한
	고+외+한	9	2.41	고+외+한, 외+고+한, 외+한+고, 한+ 고+외, 외+고+한+고, 외+고+한+외
계		191	51.21	
합계		373	100	

<표 11> 원어에 따른 신어의 결합 유형

위 표를 보면 단일원어의 경우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는 약 5배, 외래어는 약 8배 정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합원어에서는 외래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신어가 2017년 신어 전체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다. 복합원어에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2017년 신어의 생산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면 각각 95개, 164개, 132개로, ‘한자어 > 외래어 > 고유어’ 순임을 알 수 있다.

원어의 결합 유형에 따라 신어의 유형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단일원어로 이루어진 신어에서 고유어만으로 구성된 13개의 신어는 모두 두 개 이상의 고유어가 결합된 복합어이다.

한자어로만 구성된 단어는 ‘야근각(夜勤角)’과 같은 복합어와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 장미 대선(薔薇大選)’과 같은 구 구성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 단어들은 ‘한자어+한자어’ 결합으로 한자 단일어종 어휘의 약 89.06%(57

개)를 차지한다. 한자어가 하나 또는 세 개 결합한 단어는 7개로 한자 단일 어중 어휘의 약 10.94%를 차지한다.

외래어로만 구성된 단어의 대부분은 ‘웹버타이징(<영>femvertising)’, ‘샤이 보터(<영>shy voter)’와 같이 영어 단어가 신어 생성에 관여한 경우이다. ‘호모 스펙타쿠스(<라>▼homo<영>spectacus)’, ‘네코노믹스(<일>neko[猫] <영>←economics)’, ‘히겔리케이션(<덴>hyggeligt<영>←vacation)’, 갓상블(<영>god<프>←ensemble), 코세페(Korea<영>←sale<이>←festa)와 같이 라틴어, 일본어, 덴마크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 영어와 함께 사용된 경우가 있고, 휘게 크로그(<덴>hygge krogh), 데가지즘(<프>dégagisme), 페모크라티(<독>femokratie), 마라마마(<중>malamama[麻辣媽媽])와 같이 덴마크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에서 온 신어도 존재한다.

둘 이상의 원어가 복합적으로 사용된 신어는 ‘외래어+한자어(55개)’, ‘한자어+외래어(33개)’ 및 ‘고유어+한자어(32개)’, ‘고유어+외래어(18개)’ 순으로 많이 나타난다. 두 개의 원어가 결합된 신어가 전체 복합원어의 42.09%를 차지하고 세 개 이상의 원어가 결합된 신어가 9.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원어	수(개)	비율(%)	예
단일 원어	고유어	13	3.49	나로서기, 명정썰, 쓰랑꾼, 쫓잘싸
	한자어	64	17.16	고막 여친, 공취생, 십시, 열대야락죽
	외래어	105	28.15	그루답터, 위라벨, 시니어노믹스, 호모 인턴
복합 원어 (혼종어)	외+한	55	14.75	골드 삼촌, 뷰니멀족, 톤체성, 팩트 폭행
	한+외	33	8.85	네펬셜, 은턴, 자소서 포비아, 향테리어
	고+한	32	8.58	꿀중기, 놀존심, 명청 비용, 벚꽃 대선
	고+외	18	4.83	냥섬웨어, 아재슈머, 짜스, 혼디
	한+고	15	4.02	공알못, 평꾼, 법꾸라지, 핵존잘

외+고	4	1.07	라테 아빠, 뷰알못, 톤망진창, 휘게스럽다
한+고+한	11	2.95	갑질 사범, 당떨시, 해외차레족, 핫김 비용
외+고+외	5	1.34	갯꿀러, 얼리 어먹터, 프로놀람러, 프로 할말러
한+외+한	5	1.34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술스타그램족, 애국 페이 근절법, 편의점 카페족
고+외+한	4	1.07	엄카족, 혼꿀족, 혼뱅족, 흘캥스족
외+한+외	3	0.80	랜선 커플, 프로 야근러, 호모 고시오패스
외+고+한	1	0.27	인터넷 고양이 이론
고+한+고	1	0.27	어금니 칫솔
외+한+고	1	0.27	사운드 담요
한+고+외	1	0.27	세젤썩
외+고+한+고	1	0.27	캐럴 노가바
외+고+한+외	1	0.27	프로 혼참러
계	373	100	

<표 12> 원어 결합 유형에 따른 신어의 유형

2.4. 사용 분야에 따른 신어의 유형

사용 분야의 분류는 일차적으로 ‘우리말샘’의 전문어 분류를 따랐는데 2017년에는 ‘우리말샘’의 67가지 영역 중 14개 영역에 해당하는 전문어 신어가 조사되었다. 2017년에 전문 분야에서 나타난 신어는 모두 24개로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각 전문 분야에 따른 신어의 유형은 다음 표와 같다.

영역	수(개)	비율(%)	예
경제	4	1.07	갭 투자족, 네거티브 낙수 효과, 노르웨이 패

			러독스, 분산형 원장
법률	4	1.07	고삐 법안,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 애국 폐이 근절법, 역외법
의학	3	0.80	보디 버든, 쓸개혹, 젠틀 제왕 절개
복식	2	0.54	클론 패션, 투웨이 번 헤어
사회 일반	2	0.54	화이트 프레질리티, 뉴 노멀 중년
정보·통신	2	0.54	유심 폭리 방지법, 비잔틴 데이터
군사	1	0.27	전시 근로역
기계	1	0.27	휴보젠트
기독교	1	0.27	소울 타이
물리	1	0.27	위상 점
산업 일반	1	0.27	고층 작업 차
생명	1	0.27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
정치	1	0.27	키갈리 협약
일반	349	93.57	고나리자, 신문해 계층, 일코노미, 홀로 라이 프
합계	373	100	

<표 13> 전문 분야에 따른 신어의 유형

2017년 신어에서는 일반어에 비해 전문어가 매우 적게 분포하였다. 전문어 가운데 ‘갭 투자족’과 같은 경제 분야의 신어와 2017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제기된 법안들인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 애국 폐이 근절법’과 같은 법률 분야의 신어가 각각 4개(16.67%)씩 나타나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디 버든’과 같은 의학 분야 전문어가 3개(12.5%)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었다. ‘클론 패션, 투웨이 번 헤어’와 같은 복식 분야 신어를 통해 2017년에 유행한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알 수 있다.

한편, 2017년 신어의 93.57%가 특정 전문 분야가 아닌 일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2017년 신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어들이 어떤 의미 영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별도의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일반어의 의미 영역 분류를 위해 국립국어원(2014)의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3단계)’의 ‘고급’ 단계 의미 범주를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활용하였다.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인간	유형	사람의 종류, 신체 부위
	상태	체력 상태, 감각, 용모, 감정, 성격, 태도, 능력
	행위	신체 행위, 신체에 가하는 행위, 생리 현상, 인지 행위, 소리
삶	유형	친족, 가족 행사, 여가 도구, 여가 시설
	상태	삶의 상태, 병과 증상
	행위	삶의 행위, 일상 행위, 치료 행위, 여가 활동
식생활	유형	음식, 채소, 곡류, 과일, 음료, 식재료, 조리 도구, 식생활 관련 장소
	상태	맛
	행위	식사 및 조리 행위
의생활	유형	옷, 착용물, 의생활 관련 장소
	상태	의복 착용 상태
	행위	의복 착용, 미용 행위
주생활	유형	건물 종류, 주거 형태, 주거 지역, 가구, 가전제품, 일상용품, 주택 구성
	상태	주거 상태
	행위	주거 행위, 집안일
사회생활	유형	인간관계, 소통 수단, 교통수단, 교통 이용 장소, 매체, 직장, 직위, 직업, 사회 행사
	상태	사회생활 상태
	행위	사회생활 행위, 교통 이용 행위, 직장 생활, 언어 행위
경제생활	유형	경제 행위 주체, 경제 행위 장소, 경제 수단, 경제 산물
	상태	경제 상태
	행위	경제 행위
교육	유형	교수 학습 주체, 전공과 교과목, 교육 기관, 학교 시설, 학습 관련 사물, 학문용어
	상태	-
	행위	교수 학습 행위, 학문 행위
종교	유형	종교, 종교 장소, 종교인, 종교어, 종교 대상, 종교

		사물
	상태	-
	행위	종교 행위
문화	유형	문화 활동 주체, 무형 문화, 유형 문화, 문화생활 장소
	상태	-
	행위	문화 활동
정치와 행정	유형	공공 기관, 사법 및 치안 주체, 무기
	상태	정치 치안 상태
	행위	정치 및 행정, 사법 치안
자연	유형	지형, 지표면 사물, 천체, 자원, 재해
	상태	기상 및 기후
	행위	-
동식물	유형	동물, 곤충, 식물, 동물의 부분, 식물의 부분
	상태	-
	행위	동식물 행위, 소리
개념	모양과 성질	모양, 성질, 속도
	빛과 색	밝기, 온도, 색깔
	수와 양	수, 세는 말, 양, 정도, 순서, 빈도
	시간과 위치	시간, 시간 단위, 위치 및 방향, 지역
	지시	지시, 접속, 의문, 인칭
통신 및 게임	통신	인터넷 활동, 휴대 전화,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
	게임	게임 활동, 게임 아이템

<표 14> 일반어 신어의 의미 영역 분류

위의 범주를 활용하여 일반어 신어 349개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미 영역	수(개)	비율(%)	예
사회생활	86	24.64	고나리자, 꿀중기, 도서관 미어캣, 비혼층
경제생활	53	15.19	그루답터족, 명칭 비용, 원룸 푸어, 일코노미
삶	52	14.90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자소서 포비아, 졸혼남, 해외 차례족
인간	45	12.89	가십 남녀, 노 알콜리, 년바이너리, 올로족
정치와 행정	37	10.60	내가티브, 디지털 성범죄, 샤이 보터, 장미 대선
주생활	16	4.58	강세권, 오케이 인프라, 층건 소음, 캄테크
문화	13	3.72	갓땅작, 리브르 아 를리에, 엔딩 매직, 웹툰컬
통신 및 게임	13	3.72	랜선 집사, 랜선 커플, 온라인 리플리, 해시 크래싱
식생활	12	3.44	매너 푸드, 배려식, 쌀설탕, 얼리 어먹터
의생활	8	2.29	욕실 세럼, 인어 머리, 톤망진창, 허파진
교육	7	2.01	공취생, 숙제 격차, 신문해 계층, 파미나
동식물	4	1.15	개너자이저, 냥섬웨어, 레이저 신드롬, 선남방계
개념	3	0.86	존뚝, 인구 절벽 원년, 포프리카
전체	349	100	

<표 15> 의미 영역 분류

일반어 신어 중에는 ‘인간관계, 직장, 사회생활 행위, 언어 행위’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 영역인 ‘사회생활’에 속하는 것이 약 2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 행위 주체, 경제 상태, 경제 행위’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영역인 ‘경제생활’에 속하는 것이 약 15.19%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친족, 여가, 일상 행위, 병과 증상’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의미 영역인 ‘삶’에 속하는 신어가 일반어 신어의 14.9%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2017년 일반어

신어의 절반 이상이 ‘사회생활, 경제생활, 삶’의 세 가지 의미 영역에 속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뜻하는 ‘넌바이너리’, 지금 이 시점의 삶에 충실하며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올로죽’과 같은 ‘인간’ 영역의 신어와, 카메라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를 의미하는 ‘디지털 성범죄’와 장미가 많이 피는 시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인 ‘장미 대선’과 같은 ‘정치와 행정’ 영역의 신어가 각각 12.89%, 10.6%로 조사되었다. 특히 2017년에는 ‘정치와 행정’ 영역의 신어가 2015년(4개), 2016년(3개) 신어에 비해 다소 많이 나타났다. 이는 2017년에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인다. 그 뒤로 주생활(4.58%), 문화(3.72%), 통신 및 게임(3.72%), 식생활(3.44%) 의미 영역에 속하는 신어가 많이 나타났다.

3. 2017년 신어

- 빈도순 -

한한-령(限韓令) 한 [한 : 할령] 「명」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을 수입하는 것과 한국 연예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 중국 국민들이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가는 것 등을 제한하는 명령. ¶O 대표는 {한한령으로} 중국 시장의 벽이 높아지자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318>

솔로 이코노믹스(<영>▼solo economics) 영_영 「구」 1인 가구와 관련된 경제 활동이나 전략. 1인 가구를 뜻하는 ‘솔로(solo)’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위 ‘{솔로 이코노믹스}와’ ‘혼족 문화’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치 단체 연구원의 정책 방향 설정이 눈길을 끈다. 《뉴스1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306>

패싱 코리아(<영>passing Korea) 영_영 「구」 주변국들이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대북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 주로 북핵 등 전 세계의 안보와 관련된 논의들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을 말한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영어의 어순에 맞게 새로 만든 말이다. ¶결국 OOO 정권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배제당하는 {패싱 코리아를} 자초하고 말았다. 《아시아엔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2,233>

장미 대선(薔薇大選) 한_한 「구」 장미가 많이 피는 시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한국 사회에서 2016년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자 원래 2017년 12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5월로 앞당겨져 실시되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지난 10일 헌법 재판소가 OOO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면서 5월 ‘{장미 대선}은’ 현실화됐다. 《뉴스1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920>

샤이 보수(<영>shy保守) 영_한 「구」 여론 조사 따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로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이르는 말. ¶보수 성향의 응답이 줄어든 것은 탄핵 국면에서 자신을 보수라고 밝히기 부끄러워하는 ‘{샤이 보수}가’ 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일보 2017년 4

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530>

법-꾸라지(法꾸라지) 한+고 [법꾸라지] 「명」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처벌을 피해 가거나 불리한 상황을 잘 모면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법’과 ‘미꾸라지’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O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국정 운영을 거들며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두 사람은 법망을 회피하는 ‘{법꾸라지}가’ 되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헤럴드경제 2017년 1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441>

벚꽃 대선(벚꽃大選) 고_한 「구」 벚꽃이 피는 시기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2016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자 조기 대선의 날짜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다. 『현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 민심’을 감안해 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이르면 3월 봄철에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매일신문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243>

일코노미(一<영><←economy) 한+영 「명」 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분야. ‘일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채널로 꼽히는 편의점뿐 아니라 슈퍼마켓부터 시내 백화점에서까지 ‘{일코노미’에} 집중하는 추세다. 《아시아경제 2017년 6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188>

란파라치(蘭<이><←paparazzi) 한+이 「명」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공직자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람.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일각에선 이른바 ‘파파라치’처럼 공무원과 기자들이 만나는 현장을 몰래 살펴보다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쓴 것으로 의심되면 곧장 수사 당국에 신고하는 ‘{란파라치}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179>

민주주의 소시지(民主主義<영>sausage) 한_영 「구」 호주에서, 구운 소시지를 얹은 빵을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제공하는 일. 투표소에서 소시지와 바비큐를 구워 제공하던 전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OOO OO 사전 편찬자는… “{민주주의 소시지라는} 단어의 탄생은 격동의 총선 기간 중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975>

올로-족(<영>YOLO族) 영+한 「명」 지금 살아 있는 이 시점의 삶에 충실하며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현재 삶에 기쁨을 주는 소비를 하는 ‘{올로족}들이’ 공연장에서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2월》 【YOLO:you only live once】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854>

피난처 도시(避難處都市) 한_한 「구」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1월 OOO 대통령은 {피난처 도시들}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역 정부에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 2017년 11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75>

피짓 스피너(<영>fidget spinner) 영_영 「구」 피짓 토이의 하나로, 날개가 달린 작은 장난감.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손으로 돌리면 빠르게 회전한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유행하던 {피짓 스피너가} 올해부터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알려지자 OO도 지난 5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이데일리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660>

해피-벌룬(<영>happy balloon) 영+영 「명」 일시적인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아산화 질소를 넣은 풍선. =해피풍선. 『정부가 {해피벌룬을}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658>

혼행-족(혼行族) (고+한)+한 「명」 혼자서 여행을 가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부산이 ‘{혼행족}’의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7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508>

올로 라이프(<영>YOLO life) 영_영 「구」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인생.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올로 라이프}』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여행이다. 《매일경제 2017년 7월》 【YOLO:you only live once】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66>

트럼플레이션(<영>Trumpflation) 영 「명」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금융계에서는 {트럼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11월》 【←Trump+inflation】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54>

탄핵 시계(彈劾時計) 한_한 「구」 탄핵의 절차가 시작되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당이 21일 의원 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 추진을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탄핵 시계}는 급격히 빨라졌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73>

휘게 라이프(<덴>hygge<영>life) 덴_영 「구」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사는 생활.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휘게(hygge)’와 삶을 뜻하는 ‘라이프(life)’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한국에서도 {휘게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겨레 2016년 12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258>

보디^버든(<영>body burden) 영^영 『의학』 사람의 몸에 축적되는 유해 성분이나 화학 물질의 양. 『최근 신체에 축적된 화학 물질량을 뜻하는 ‘{보디 버든}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천연 성분으로 만든 자연주의 샴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주경제 2017년 8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242>

시발 비용(시발費用) 고_한 「구」 욕설을 할 정도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러한 기분을 풀기 위해 쓰는 비용. 『취업 준비생 000 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밤에 야식을 시켜 먹으며 {시발 비용을} 쓰게 된다.”라고 했다. 《한국경제 2017년 3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238>

워라벨(<영>▼←work life balance) 영+영+영 「명」 직장 일과 개인적인 생활 사이의 균형성.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이르는 말로, 일을 뜻하는 ‘워크(work)’, 삶을 뜻하는 ‘라이프(life)’, 균형성을 뜻하는 ‘밸런스(balan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이다. 『연봉이 높은 대기업과 연봉이 높진 않지만 ‘{워라벨}’이 좋은 기업 중 어느 곳을 택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는 이들도 많다. 《세계일보 2016년 9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08>

해피-풍선(<영>happy風船) 영+한 「명」 일시적인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아산화 질소를 넣은 풍선. =해피벌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술집에서 {해피풍선이라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티브이조선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97>

팩트 폭력(<영>fact暴力) 영_한 「구」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팩트 폭격, 팩트 폭행. 『000의 어머니가 딸에 대해 {팩트 폭력을} 날렸다. 《케이비에스연예 2017년 4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92>

오픈 캐비닛(<영>▼open cabinet) 영_영 「구」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하여 정치 이념, 지역, 세력과 상관없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내각. 『O 후보가 정파와 관계없이 {오픈 캐비닛을} 구성하겠다는 것도 다른 정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53>

데가지즘(<프>dégagisme) 프 「명」 구체제 청산 혹은 인적 쇄신을 통해 겪게 되는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이르는 말. ‘빠져나오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데가지(dégager)’에서 나온 말로, 프랑스의 대선 기간 중 주로 쓰인 말이다. 『영국 일간 OO』은 구체제나 인물의 청산을 뜻하는 ‘{데가지즘}이’ 프랑스 정치의 새로운 사조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51>

베이비 크러시(<영>baby crush) 영_영 「구」 어린아이답지 않게 푹푹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 또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 『여타 드라마들과 달리 아역 배우를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다른 노선을 택한 ‘OO’는 나날이 업그레이드되는 OOO의 {베이비 크러시를} 등에 업고 경쟁작들에 맞서 초반 선전 중이다. 《헤럴드피오피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28>

마약-풍선(麻藥風船) 한+한 [마약풍선] 「명」 아산화 질소를 넣은 풍선. 풍선 안에 방부제나 마취제 따위에 쓰이는 아산화 질소가 들어 있어 이를 흡입하면 웃음이 자꾸 나고 정신이 몽롱하게 되는 등 마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일명 ‘{마약풍선}이’』 대학가 축제 현장에서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20>

맘고리즘(<영>▼mom←algorism) 영+영 「명」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고 생애 주기별로 육아를 반복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엄마’를 의미하는 ‘맘(mom)’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규칙을 의미하는 ‘알고리즘(algorithm)’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맘고리즘}이 계속되면, 엄마도 가정도 사회도 행복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09>

픽미 세대(<영>pick me世代) 영_한 「구」 자신의 특별한 행동이나 외모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에서 유래하였다. 『O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를 ‘{픽미 세대’라고} 정의했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08>

혼디(혼<영><←dessert) 고+영 「명」 혼자서 디저트를 먹음. 또는 그렇게 먹는 디저트. 『‘혼밥’, ‘혼술’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혼자 즐기는 디저트인 ‘{혼디}까지’ 유행이 확산되며, 업계에서는 다양한 디저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07>

훈턴(훈<영><←intern) 고+영 「명」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허드렛일만 반복해서 하는 인턴.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지 않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흙수저’와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인턴’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금수저와 흙수저처럼 ‘금턴’과 ‘{훈턴}은’ 인턴 자리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 준다. 《연합뉴스 2016년 9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07>

외모 패권주의(外貌霸權主義) 한_한 「구」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는 일을 농담조로 이르는 말. 2017년 대선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외모가 준수하여 생긴 말이다. 『{‘외모 패권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OOO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의 준수한 외모가 연일 화제를 모았다. 《한국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06>

얼굴 패권주의(얼굴霸權主義) 고_한 「구」 얼굴이 준수한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는 일을 농담조로 이르는 말. 2017년 대선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외모가 준수하여 생긴 말이다. 『외모가 뛰어난 인물들이 새 정부 주요 인사로 잇따라 발탁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 패권주의} 현실화.”라고 입을 모은다. 《아시아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05>

팩트 폭행(<영>fact暴行) 영_한 「구」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팩트 폭격, 팩트 폭력. 『OOO이 일반인들의 {팩트 폭행에} 당황했다. 《엠비시언예 2017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00>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 한^한 『군사』 징병 종결 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보충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징병 검사 결과 병종 판정을 받은 사람이 40세까지 복무하는 병역을 이르는 말. 원래 ‘제이 국민역’이었던 것이 2016년 5월 의결된 병역법 개정에 의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O 씨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2016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98 / 2016년 빈도: 2>

뱍스 프로젝트(<영>BEPS project) 영_영 「구」 다국적 기업들이, 고세율 국가에서 낸 수익을 저세율 국가로 옮기는 방식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체계를 만드는 프로젝트.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지난 2015년 {뱍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관련해 과세 당국 간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2017년 3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15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96 / 2016년 빈도: 2>

홧김 비용(火衿費用) (한+고)_한 「구」 화가 나는 기회나 계기로 인해 충동적으로 쓰는 비용. 『출근 후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직장인 O 씨는 ‘{홧김 비용}’으로 신상 구두를 구매하려다 다시 마음을 접었다. 《이데일리 2017년 9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96>

포켓코노미(▼Pokemongo<영><←economy) 영+영 「명」 증강 현실 게임 ‘포켓몬고’로 파생된 경제 효과를 뜻하는 말로, 포켓몬고에 나타나는 캐릭터가 출현하는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게임 이름인 ‘포켓몬고(Pokemongo)’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산업계 전반에 ‘{포켓코노미}’를 극대화하려는 ‘OO 마케팅’이 한창이다. 《스포츠동아 2017년 2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93>

갯꿀러(<영>get꿀<영><-er) 영+고+영 「명」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 따위를 구매하여 소비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사람. ¶20대는 이 달콤한 꿀 같은 소비를 위해 직접 나서기도 한다. 이처럼 여느 연령대보다 능동적인 소비를 즐기기 때문에 이른바 ‘{갯꿀러’로} 불린다. 《세계일보 2017년 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92>

적폐 정치(積弊政治) 한_한 「구」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일삼는 방식의 정치. 옳지 않은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여당이 000 장관 후보자가 받은 편법 증여 의혹을 자신에게 제기한 데 대해서도 “논점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적폐 정치.”라고} 거칠게 반박했다. 《부산일보 2017년 11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90>

모바일 뱅커(<영>mobile banker) 영_영 「구」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은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00의 경우 금융 상품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상담은 이번에 선발하는 모바일 텔러가 맡고, 개인 정보 변경 처리 및 사고 관련 대응, 증서 처리 등은 정직원으로 사전에 선발된 {모바일 뱅커가} 담당한다. 《아시아경제 2017년 4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85>

부패 투어(腐敗<영>tour) 한_영 「구」 멕시코에서, 정치·사상·의식적으로 타락하였던 장소에 가서 그곳을 둘러보는 일.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 상품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부패 명소를 돌아다니는 이른바 ‘{부패 투어’이다}. 《매일경제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84>

노룩 촬영(<영>no look撮影) 영_영_한 「구」 촬영하는 사람이 촬영 대상자를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면서 하는 촬영. ¶O 의원은 ‘{노룩 촬영’을} 한 이유에 대해 “(O 의원의 모습을) 기록은 하고 싶었지만 직접 보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데일리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79>

일코노미-족(←<영>←economy族) (한+영)+한 「명」 일인 가구를 이루며 혼자서 경제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르면서…{일코노미족을} 겨냥한 제품이 증가했다. 《에스비에스 뉴스 2017년 6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77>

얼리 어딕터(<영>early a<영>←er) 영_(영+고+영) 「구」 새로운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어 보기를 즐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신제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와 동사 ‘먹다’의 어간 ‘먹-’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하기 어려운 맛이나 기존에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제품일수록 {얼리 어딕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제품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75>

명칭 비용(명칭費用) 고_한 「구」 자신의 부주의로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지출한 비용. 『취업 포털 OO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명칭 비용의} 대표적인 지불 사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값 주고 구매하기’(44%)가 꼽혔다. 《한국일보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71>

얼리 힐링족(<영>▼early healing族) 영_(영+한) 「구」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30대의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주로 자기 계발이나 건강 관리 등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지치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30대를 이르는 말이다. 『또한 행복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30대인 ‘{얼리 힐링족}은’ 일 외에 본인의 삶과 생활을 중시하는 소비자들로 자기 계발과 여행, 자동차 등에 관심이 많다. 《동아일보 2017년 1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68>

노 룩 취재(<영>no look取材) 영_영_한 「구」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하는

취재. 『방송 후 누리꾼들은 보도 화면에 OO 땅 현장 사진이 아닌 포털 사이트 OO 로드 뷰 사진이 쓰인 것을 두고 ‘{노 록 취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부일보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66>

편퇴-족(便退族) 한+한 [편퇴족/편퇴족] [편퇴족만/편퇴족만/편퇴족만]
「명」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가볍게 먹을 음식 따위를 사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지난해 말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9퍼센트가 자신을 ‘{편퇴족}’이라고 답했다. <한겨레 2017년 3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66>

뉴-칼라(<영>new collar) 영+영 「명」 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인 ‘블루칼라’와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화이트칼라’로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직종의 노동자. 노동의 디지털화·자동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노동 장소와 시간 등의 제약이 감소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인공 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일상으로 파고들면 이를 조화롭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각광받게 될 것이다. 두려움 대신 새롭게 등장할 {뉴칼라들} 이용하고 활용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시사저널 2017년 9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4>

팩트 폭격(<영>fact爆撃) 영_한 「구」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팩트 폭력, 팩트 폭행. 『1000 씨를 향한 아줌마들의 {팩트 폭격이} 네티즌들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 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7년 1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63>

네티페미(<영>net←feminist) 영+영 「명」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를 이르는 말.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의미하는 ‘인터넷(internet)’과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페미니스트(feminist)’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네티페미}’는 해시태그를 통해 같은 생각과 지향점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대하면서 막강한 ‘여성 연대’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신문 2017년 2월> 【2016년 9월 신어】 <2017

년 빈도: 61>

젊-꼰 고+고 [젊 : 꼰] 「명」 ‘젊은 꼰대’를 줄여 이르는 말.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젊은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회사원 O 씨』는 “입사 초반에 나이가 나보다 세 살 어린 선배가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라며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들어온 막내 직원에게 비슷한 행동을 하는 날 발견한 뒤 ‘나도 무의식중에 {젊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7년 1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1>

객리단-길(客理團길) 한+고 [갱니단길] 「명」 전주시에 있는 조선 시대 유적인 객사(客舍) 주변의 길. 맛집과 영화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인기 명소이다. ‘객사’와 서울의 인기 명소 가운데 하나인 ‘경리단길’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전북 전주시 {객리단길에} 젊은 여행객이 몰리고 있다.』 <동아일보 2017년 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59>

캠-테크(<영>calm tech) 영+영 「명」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술. 조용함을 뜻하는 ‘캠(calm)’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스마트 가구는 기술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캠테크}’가 적용된다.』 <헤럴드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59>

피짓 토이(<영>fidget toy) 영_영 「구」 아이 또는 성인들이 한 손에 쥐고 주무르거나 눌러서 돌릴 수 있는 작은 장난감. 『{피짓 토이}는} 지난해 말부터 서구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59>

스트리밍 쇼퍼(<영>streaming shopper) 영_영 「구」 제품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얻기를 선호하는 소비자. 『최근 동영상 콘텐츠에 커머스를 접목한 ‘브이(V)-커머스’가 {스트리밍 쇼퍼들}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

어】 <2017년 빈도: 58>

프롭테크(<영><←property tech) 영+영 「명」 부동산 거래 또는 관리에 사용되는 정보 산업 기술. 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임대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을 뜻하는 ‘프라퍼티(property)’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첫 발표를 맡은 OOO 교수는 “OO이나 OO 등 평가액 10억 달러가 넘는 해외 {프롭테크}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통 산업과 신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시장 여건 외에 공공 정보의 완전 공개와 부동산 스타트업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역설했다. <조선비즈 2017년 5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7>

부메랑 직원(<영>boomerang職員) 영_한 「구」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간 직원을 부메랑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 7명은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입사하는 이른바 ‘{부메랑 직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크로팬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55>

혼골-족(혼<영><←golf族) (고+영)+한 「명」 혼자 골프를 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마침 {혼골족을} 위한 골프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O 씨는 바로 참가 신청서를 냈다. <중앙선데이 2017년 4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52>

혼뱅(혼<영><←bank) 고+영 「명」 은행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은행 업무를 봄. 또는 그렇게 보는 은행 업무. ¶3일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 은행인 OO는 {혼뱅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데일리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2>

먹-슬림(먹<영>slim) 고+영 「명」 식사를 거르지 않으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일. 우리말의 ‘떡다’와 영어에서 ‘날씬하다’를 뜻하는 단어 ‘슬림(slim)’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건강 분야 탑 10에 오른 제품들만 봐도 ‘{먹슬림}’이 다

이러트 시즌을 불문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을 엿볼 수 있다. 《패션비즈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51>

찜통 대선(찜통大選) 고_한 「구」 무척 무더운 여름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만약 현재가 6개월을 모두 채워 판결을 내리면 대선도 그만큼 늦어지고, 8월 한여름, 이른바 ‘{찜통 대선}’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엠비엔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51>

행복 회로(幸福回路) 한_한 「구」 불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복한 상상을 하는 정신적 기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 씨는 “우울할 때마다 {행복 회로} 돌려 ‘결혼 안 하면 책임도 줄고 부모님에게 손 벌릴 일이 없어 행복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7년 4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51>

넌-바이너리(<영>non binary) 영+영 「명」 남성과 여성 어느 한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주로 자신의 성(性) 정체성을 남성이나 여성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3의 성(性)을 이른다. 『지난 9일 OO 통신 등 외신은 오리건 주 주민들이 미국 주(州) 역사상 처음으로 신분증에 ‘{넌바이너리}’로 표기할 권리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2017년 5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50 / 2016년 빈도: 1>

위너 소비자(<영>winner消費者) 영_한 「구」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한 제품이나 취향에 맞는 제품 등을 거리낌 없이 구매하는 사람. 『특히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이들은 취향을 소비로 표현하는 ‘{위너 소비자}’로서 취미 생활에 필요한 제품과 컴퓨터·오디오·카메라 등 아이티(IT) 기기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스포츠조선 2017년 4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50>

코세페(Korea<영><←sale<이><←festa) 영+영+이 「명」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줄여 이르는 말. 대규모 할인 행사와 다양한 문화 행사가 결합된 쇼핑 관광 축제를 뜻한다. 『OO는…최대 10~30%까지만 할인을 하는데 ‘{코세페}’를 맞아

일부 품목은 40% 정도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엑스포츠뉴스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7>

내비게이션 소비(<영>navigation消費) 영_한 「구」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등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쇼핑 동선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형태. ¶{**내비게이션 소비**는} 이용자의 모바일 쇼핑 동선을 파악해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를 말한다. 인공 지능을 이용한 ‘OO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국민일보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4>

라이스 슈가(<영>rice sugar) 영_영 「구」 쌀을 가공하여 만든 설탕. 기존의 설탕보다 당도가 덜하고, 쌀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가공 설탕이다. 엿기름을 이용해 쌀을 액체 상태로 만든 뒤, 다시 고체로 만드는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쌀설탕. ¶국산 쌀을 가공해 설탕으로 만든 쌀설탕, {**라이스 슈가**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케이비에스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2>

네코노믹스(<일>neko[猫]<영>←economics) 일+영 「명」 일본에서,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 ‘고양이’를 의미하는 일본어 ‘네코(neko[猫])’와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일본 사회에 ‘{**네코노믹스**’라고까지} 불리는 고양이 붐이 일면서 새끼 고양이 가격이 치솟고 있다. 《국민일보 2017년 6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1>

캘럭시트(<영>calexit) 영 「명」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연방에서 독립함을 이르는 말.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확산되었다. ¶OOO 당선 이후 OO에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캘럭시트**’란} 단어가 수십만 건씩 올라왔다. 《한국경제 2016년 11월》 【←California+exit】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0>

프로 야근러(<영>←professional夜勤<영>←er) 영_(한+영) 「구」 직장에서 야근

을 자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프로 야근러'인} 직장인 O 씨에게 택시
귀가는 언젠가부터 일상이 되어 버렸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0>

샤이 진보(<영>shy進歩) 영_한 「구」 여론 조사 따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
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로 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이르는 말. 『O 평론가
는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까
지도 표심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17년 5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9>

지휘 근무병(指揮勤務兵) 한_한 「구」 지휘관의 공적 직무 수행을 돕고 비서
역할을 하는 병사. 주로 지휘관실의 시설을 관리하고, 상황실과의 연락을 담
당하며, 기타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지휘 근무병은} 지휘관이 자
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돕지만, 부대에 따라 업무 강도가 천차
만별인 탓에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역(使役)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연합
뉴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9>

아재슈머(아재<영>←consumer) 고+영 「명」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중년
층의 남성 소비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취향의 40~50대 남성이 주축인
{아재슈머들은} 패션, 뷰티, 식품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패션업
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조선비즈 2017년 2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7>

청-스타그램(靑<영>←Instagram) 한+영 「명」 청와대의 소식을 알리는 누리 소
통망 서비스(SNS). 『{청스타그램은}...비가 오는 청와대 경관 사진과 함께
“청와대에도 비가 왔습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매일경제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6>

홧술-족(火술族) (한+고)+한 [화 : 쓸족/환 : 쓸족] [화 : 쓸족만[화 : 쓸종만]/환
: 쓸족만[환 : 쓸종만]] 「명」 홧김에 술을 마구 마시는 사람. 또는 그런 무
리. 『최근 'OOO 게이트'의 영향 등으로 '{홧술족'이} 늘면서 술 소비가 증가

하고 있다. <부산일보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6>

쇼트 트랙 대선(<영>short track大選) 영_영_한 「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짧은 기간 동안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쇼트 트랙’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쇼트 트랙 대선’으로} 불리는 짧은 대선에서 티브이 토론 결과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이 더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뉴스1 2017년 4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5>

스몰텐트-론(<영>small tent論) 영+한 「명」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이 비슷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는 현상. 『OOO 전 총장 중심의 ‘빅텐트론’이 사그라지면서 OO 주도의 ‘{스몰텐트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 뉴스티브이 2017년 2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4>

쓸쓸 비용(쓸쓸費用) 고_한 「구」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쓰는 비용. 외로움을 잊기 위해 마신 술값, 혼자인 것이 쓸쓸해서 인형을 구입하는 데에 쓴 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자 밥 먹기 싫어 친구들에게 밥 사기, 잘 보일 사람도 없지만 비싼 옷 사기가 {쓸쓸 비용의} 대표 사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 제값 주고 사기, 휴대 전화 수리하기 등이 명칭 비용의 대표 지불 사례로 꼽혔다고 합니다. <엠비시뉴스 2017년 6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33>

뉴^노멀^중년(<영>new normal中年) 영^영^한 『사회 일반』 젊은 세대와 비슷한 삶의 방식과 취미 활동을 추구하는 중년. 주로 자기 관리나 자기 계발을 하는 데에 돈을 아끼지 않는 중년 세대를 의미한다. 『이른바 젊은 세대와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40, 50대를 일컫는 ‘{뉴 노멀 중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을 즐기며 피부, 미용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소비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7년 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0>

레스-마켓(<영><←restaurant market) 영+영 「명」 매장 내에 진열대를 설치해 지역 농산물이나 농수산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이곳에는 레스토랑과 시장을 합한 개념의 {레스마켓도} 설치된다. 《동아일보 2017년 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0>

졌잘싸 고+고+고 [전잘싸] 「명」 ‘졌지만 잘 싸웠음’을 줄여 이르는 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네티즌들이 출전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에서 나온 말이다. 『경기가 끝나고 하루가 지난 21일에도 농구 팬들 사이에선 “OO의 {졌잘싸}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선일보 2017년 3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0>

랜선 커플(<영>LAN線<영>couple) (영+한)_영 「구」 온라인상에서 짝이 되는 남녀 한 쌍을 이르는 말. 『OO과 OO이 함께한 신곡 OO은 {랜선 커플의} 골조합처럼 풋풋한 연애의 시작을 소재로 한 곡으로,…색다른 스토리텔링을 담을 예정이다. 《오에스이엔 2017년 3월》 【LAN:local area network】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29>

자소서 포비아(自紹書<영>phobia) 한_영 「구」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는 증세. 자기소개서 공포증이라고도 한다.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이 자기소개서 공포증에 시달리는 {자소서 포비아도} 취업 시즌이면 나타나는 증상이다. 《영남일보 2016년 10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8>

댄스올린(<영>dance<←violin) 영+영 「명」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 행위. ‘댄스’와 ‘바이올린’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바이올린과 댄스의 결합, 어색할 것만 같은 이 둘의 조합은 ‘{댄스올린’이란} 장르로 젊은 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7>

고나리-자(官▽理者) 한+한 [고나리자] 「명」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관리’의 오타인 ‘고나리’와 사람을 뜻하는 ‘자(者)’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고나리자로}** 찍히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등 대화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뉴스 2017년 4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26>

다세-권(多勢圈) 한+한 [다세권] 「명」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지하철역이나 공원 등이 인접해 있는 등의 다양하고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주거 지역. **【그동안 ‘{다세권}’은** 아파트의 몸값을 주도하는 요소로 각인돼 왔다. 하지만 이제 오피스텔에서도 ‘**{다세권}’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스페셜경제 2017년 9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26>

안아키스트(안아키<영>←ist) 고+영 「명」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 현대 의학을 거부하고 자연주의적 치료법을 고수하는 사람을 이른다. 현대 의학의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요법만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래한 말이다. **【{안아키스트들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등의 약을 쓰는 대신 자연적인 치료로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데이신문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26>

야근-각(夜勤角) 한+한 [야 : 근각] [야근각만[야 : 근강만]] 「명」 야근하게 될 것 같은 상황. 퇴근 시간이 지나 밤늦게까지 하는 근무를 뜻하는 ‘야근’과 무언가를 하게 될 것 같음을 뜻하는 ‘각’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네티즌들은** “왜 안 들어가지나. 방송이 종료됐다.”, “34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설마 파괴 왕 000 때문인가?”, “OO 제작진 오늘도 **{야근각}**.”…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 2017년 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26>

치-탄(<영>←chicken炭) 영+한 「명」 치킨과 탄산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콜라** 시장에 새로운 탄산수가 접목되면서…이름하여 ‘**{치탄}’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될지 궁금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머니에스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6>

혼참-족(혼參族) (고+한)+한 [혼참족] [혼참족만[혼참종만]] 「명」 시위나 집회에 혼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이날 ‘혼자 온 사람들’의 깃발 아래 모인 {혼참족들은} 40여 명이었다. 《한겨레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6>

금-대리(金代理) 한+한 [금대리] 「명」 주로 건설업계의 회사에서, 대리금 인력이 많지 않아 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 회사 대표는 “최근 이직한 대리나 과장급 모두 대기업이나 경쟁 중견 기업에서 연봉을 조금 더 주고 데려간 것.”이라며 “요즘 업계에서는 {금대리}, 은과장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25>

애국^페이^근절법(愛國<영>pay根絶法) 한^영^한 『법률』 애국심을 발미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을 근절하는 법안.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열악한 대우를 받는 한국 병사들의 임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군인 월급 인상안으로, ‘군인 보수법 개정안’이라고도 한다. 『O 의원은 “{애국 페이 근절법} 통해 병사 사기를 진작하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16년 12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5>

실버 파산(<영>silver破産) 영_한 「구」 은퇴 후 소득 감소,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증가 등의 이유로 중산층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빈곤층이 되는 일.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버 파산}’의 우려가 크다. 《서울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4>

아톰 보밍(<영>atom bombing) 영_영 「구」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社)에서 개발한 운영 체제 내의 데이터 저장 영역에 침투하여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따위를 빼돌리는 등 사용자에게 유해한 동작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 컴퓨터 운영 체제의 보안에서 취약한 점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활용하는 운영 체제 내의 기본 데이터 저장 영역에 먼저 침입한 후에 목표한 유해한 동작을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대부분의 보안 프로그램의 감시망을 빠져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社)에서 개발한 운영 체제 내의 데이터 저장 영역을 가리키는 ‘아톰 테이블(atom table)’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아톰 보밍은} 윈도의 보안 취약점이나 OO를 실행하는 코드상의 결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윈도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패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트디넛코리아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24>

강세-권(江勢圈) 한+한 [강세권] 「명」 강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에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 주로 강 근처에 위치하여 강의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주거 지역을 이른다. 【특히 숲세권, {강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거 환경을 사랑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엠비시뉴스 2016년 10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3>

교순-대(交巡隊) 한+한 [교순대] 「명」 ‘교통 순찰대’를 줄여 이르는 말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주로 도로 교통의 사정을 살피기 위하여 조직된 경찰대. 【{교순대의} 1순위 업무는 기동 경호. 대통령이나 해외 정상, 귀빈들의 차량을 경호하면서 길을 뚫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경제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3>

그루답터(<영>▼←grooming early adopter) 영+영 「명」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패션이나 미용과 관련된 신제품을 구매하여 외모를 가꾸는 남자. 몸을 치장한다는 의미의 ‘그루밍(grooming)’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보습과 베이스 메이크업에 관심을 두던 그루밍족을 넘어 색조 메이크업과 제모 등에

관심을 두는 {그루답터가} 느는 추세다. 《머니투데이 2016년 11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3>

엔딩 매직(<영>▼ending magic) 영_영 「구」 드라마가 마칠 때 나오는, 인상 깊은 마지막 장면을 마술에 빗대어 이르는 말. 『이미 000이 여자임을 알고 있었던 000의 반전 고백은 또 한 번의 {엔딩 매직을} 선사했다. 《스포츠동아 2016년 9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23>

영포티-족(<영>▼young forty族) 영+한 「명」 젊게 사는 40대의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주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옷이나 신발 등으로 자신을 꾸미는 일에 신경 쓰는 40대를 이르는 말이다. 『자기 투자를 아끼지 않는 20~30대 ‘허세남’의 등극과 자기 관리를 중시하는 ‘{영포티족}들의’ 명품 가죽 사랑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경제 2017년 5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23 / 2016년 빈도: 1>

팬텀 세대(<영>phantom세대) 영_한 「구」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소통하여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대. 유령을 뜻하는 ‘팬텀(phantom)’과 ‘세대’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본 2016년 한 해를 ‘{팬텀 세대}가’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릿지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3>

베지노믹스(<영>vegenomics) 영 「명」 채식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채소를 의미하는 ‘베지터블(vegetable)’과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채식 시장이 커져 감에 따라 생긴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채식주의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떠오르며 ‘{베지노믹스}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vegetable+economics】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22>

뷰알못(<영>←beauty알못) 영+고+고 「명」 ‘뷰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화장품이나 옷 등 외모를 가꾸는 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

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OOO는 인터뷰를 통해 “{뷰알못이지만}, 얼마 전부터 뷰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며 뷰티 분야에 관심을 드러냈다. 《스포츠동아 2017년 5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2>

코렌터(<영>▼←Korea enter) 영 「명」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유 무역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함을 이르는 말. 『그는 “우리는 대외 지향적 경제 개발 전략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라며 ‘{코렌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데일리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2>

악-편(惡編) 한+한 [악편] 「명」 ‘악마의 편집’을 줄여 이르는 말. 제작자나 편집자의 목적에 따라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출현자가 한 말이나 행동이 사실과 다르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이른다. 『잘하는 것을 포착하지 않고, 못하는 것은 반복해 보여 주는 수법도 {악편의} 한 방식이다. 《헤럴드팝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21>

공취-생(公就生) 한+한 [공취생] 「명」 공무원 시험과 일반 기업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취업이 힘들어진 사회 분위기 때문에 다방면의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만들어진 말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과 일반 기업 취업 준비 사이를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공취생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20>

길맥-족(길麥族) (고+한)+한 [길맥족] [길맥족만[길맥종만]] 「명」 길에서 맥주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흔히 ‘{길맥족}’으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무분별하게 공원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탓에 공원을 찾는 시민과 인근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20>

깃털 눈썹 고+고 「구」 새의 깃털 모양처럼 생긴 눈썹. 눈썹의 가운데에 약간 공백을 두고 절반은 위로, 절반은 아래로 나누어 고정하는 방식의 눈썹 화장법이다.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에스엔에스(SNS)에 공개한 ‘{깃털 눈썹}’이 화제입니다. 《케이비에스뉴스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20>

나-로서기 고+고 [나로서기] 「명」 다른 것에 매이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찾고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일. ‘나’와 ‘홀로서기’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대학 생활은 {나로서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는 기간이다. 《미주한국일보 2017년 3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0>

쓰랑-꾼 고+고 [쓰랑꾼] 「명」 ‘쓰레기 사랑꾼’을 줄여 이르는 말로, 품성은 쓰레기라고 볼릴 정도로 나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 ¶인간성은 함량 미달이지만, 연애는 프로처럼 잘하는 일명 ‘{쓰랑꾼}들이’ 안방을 접수했다. 《티브이리포트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0>

원룸 푸어(<영>▼one-room poor) 영+영 「구」 원룸의 비싼 월세와 보증금을 내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는 ‘{원룸 푸어}가’ 등장했습니다. 《에스비에스뉴스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20>

팩-폭(<영>←fact暴) 영+한 「명」 ‘팩트 폭력’을 줄여 이르는 말. ¶O 군은 “나에게 낮은 순위를 매긴 친구에게 화를 내면 오히려 ‘{팩폭을}’ 당해 발끈했느냐.”라며 놀림당한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7년 7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0>

혼커(혼<영>←coffee) 고+영 「명」 혼자서 커피를 마심. 또는 그렇게 마시는 커피. ¶‘나 홀로 열풍’은 혼밥과 혼술, {혼커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신문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0>

갑질 사범(甲질事犯) (한+고)_한 「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체멋대로 구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100일 동안 특별 단속을 통해 7,663명의 {갑질 사범을} 검거했다. 《노컷뉴스 2016년 12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9>

랜선 집사(<영>LAN線執事) (영+한)_한 「구」 고양이를 직접 키우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고양이의 사진이나 동영상を 보고 귀엽게 여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랜선 집사임을} 자부하는 구독자들은 “우리 ○○이 살이 너무 빠진 것 아닌가?” 등으로 마치 자기 고양이인 양 관심을 표현하고 “광고를 중간에 넘기지 않고 끝까지 다 볼 테니 광고 수익이 나면 애들 간식을 사 먹여 달라.” 등의 요청을 댓글로 남긴다. 《세계일보 2017년 8월》 【LAN:local area network】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9>

몹스(<영>moobs) 영 「명」 2001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여성 유방증’을 이르는 말. 『여성 유방증을 뜻하는 {몹스가} OO 사전에 신조어로 등재됐다. 《뉴스1 2016년 9월》 【←man+boobs】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9>

페모크라티(<독>femokratie) 독 「명」 여성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에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장치. 여성주의를 뜻하는 독일어 ‘페미니스무스(feminismus)’와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티(demokratie)’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페모크라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곳곳에서 여성 지도자의 활약이 돋보였지만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실패로 끝났다. 《여성신문 2017년 1월》 【←feminismus+demokratie】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9>

랜선 실세(<영>LAN線實勢) (영+한)_한 「구」 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청문회에서,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를 이용해 정치인에게 사실이 담긴 내용을 제보하여 실제적인 세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른바 ‘{랜선 실세’로} 불리는 시민들은 문자 메시지,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해

국정 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제보하며 사실상 청문회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일보 2016년 12월》 【LAN:local area network】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8>

먹-크러시(먹<영>crush) 고+영 「명」 먹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 또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 ¶OOO은 프로 복서 출신다운 날카로운 시선과 승부욕으로 남다른 ‘{먹크러시}’를 선보인다. 《스포츠큐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8>

스테이테인먼트(<영>▼stay←entertainment) 영+영 「명」 호텔에서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호텔 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휴가를 보내는 일. ‘머무르다’를 뜻하는 ‘스테이(stay)’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가족 이용객에겐 호텔에서 단순히 머무르기보다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스테이테인먼트}’가 인기다.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18>

파파미(파파美) 고+한 [파파미] 「명」 ‘파도 파도 미담’을 줄여 이르는 말.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좋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말이다. ¶OOO는 야구계의 ‘{파파미}’다. 이미 OO 팬들은 그를 ‘기부 천사’라고 부른다. 《중앙일보 2017년 8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8>

호텔 하우스 인테리어(<영>hotel house interior) 영_영_영 「구」 집 안을 호텔처럼 꾸미는 일. 쾌적한 호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인기를 끌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특급 호텔에서 경험한 편안함을 집에서도 느끼고자 ‘{호텔 하우스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이들도 적잖이 늘고 있다. 《머니 2017년 9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8>

고층^작업^차(高層作業車) 한^한^한 『산업 일반』 사람이 직접 작업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 =고소 작업 차. ¶양쪽에 워킹 타워가 설치되면 이를 {고층 작업 차로} 연결하고, 수색 팀은 이

작업 차를 이용해 OO호 우현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7>

노마드 보수(<영>nomad保守) 영_한 「구」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를 일정하게 지지하지 않고 여러 후보에 대해 지지를 옮겨 다니는 보수층을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당의 선전은 지난 대선에서 {노마드 보수} 이끌었던 OO·OO의 높은 지지 때문이다. 《주간경향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7>

노멀 크러시(<영>normal crush) 영_영 「구」 평범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일. 『청년들이 {노멀 크러시} 추구하는 이유는 ‘공감’과 ‘편안함’에 있다. 《더피알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7>

디지털 성범죄(<영>digital性犯罪) 영_한 「구」 카메라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예를 들어 몰래 카메라로 타인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따위가 있다. 『O 의원은…“{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매일경제 2017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7>

쥬마 파탈(쥬마<프>←femme fatale) 고_프 「구」 매력 있는 아쥬마를 이르는 말. 『OOO OO 실장은 “...노출과 직결되는 패션을 망설이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4050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섹시한 중년 남성을 칭하는 아재 파탈과 함께 {쥬마 파탈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7>

초딩-미(初딩美) (한+고)+한 [초딩미] 「명」 초등학생처럼 활발하며 장난기 넘치는 사람이 풍기는 귀여운 매력. 『귀여운 얼굴에 아담한 체격, 밝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까지, OOO와 OOO이 ‘{초딩미}’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오에스이엔 2017년 4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7>

만푼-녀(漫醵女) (한+고)+한 [만 : 풀려] 「명」 ‘만화를 풀고 나온 듯한 여자’라는 뜻으로,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못지않게 외모가 뛰어난 여자를 이르는 말. **『한 드라마 속 {만푼녀가}** 정말 만화 속 주인공 같은 비현실적인 미모를 뽐내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세계일보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6>

매직 툴바(<영>magic toolbar) 영_영 「구」 키보드의 평선 키를 대신해 컴퓨터 운영 체제나 웹 브라우저 따위의 응용 프로그램 가운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따로 모아 아이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신형 OO는 디스플레이 자동 변환 기술인 {매직 툴바를}** 탑재하고 있어 키보드 윗줄의 평선 키는 사라지게 됐다. 《뉴시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6>

빡침 비용(빡침費用) 고_한 「구」 화가 났을 때 그러한 기분을 풀기 위해 쓰는 비용. **『{빡침 비용}을}** 허용하는 사람들은, 제품 자체의 질과 가격을 따지는 효율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당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노컷뉴스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6>

프로 놀람러(<영>←professional놀람<영>←er) 영_(고+영) 「구」 시각이나 청각 등 특정한 자극으로 인해 평소와 다르게 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이르는 말. **『한편 000는 이날 방송된 00 특집에서...귀신과의 만남에 소리치고 욕까지 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 {프로 놀람러'로}** 등극했다. 《부산일보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6>

먹튀 출산(먹튀出産) 고_한 「구」 특정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하는 돈만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현상.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로 주소지를 임시로 옮긴 뒤, 출산 장려금만 받고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이른다. **『4년째 출산율 1위인 전남 00군이 {먹튀 출산과}** 재정 악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일경제 2016년 9월》 【2016

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5>

식큐멘터리(食<영>←documentary) 한+영 「명」 출연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 내는 형식의 방송. ‘식사’와 ‘다큐멘터리(documentary)’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식큐멘터리}를』 표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 무작정 찾아가 일반 대중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다. 《스포츠큐 2017년 8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5>

실험동물^지킴이^법안(實驗動物지킴이法案) 한^고^한 『법률』 동물 실험 후 회복된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과 동물 실험 시설에서 무등록 공급자에게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아울러 이르는 말. 실험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도 한다. 『정치권에서도 000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일명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투데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5>

영영 페미(<영>▼young young←feminist) 영_영 「구」 1990년대에 등장한 젊은 페미니스트인 ‘영 페미’ 이후 나타난 신경향의 더 어린 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라는 낙인과 편견이 두려웠지만 ‘{영영 페미}들은} 강남역에서 행동할 ‘용기’를 얻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한겨레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5>

통리-통략(統利統略) 한+한 [통 : 니통략] [통리통략만[통 : 니통냥만]] 「명」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이익이 되는 꾀나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당리당략(黨利黨略)’에서 ‘정당’을 의미하는 ‘당(黨)’ 자를 ‘대통령’을 의미하는 ‘통(統)’ 자로 바꾸어 만든 말이다. 『000 최고 위원은…“요즘 0 전 대표의 행동 기준은 ‘{통리통략}.”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5>

호모 체어쿠스(<라>▼homo <영>chair←pithecus) 라_영 「구」 오랜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인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로 장시간 동안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을 가리킨다. 『이번에 선보인 신규 티브이 광고 캠페인은 ‘{호모 체어쿠스’라는} 참신한 콘셉트를 활용했다. 《머니투데이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5>

고막 여친(鼓膜女親) 한_한 「구」 실제 여자 친구는 아니지만 연인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여성. 주로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 가수를 이르는 말이다. 『OO는 {고막 여친이란} 별명에 걸맞게 모닝콜과 벨 소리 만들기에 도전했다. 《티브이리포트 2017년 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4>

궁서리(窮<영>←luxury) 한+영 「명」 궁상맞으면서도 보기에 고급스러운 데가 있음. ‘궁상’과 고급스러움을 의미하는 ‘럭셔리(luxury)’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시작부터 OOO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궁서리’를} 선보였다. 남산이 잘 보이는 옥상을 인터뷰 장소로 잡은 OOO은… 아보카도를 간장에 찍어 참치 배살 맛을 냈다. 《헤럴드팝 2017년 10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4>

메포츠(<영>←medical sport) 영+영 「명」 의사의 처방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질환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의료 방법. 의학을 뜻하는 ‘메디컬(medical)’과 ‘스포츠(sport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학과 스포츠를 융합한 일명 ‘{메포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케이엔엔 2016년 10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십시(十試/十匙) 한 [십씨] 「명」 각종 고시에서 열 번 떨어져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OOO은 사법 고시에 십회나 낙방해 ‘주변에서 십시일반 도와줘야 한다.’라고 해서 ‘{십시’로} 불린다. 《티브이데일리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아재템(아재<영>←item) 고+영 「명」 중년층의 남성들이 즐겨 사용하거나 사용

하던 물건. 『일명 ‘아재템’으로} 불리던 스포츠 샌들은 개성 있는 디자인과 편안한 착화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5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안전 속바지(安全속바지) 한_고 「구」 여성들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치마 속에 끼입는 바지.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특수한 재질로 만든 반바지에 자물쇠를 단 줄을 연결하여 입은 사람만 입고 벗을 수 있게 만든 옷이다. 속바지가 찢어지는 경우, 경고음이 울려 착용자가 위험에 처했음을 주변에 알릴 수 있다. 독일의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안전 속바지’의} 여밈 부분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절대 열 수 없다. 《중앙일보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오버 투어리즘(<영>over tourism) 영_영 「구」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주거 지역이 관광지가 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서울 명동과 서촌 그리고 제주를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을’ 앓고 있다. 《매일경제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졸혼-남(卒婚男) 한+한 [졸혼남] 「명」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사이의 결혼 생활을 그만두는 남자. 『배우 000이 최근 {졸혼남으로} 살고 있음을 밝히며 그간 털어놓지 않았던 속마음을 고백했다. 《엑스포즈뉴스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채권 난민(債券難民) 한_한 「구」 저금리, 낮은 수익률 등의 이유로 채권 시장에서 빠져 나와 다른 투자처를 찾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 그룹의 000 주식 전략가는 “{채권 난민들이} 주식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급격한 인플레이 상승이나 성장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낮고 더 높은 배당을 보장하는 주식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컨슈머토피아(<영>consumer←Utopia) 영+영 「명」 소비자의 요구가 시장의 모

든 요건을 결정하는 경제 체계.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와 이상 세계를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우리는 이른바 ‘{컨슈머토피아}’에 살고 있다. 《조선일보 2017년 3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4>

페이버타이징(<영>femvertising) 영 「명」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차별이 반영되지 않는 광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성적 대성화를 경계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강조하는 {페이버타이징} 광고계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한겨레 2016년 11월》 【←feminism+advertising】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4>

프리랜서 바이오 해커(<영>free-lancer bio hacker) 영_영_영 「구」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사람. 『OOO 박사는 “앞으로는 {프리랜서 바이오 해커들}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팩트올 2016년 8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4>

골드 이모(<영>gold姨母) 영_한 「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조카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이모를 이르는 말. 『최근 조카 학비에 해외여행 비용까지 대 주는 이른바 ‘{골드 이모}’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티브이데일리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3>

골든 타임 배송(<영>golden time配送) 영_영_한 「구」 가장 적절한 시간대에 물자를 보내 주는 일. 주로 신선한 식자재를 배송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수요자 관점에서는 최고의 품질의 식자재를 최적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골든 타임 배송}의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헤럴드경제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3>

꿀-근무지(꿀勤務地) 고+한 [꿀근무지] 「명」 다른 근무지에 비하여 쉽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특히 검찰,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감사원, 외교부, 국세청 등 권력 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아

들은 모두 교육 지원청, 구청, 대학, 중앙 도서관, 헌법 재판소 등 {꼴근무 지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3>

연애 정상성(戀愛正常性) 한_한 「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사귀는 것만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미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탈리아 어 ‘아마토(amato)’와 정상성을 뜻하는 영어 ‘노머티비티(normative)’를 결합하여 만든 말인 ‘아마토노머티비티(amatonnormativity)’를 한국어로 번역한 말이다. 『{연애 정상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성향의 사람들은 연애 권하기를 넘어 연애를 강요하는 사회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여성신문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3>

열대야락-족(熱帶夜樂族) 한+한 [열대야락족] [열대야락족만[열대야락종만]] 「명」 열대야를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주로 캠핑이나 야외 활동 등으로 여름철의 무더운 밤을 이겨 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걷기, 달리기 등 가벼운 운동으로 기나긴 열대야를 하얗게 불태우려는 {열대야락족들도} 많다. <한국경제티브이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3>

호모 인턴(<라>▼homo<영>intern) 라_영 「구」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인턴 생활만 반복하는 취업 준비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청년들 사이에 ‘{호모 인턴}’, ‘부장 인턴’이란 용어가 회자된단다. 인턴을 위한 인간이라거나 인턴을 워낙 많이 해 실무 능력은 부장급이란 패러디다. <국민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3>

혼-창(혼창) 고+한 [혼창] 「명」 혼자서 노래를 부름. 또는 그렇게 부르는 노래. 『동전 노래방이 다시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자 노는 문화’가 퍼진 것도 한 요인이다. 젊은 층의 개인적 성향이 ‘혼밥’, ‘혼술’ 뿐만 아니라 ‘{혼창}까지} 확산했다는 설명이다. <국제신문 2016년 8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3>

가성비-족(價性比族) 한+한 [가성비족] [가성비족만[가성비종만]] 「명」 가

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중시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OO는 론칭 2년 만에 전국 매장 100개를 돌파할 정도로 {가성비족의} 발길을 잡았다. <헤럴드경제 2017년 4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2>

대-협치(大協治) 한+한 [대:협치] 「명」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관계 기관 및 기업 따위의 관련 주체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연합 관리 체계. 『집권 초기 과감한 적폐 청산 이후에는 온 나라,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협치}를 펼치기를 당부 드린다. <광주일보 2017년 5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2>

독서실 원시인(讀書室原始人) 한_한 「구」 취업을 위하여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원시인’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을 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취업 인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2011년 공기업 몇 군데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다...O 씨는 그렇게 ‘{독서실 원시인’으로} 돌아왔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2>

봄날 대선(봄날大選) 고_한 「구」 봄날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2016년 대통령 탄핵으로 원래 겨울철에 실시되던 대선이 앞당겨져 봄철에 치르게 되면서 생겨난 말이다. 『이른바 ‘{봄날 대선’이} 현실화되면 여야 차기 주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고작 80여 일에 불과합니다. <이데일리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소울^타이(<영>soul tie) 영^영 『기독교』 기독교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끈끈한 영적 교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해 형성되는 건강하고 경건한 {소울 타이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쁨을 준다. <한국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소파 사운드(<영>SOFAR sound) 영_영 「구」 정해진 공연장을 벗어나 집, 사무실, 옥상, 마당과 같이 작은 공간에서 소규모로 열리는 공연. 『또한 OOO은...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된 공연 동안 관객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소파 사운드}’를 구현했다. 《국제신문 2017년 4월》
【SOFAR:songs from a room】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유심^폭리^방지법(<영>USIM暴利防止法) 영^한^한 『정보·통신』 이동 통신사가 자사의 유심(USIM)을 독점으로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2016년 10월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동 통신 3사가 일선 유통점에 자사의 스마트폰 유심을 독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심 폭리 방지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뉴스24 2016년 10월》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인맥 커팅(人脈<영>cutting) 한_영 「구」 인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서 오는 회의감으로 인해 관계를 과감히 끊는 일. 『{인맥 커팅을} 시도했던 이유로는 ‘원치 않는 타인에게 내 프로필을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자소설 포비아(自小說<영>phobia) 한_영 「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마치 소설 같은 허구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일은 못 배우고 허드렛일만 계속하는 인턴을 일컫는 ‘흙턴’, 자소설 공포증을 의미하는 ‘{자소설 포비아}’ 등 다양한 취업 신조어가 파생되는 상황에서 대학교가 어떤 뚜렷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 역할론이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 《이비엔 2017년 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치맥지교(<영>←chicken麥之交) 영+한 「명」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귀. 또는 그런 친구.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눈다는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관포지교’에서 유래한 말이다. 『치느님,···{치맥지교}, 치중 진담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치킨은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머니에스 2017년 11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치중 진담(<영><←chicken中眞談) (영+한)_한 「구」 치킨을 먹는 동안 털어놓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는 ‘취중 진담’에서 유래한 말이다. 『치맥지교, {치중 진담을} 나누는 대상은 친구인 경우가 많다.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치킨과 관련해 가장 언급이 많이 된 인물 1위가 친구인 점은 이를 보여 준다. 《세계일보 2017년 6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2>

팩트리엇(<영><←fact patriot) 영+영 「명」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 사실을 뜻하는 ‘팩트(fact)’와 미사일의 한 종류인 ‘패트리엇 미사일(patriot missile)’의 비규범 형태인 ‘팩트리엇 미사일’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당 OOO 의원이 느닷없이 직격탄을 날려 {팩트리엇가} 됐다. 《한강타임즈 2017년 6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2>

프로 할말러(<영><←professional할말<영><←er) 영_(고+영) 「구」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등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일 인공 지능 기반 빅 데이터 분석 업체 OO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 블로그와 OO를 분석해 2017년은 ‘{프로 할말러}’의 시대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2>

할-아재 고+고 [하라재] 「명」 노년과 중년 사이의 남성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보통 60대 중후반의 남성들을 말한다. ‘할아버지’와 ‘아재’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이들은 ‘아재’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할아재}급의’ 드립력과 몸짓으로 또 한번 웃음 폭탄을 투척할 예정인 가운데, 저녁 식사를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 《한국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2>

갓상블(<영>god<프><←ensemble) 영+프 「명」 2인 이상이 하는 노래나 연주의 전체적인 어울림이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 최고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작품 역시 이른바 {갓상블로} 통하는 양상블의 화려한 군무가 인상적이다. 《동아일보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1>

고시 삼자 동락설(考試三者同落說) 한_한_한 「구」 고시에서 떨어지면 친구와 여자, 돈까지도 함께 없어질 수 있음을 이르는 말. 『{고시 삼자 동락설}이} 판치는 속에...‘십시’들은 좀비처럼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한겨레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1>

교정-어(校定語) 한+한 [교: 정어] 「명」 잘못된 글자나 글귀를 검토하여 바르게 고친 말. 『OO는 기본 입력 기능 외에 추천어, {교정어}...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경제신문 2017년 11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選舉後<영>stress障礙) 한_한_영_한 「구」 기대에서 벗어난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빗대어 이르는 말. 『OO은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앓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빗대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OOO 정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20일 전했다. 《경향신문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스펙타쿠스(<영>▼spectacus) 영 「명」 학력, 학점, 자격증 등 각종 스펙을 쌓는 데에 몰두하는 취업 준비생을 이르는 말. 『취업 준비생이 ‘{스펙타쿠스}’로 진화하는 사이 ‘스펙’도 한 단계 올라섰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와유 백(Wayuu<영>bag) 영_영 「구」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사이의 과히라(Guajira) 반도에 사는 와유(Wayuu) 부족이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가방. 다양한 색깔과 화려한 패턴이 특징이다. 『패턴과 디테일이 달라 고르는 재미가 있는 {와유 백은} 추천연색으로 컬러가 다채롭고, 미니 사이즈부터 버킷백 사이즈까지 크기도 다양하다. 《스포츠조선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위상^점(位相點) 한^한 『물리』 역학에서, 일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이차원의 그래프 공간에 표시하는 점. 그래프의 가로축은 물체의 위치를, 세로축은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며 물체의 상태에 해당되는 지점에 표시한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물체의 현 상태에서부터 미래의 상태를 결정하니, {위상 점은} 시간이 지나면 위상 공간 안에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게 된다. <문화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젠틀^제왕^절개(<영>gentle帝王切開) 영^한^한 『의학』 모체의 배를 가른 후, 태아가 스스로 모체의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수술. 제왕 절개 수술보다 덜 위험하며, 산모와 태아의 친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매체에 따르면 {젠틀 제왕 절개를} 통해 산모는 출산에 기여하고 아이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줄귀탱 고+고+고 [줄귀탱] 「명」 매우 귀여운 대상을 이르는 말. 『지난 21일 OO는 공식 OO을 통해 “OO, {줄귀탱인데} 안 사고 어떻게 참아?”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인사이트 2017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짜스(짜<영>←style) 고+영 「명」 ‘짜증나는 스타일’을 줄여 이르는 말. 『OOO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OOO와, OOO에게 ‘{짜스’라고} 불리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OOO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아시아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1>

파미나(<영>▼←party seminar) 영 「명」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연수회나 강습회. ‘파티(party)’와 ‘세미나(seminar)’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정보 기술업계 종사자들은 올해 새롭게 부대 행사로 등장한 ‘{파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매일경제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1>

팩트-광(<영>fact狂) 영+한 「명」 정확한 사실을 열광적으로 즐기는 병적인 버릇. 또는 그런 사람. ¶최근 OO은 20대를 대표하는 2017년 키워드의 하나로, 사실을 매번 확인하려 한다는 ‘{팩트광}을’ 꼽았다. 《연합뉴스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1>

피르가즘(皮<프>←orgasme) 한+프 「명」 피지를 제거하며 느끼는 쾌락을 이르는 말. ‘피지’와 ‘오르가즘(orgasme)’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피르가슴’이다. ¶{피르가즘}을 느끼고 싶다면, OO팩을 추천합니다. 《매일경제 2017년 2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1>

혼뱅-족(혼<영>←bank族) (고+영)+한 「명」 은행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혼뱅족들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데일리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11>

개-사이다(개<영>cider) 고+영 「명」 답답한 상황을 매우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속되게 이르는 말. ¶OOO은 “‘{개사이다}’는 시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다. 직접적으로 개량도 관련 없고, 직접적으로 청량음료랑도 관련 없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두 가지를 옆에 놓는 순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아주 시원한 기분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헤럴드피오피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0>

미코-녀(<영>←mini bag echo bag女) (영+영)+한 「명」 ‘미니 백과 에코 백을 모두 가지고 다니는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멋을 위해 작은 가방을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에 필요한 소지품이나 퇴근 후 운동을 위한 용품을 담기 위해 에코 백을 패션처럼 들고 다니는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미코녀는}…일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부산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0>

시니어노믹스(<영>seniornomics) 영 「명」 노령 인구의 경제 활동으로 파생되는 경제 효과. 노령 인구를 뜻하는 ‘시니어(senior)’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50~60대 액티브 시니어들은 {시니어노믹스의} 건강한 주체로서 여전히 경제 성장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주신보 2017년 5월> 【←senior+economics】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0>

역피셜(歷<영>←official) 한+영 「명」 사극 등 역사 관련 극에서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다음 내용을 알아내는 일. 『해피 엔딩을 기대하자니 ‘{역피셜’이} 있고, 새드 엔딩을 보자니 시청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오에스이엔 2017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0>

트리밍-족(<영>trimming族) 영+한 「명」 수염, 코털, 눈썹 등을 깎고 다듬는 일에 신경을 쓰는 남자. 또는 그런 무리. 다듬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 ‘트리밍(trimming)’과 접사 ‘-족((族)’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트리밍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만큼 남성들 사이에서도 제모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제품 구매층도 한층 더 다양해졌다. <아시아경제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0>

티티 포즈(<영>▼TT pose) 영_영 「구」 눈물을 흘리는 모양처럼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펴서 눈 아래에 갖다 대는 자세. 인기 있는 걸 그룹의 춤 동작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티티 포즈는} 일본 유명 스타들도 따라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한국스포츠경제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0>

핑거 프린스(<영>finger prince) 영_영 「구」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찾지 아니하고 남에게 물어보는 남자. 『핑프』라는 신조어는 {핑거 프린스}, 혹은 핑거 프린세스의 줄임말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알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뜻합니다. <와이티엔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0>

휘깔리케이션(<덴>hyggeligt<영><←vacation) 덴+영 「명」 편안하거나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기는 일. 『최근 휴가를 즐기는 방법으로 ‘{휘깔리케이션’이} 뜨고 있다. 《조선일보 2017년 7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0>

대-유썸(大有썸) 한+(한+고) [대 : 유썸] 「명」 큰 재미가 있음. 『방송을 접한 팬들은 “오늘도 너무 예쁘고 귀엽고 {대유썸이었다}.”, “오늘 역대급 방송으로 재밌어요. 대박!”, “오늘 완전 {대유썸}.”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미디어펜 2017년 5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9>

숙제 격차(宿題隔差) 한_한 「구」 숙제를 하는 환경의 차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찾는 것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숙제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OO의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의 정보 격차와 {숙제 격차}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미주중앙일보 2016년 10월》 【2016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9 / 2016년 빈도: 1>

쌀-설탕(쌀雪糖▽) 고+한 [쌀설탕] 「명」 쌀을 가공하여 만든 설탕. 기존의 설탕보다 당도가 덜하고, 쌀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가공 설탕이다. 엿기름을 이용해 쌀을 액체 상태로 만든 뒤, 다시 고체로 만드는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라이스 슈가. 『{쌀설탕은} 기존 설탕보다 덜 달고, 쌀이 함유한 영양소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엠비엔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9>

안아키-족(안아키族) 고+한 [아나키족] [안아키족만[아나키종만]] 「명」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현대 의학의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요법만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래한 말이다. 『{안아키족들은} 우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필수로 집중해야 하는 예방 집중을 거부한다. <뉴스1 2017년 5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9>

엄카-족(엄<영>←card族) (고+영)+한 「명」 엄마의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 따위를 사며 여유로운 소비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일명 ‘{엄카족}인데’, 부모님 댁에서 살면서 엄마 카드로 여유 있게 소비를 하는 ‘차원이 다른’ 캥거루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스비에스뉴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9>

에스 마이스(<영>S MICE) 영_영 「구」 스포츠 경기장을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따위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활용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는 일. 『OO시가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중 처음으로 {에스 마이스라는} 실험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기장 운영 적자 때문이다. <한국경제 2016년 7월> 【←sports+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and event】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9>

프로 혼참러(<영>←professional 혼參<영>←er) 영_(고+한+영) 「구」 시위나 집회 따위에 혼자 잘 참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곳곳에는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시민이나 홀로 집회에 참석한 이른바 ‘{프로 혼참러}까지’ 눈에 띈다. <노컷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9>

휴보젠트(<영>▼←humanized robotic agent) 영+영 『기계』 인간이 직접 하던 행정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화된 프로그램.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내재한 로봇. 『{휴보젠트를} 지원하는 인프라로…{휴보젠트가} 행정에 내재화되는 스마트 정보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테이터넷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9>

갭^투자족(<영>gap投資族) 영^한 『경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놓은 후, 매매가 상승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O 교수는 “지금처럼 대출이 강화된 상태에서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갭 투자족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면서…

경고했다. 《데일리안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8 / 2016년 빈도: 1>

고막 연인(鼓膜戀人) 한_한 「구」 실제 연인은 아니지만 연인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불러 주는 남성 또는 여성. 주로 매우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나 라디오 진행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듣는 누군가의 시끄러운 통화 소리, 직장 상사의 이유 없는 잔소리 등으로 지친 귀를 달래 주는 {고막 연인}. 당신의 {고막 연인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뉴스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8>

랜섬웨어(ransomware) 고+영 「명」 사용자가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양이가 방해하는 일을 두고 악성 파일인 ‘랜섬웨어’에 빗대어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랜섬웨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데일리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8>

놀-존심(놀尊心) 고+한 [놀 : 존심] 「명」 노는 방식에 대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놀다’와 ‘자존심’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이날 행사는 ‘{놀존심} 있다면 모여...OO 월드’라는 콘셉트로 열렸다. 《뉴스1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8>

뒷-벅지 고+고 [뒤 : 백찌/뒤편 : 백찌] 「명」 허벅지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 『{뒷벅지가} 짧아지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오며 허리의 정상적인 각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울경제 2017년 4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8>

리커버 마케팅(recover marketing) 영_영 「구」 이미 출간된 책의 표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 다시 출간하는 마케팅 전략. 『최근 출판계에서는 새로운 일러스트나 디자인으로 표지를 재단장하는 {리커버 마케팅이} 활발하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8>

뷰니멀-족(<영>▼view←animal族) 영+한 「명」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뷰니멀족은} 애완동물에 열광하면서도 분양 대신 관찰을 택하는 이유로 돈과 시간을 쫓는다. 《서울경제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8>

세젤무(世젤무) 한+고+고 [세:젤무] 「명」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OOO이 “어머님을 {세젤무라고} 한다.”라고 말하자 OOO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며 답을 말했다. 《티브이리포트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8>

욕실 세럼(浴室<영>serum) 한_영 「구」 욕실에서 세안한 직후에, 물기를 닦지 않고 피부에 바로 바르는 액체 타입의 화장품.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특히, ‘OO 세럼’은 {욕실 세럼으로도} 불리며 세안 직후 욕실에서 즉각적인 보습을 공급하여 피부에 유수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스포츠조선 2017년 6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8>

취업난 포비아(就業亂<영>phobia) 한_영 「구」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반영하여 생겨난 말이다. 【이렇게 취업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공채 시즌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반영한 ‘{취업난 포비아}’란 말도 등장했다. 《부산일보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8>

팩력배(<영>←fact力輩) 영+한 「명」 사실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는 사람을 폭력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OOO의 또 다른 별명은 팩격기, {팩력배이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8>

프로 혼밥러(<영>←professional혼밥<영>←er) 영_(고+영) 「구」 혼자 밥을 잘 먹는 사람을 이르는 말.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프로 혼밥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혼밥 고깃집을 기자가 직접 가 봤다. 《머니투데이 2017년 3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8>

휘게-스럽다(<텐>hygge스럽다) 텐+고 「형」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즐거움이나, 편안함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낄 만하다.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휘게(hygge)’와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다’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달달한 케이크와 차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휘게스러운} 공간이 된다. 《울산매일신문 2017년 3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8>

꽃샘 대선(꽃샘大選) 고_한 「구」 꽃샘추위가 있는 시기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2016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다음 대선의 날짜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다. ¶현행 헌법대로…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월 하순 꽃샘추위 속에서 치르는 ‘{꽃샘 대선}’이 된다. 《부산일보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7>

꿀-중기(꿀中企) 고+한 [꿀중기] 「명」 경영 상태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취준생들은 소망하는 중소기업을 ‘{꿀중기}’라고 부른다. 《동아일보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7>

뇌피셜(腦<영>←official) 한+영 「명」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나 주장. ¶또 다른 누리꾼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단독’은 뭐야…{뇌피셜} 좀 그만 보고 싶다.”라며 추측성 보도를 일갈했다. 《뉴스타운 2016년 5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7>

뉴클리어 풋볼(<영>nuclear football) 영_영 「구」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의 발사를 명령할 때 사용하는 가방을 이르는 말. 약 20킬로그램가량의 검은색 가죽으로 된 서류 가방 형태를 하고 있다. ‘핵 가방’이라고도 하며, 핵무기 사용에 쓰이는 문서와 보안 카드 등이 들어 있다. 미국의 이전 대통령 시절 핵전쟁을 계획하며 만든 작전명인, 미식축구를 의미하는 ‘풋볼’ 용어와 관련이 있어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미국에서는 ‘{뉴클리어 풋볼’이라} 불리는 핵 가
방 이양은 군 통수권을 다음 대통령에게 넘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다.
《서울신문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7>

명작(名▽作) 한 [명작] [명작만[명장만]] 「명」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서 ‘명
작(名作)’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 ‘명작’과 글자 모양을 비슷하게 변형한 것이
다. 『‘명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쓰이는 급식체를 사용해 만든
‘{명작’이라는} 단어를 OO에 검색한 결과를 두고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드러
냈다. 《조선일보 2017년 11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7>

복불 소설(複불小說) (한+고)_한 「구」 작가가 꾸며 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특
정한 이야기의 내용이나 형식을 복사하고 붙여서 만든 소설. 『그는 이 소설
을 지칭하기 위해 ‘{복불 소설’이란} 말을 창조했고, 소설 내내 단 한 문장도
새롭게 쓰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
년 빈도: 7>

분산형^원장(分散型元帳) 한^한 『경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기기
에 거래 내역을 기록·계산·정리하는 장부. 『{분산형 원장’이라} 할 수 있
는 블록 체인은 거래 정보를 중앙의 중개 기관이 관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거래 주체가 거래 정보를 동시에 기록하고 보유하도록 하는 소위 ‘신뢰
기술’로 미래 지불 수단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 2016년 12
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7>

신문해 계층(新文解階層) 한_한 「구」 문해 교육을 새로 받을 필요가 있는 계
층. 한국 사회에 새롭게 나타나고 언어를 통한 사회 적응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른바
{신문해 계층으로} 불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해 교실이 문을 열었다.
《강원일보 2017년 3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7>

연차 푸어(年次<영>poor) 한_영 「구」 해마다 차례대로 정해진 휴가를 마음대
로 쓸 수 없는 사람.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그들은 자신을 ‘연차 빈곤

자’, ‘{연차 푸어’라고 부른다. 《한겨레21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7>

인구 절벽 원년(人口絶壁元年) 한_한_한 「구」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고 고령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 2017년을 인구 절벽 원년으로 본다. 『금년은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원년이다}. 《경향신문 2017년 7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7>

책맥-족(册麥族) 한+한 [챙맥쭉] [책맥족만[챙맥쭉만]] 「명」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책맥족’은} 특히 여름밤이 ‘책맥’하기 딱 좋다고 입을 모은다. 직장인 OOO 씨는 “요즘처럼 더운 밤은 잠들기 쉽지 않는데 샤워 후에 선풍기를 틀어 놓고 책을 읽으며 맥주 한 잔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7>

초대형 폭탄주(超大型爆彈酒) 한_한 「구」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술을 섞어 만든 것. 피로를 회복하거나 잠을 깨우기 위하여 마신다. 『{초대형 폭탄주’가} 심혈관과 뇌 등 인체 건강에 유해하고 마약 등 약물 중독으로 빠지기 쉽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7>

층견 소음(層犬騒音) 한_한 「구」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윗집이나 아랫집에 들리는 애완견의 소음.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 소음을 뜻하는 ‘층간 소음’과 개를 뜻하는 한자어 ‘견(犬)’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시민분들 가운데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층견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군요. 《엠비시뉴스 2017년 7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7>

카지노 미아(<이>casino迷兒) 이_한 「구」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카지노 주변에 체류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카지노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카지노 미아들을}

OOO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스비에스 뉴스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7>

칼박(칼<영>←box) 고+영 「명」 개봉 후에도 구겨지거나 흠집 없이 원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자. 『실제…박스가 흠집이나 구겨짐이 전혀 없이 칼날 같은 모서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칼박}’ 등 포장 관련 신조어도 있다. 《매일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7>

탈-팩트(脫<영>fact) 한+영 「명」 사실에서 벗어난다는 뜻으로,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르는 말. 『이 ‘{탈팩트}’라는 신조어에는 무엇보다 ‘팩트스러운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하는 후기 자본주의적인 일상의 한 단면이 담겨 있다. 《미디어오늘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7>

트럼프 페이드(Trump<영>fade) 영_영 「구」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경기를 좋게 할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격히 사라지는 현상. 『OO는 “…이제 ‘{트럼프 페이드}’가 시작됐다.”라며 OOO 행정부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가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7>

트페미(←twitter<영>←feminist) 영+영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는 덕질을 위한 정보수집의 매체이자 또한 ‘{트페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페미니즘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공간이다. 《일다 2017년 7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7>

팩트리엇 미사일(<영>▼←fact patriot missile) 영_영 「구」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행위. 사실을 뜻하는 ‘팩트(fact)’와 미사일의 한 종류인 ‘패트리엇 미사일(patriot missile)’의 비규범 형태인 ‘팩트리엇 미사일’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요즘 온라인에선 팩트로 무장한 ‘{팩트리엇 미사일}’이 이곳저곳

날아다닌다. 《위키투리 2017년 6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7>

해외 차례족(海外차禮族) 한_ (고+한) 「구」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말이다. 『아예 가족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명 ‘{해외 차례족}’이}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의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매일경제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7>

향테리어(香<영><←interior) 한+영 「명」 꽃, 향,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로 실내를 장식하는 일. 또는 실내 장식용품. 『춘분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겨우내 배었던 냄새를 없애고 싱그러운 향으로 공간을 채우는 {향테리어가} 새로운 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일보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7>

호모 스펙타쿠스(<라>▼homo<영>spectacus) 라_영 「구」 취업에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에 집착하는 취업 준비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은…스펙 쌓기에 목숨을 거는 ‘{호모 스펙타쿠스}’가 되기도 했다. 《동아일보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7>

개너자이저(개<영><←energizer) 고+영 「명」 몹시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소형견 ‘OO’는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개너자이저}입니다. 《한국일보 2017년 5월》 【2016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1>

고빠^법안(고빠法案) 고^한 『법률』 미국에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미 정치 전문 매체인 OO는 28일 OO당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하원이…새로운 대형 규제에 대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고빠 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

굉-꼰(宏 訥) 한+고 [굉꼰/굉訥] 「명」 ‘굉장한 꼰대’를 줄여 이르는 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것만이 옳다고 지나치게 주장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는 꼰대라는 단어도 세분화되면서 {굉꼰}, 젊꼰 등의 신조어도 생겨났다. 《스포츠경향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그루답터-족(<영>▼←grooming early adopter族) 영+한 「명」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패션이나 미용과 관련된 신제품을 구매하여 외모를 가꾸는 남자. 또는 그런 무리. 자신의 패션이나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일컫는 ‘그루밍족(grooming族)’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루밍족’을 넘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비교하거나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는 ‘{그루답터족}까지’ 생겼다. 《중앙일보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6>

꿀잼-각(꿀 齣角) 고+한 [꿀잼각] [꿀잼각만[꿀잼강만]] 「명」 꿀처럼 달콤한 재미가 기대되는 상황이나 일. 『잡학 박사들의 첫 회동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출연진들의 조합이 {꿀잼각이다}. 다른 말 필요 없고 빨리 방송 날이 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으로 극찬했다. 《부산일보 2017년 5월》 【2016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2>

당떨시(糖 떨時) 한+고+한 [당떨씨] 「명」 ‘당이 떨어지는 시간’을 줄여 이르는 말. 주로 오후에 가지는 간식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소포장 파이 제품들은 간편하게 아침을 대신하거나, 속칭 ‘{당떨시}라 불리는 오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2~30대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코노믹리뷰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도른-미(도른美) 고+한 [도른미] 「명」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웃음을 주는 사람이 풍기는 매력. 정신에 이상이 생김을 속되게 이르는 동사 ‘돌다’의 비규범 활용형인 ‘돌은’을 발음대로 쓴 ‘도른’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美)’를 결

합하여 만든 말이다. 『OO의 익살스런 장난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섹시미, 청순미는 가라. {도른미의} 최강자 OO이 온다.”, “아 진짜 귀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 2017년 7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6>

돈세탁-망(돈洗濯網) (고+한)+한 [돈:세탁망] 「명」 돈세탁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돈세탁의 과정을 돕는 일에 관련된 조직이나 체계. 『국제적인 불법 {돈세탁망인} 이른바 ‘국제 빨래방’에 2010~2014년 사이에만 OO로부터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의 수상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신문 OO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6>

드론 성지(<영>drone聖地) 영_한 「구」 무인 비행 물체인 ‘드론’을 날리기 좋은 장소. 항공, 안보상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넓은 공원, 바닷가, 운동장과 같은 곳이 이에 해당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른바 ‘{드론 성지}’로 불리는 OO군의 한 유원지 근처에는 주말마다 15~20명의 동호회 회원이 모여 드론을 날린다. 《매일신문 2015년 12월》 【2015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2>

라테 아빠(<이>latte아빠) 이_고 「구」 여유로운 모습으로 육아를 하는 아빠를 이르는 말. 한 손에는 카페라테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미는 모습을 두고 생긴 말이다. 『엄마와 아빠의 육아에 대한 차이는 소셜 미디어에 등장한 신조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아빠는 ‘{라테 아빠}’, ‘프렌디’, ‘플래디’ 등이 언급됐다. 《경향신문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6>

럭키 프로모션(<영>lucky promotion) 영_영 「구」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할인을 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 늘도록 유도하는 일. 『유아동 대표 1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OO의 이번 OO에서는 행사 당일 7%, 7천 원 할인 쿠폰 발급 등 숫자 7과 관련한 다양한 {럭키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스포츠조선 2016년 7월》 【2015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1>

만똥-남(漫騷男) (한+고)+한 [만 : 똥람] 「명」 ‘만화를 똥고 나온 듯한 남자’라는 뜻으로,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못지않게 외모가 뛰어난 남자를 이르는 말. ¶OOO는 3일 자신의 OO에 “...OOO와 함께 지난 화 진정한 {만똥남이} 된 우리 OOO를 지켜봐 주세요. 오늘 밤 10시 ‘OO’ 5화 본방 사수!”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스타뉴스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매너 푸드(<영>▼manner food) 영_영 「구」 주로 도서관 등 조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 ¶보관과 섭취가 쉬운 과일 제품, 쏟을 걱정이 없는 에너지 젤리 등 도서관에서 즐기기 좋은 ‘{매너 푸드}’가 인기다. 《머니에스 2017년 5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6>

배려-식(配慮食) 한+한 [배 : 려식] [배려식만[배 : 려싱만]] 「명」 음식물 섭취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양분이나 식감에 마음을 써서 만든 음식. ¶고령식 공급 사업은 ‘OO’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배려식} 판매하는 것이 골자로, OO대 식품 영양학과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6>

서브-병(<영>sub病) 영+한 「명」 영화나 드라마 따위에서 조연 배우를 몹시 좋아하게 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 ¶방대한 주연 배우들 분량 사이에서 짝 내는 분량의 조연 배우들을 찾는, 걸리면 고치지도 못한다는 ‘{서브병}’을 유발하는 배우들 중 커플들을 모아 봤다. 《시선뉴스 2016년 9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스마트포니스타(<영>smartphonista) 영 「명」 의류의 검색과 구매의 전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스마트폰(smartphone)’과 ‘패셔니스타(fashionista)’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스마트포니스타} 중 68퍼센트

가 패션 상품 검색에서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했다. 《전자신문 2016년 12월》 【←smart phone+fashionista】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

쓸개-혹 고+고 [쓸개혹] [쓸개혹만[쓸개홍만]] 「명」 『의학』 쓸개의 점막에서 증식하여 혹과 같이 돌출되어 있는 용어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담낭 용종’이라고도 한다. 【{쓸개혹으로도} 불리는 담낭 용종은 담석을 제외한 담낭 내강으로 돌출되는 모든 형태의 종괴를 의미한다. 《동아일보 2015년 11월》 【2015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1>

애그테크(<영>agtech) 영 「명」 농업 기술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드론 등의 아이티(IT) 기술을 접목한 기술. 농업을 뜻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애그테크는} 식량 위기 지역인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트렌드가 됐다. 《뉴스핌 2016년 12월》 【←agriculture+technology】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오피스템(<영>▼office←item) 영+영 「명」 예쁘거나 독특한 디자인의 사무용품.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물건’을 뜻하는 ‘아이템(item)’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회사 안 자기 자리를 열정적으로 꾸미는 직장인이 늘면서 데스크테리어는 물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사무용품을 뜻하는 ‘{오피스템}’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

위장 독감(偽裝毒感) 한_한 「구」 위장이 아픈 증세를 보이는 독감. 【리우 올림픽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OOO는 대회가 끝난 뒤 {위장 독감으로} 인해진 달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마니아리포트 2016년 9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2>

키갈리^협약(Kigali協約) 영^한 『정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수소 불화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2016년 10월 15일 197개국이 르완다의 수도인 키

갈리에서 맺은 협약. 『이번 ‘{키갈리 협약’은} 에어컨디셔너와 냉장고의 냉매제로 많이 사용되는 에이치에프시(HFC)의 사용 및 배출에 대해서만 단계적 금지를 규정해 놓은 점이 특징이다. 《뉴시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6>

편의점 카페족(便宜店<프>café族) 한_(프+한) 「구」 편의점에서 커피를 즐겨 마시거나,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즐겨 이용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편의점 카페족’이} 늘면서 도시락에 이어 커피가 편의점 효자 상품으로 뜨고 있다. 《국민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6>

해시-크래싱(<영>hash crashing) 영+영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평범한 해시태그를 달아 의도적으로 유해한 게시물에 접근하도록 하는 일.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O 총괄은 “문제가 되는 특정 단어는 즉시 차단하거나 수를 줄인다.”라며 “정상적인 해시태그라도 내용이 문제되는 ‘{해시크래싱’은} 신고 전에 미리 삭제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갓-땡작(<영>god名▽作) 영+한 「명」 명작 중에서도 뛰어난 명작. ‘신’을 의미하는 ‘갓(god)’과 ‘명작’과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진 ‘땡작’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모양으로 재미를 주다니, 역시 한글은 {갓땡작이} 분명하다. 《채널 예스 2017년 8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

개용-품절(개龍品切) (고+한)+한 [개용품절] 「명」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천에서 용 난다’를 줄인 ‘개용’과 ‘품절’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또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의미의 {개용품절}…이라는 표현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세계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5>

국민 아이스바(國民▼ice bar) 한_영 「구」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막대기에

꽃혀 있는 형태의 긴 얼음과자를 이르는 말. 『OO는 1992년 출시부터 지난해 까지 약 29억 개가 팔린 ‘{국민 아이스바}’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내가티브(내가<영><negative) 고+영 「명」 ‘내가 하는 네거티브’라는 뜻으로,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선거 운동 방식을 이르는 말. 『‘자거티브’는 자신을 가리키는 한자 ‘자’라는 글자와 상대 후보의 약점과 단점을 부각하는 선거 전략인 ‘네거티브’가 합쳐진 말로, …이와 같은 뜻의 유사어로 ‘{내가티브}’라는} 신조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동원-동근(同源同根) 한+한 [동원동근] 「명」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같고 그 자라난 뿌리가 같다는 말로, 어떤 집단이나 단체의 본질이나 본바탕이 같음을 이르는 말. 『우선…우리가 이른바 중도 보수를 지향했던 같은 뿌리이니까, {동원동근이니까}, 국민 앞에 대선 후보를 한 분으로 모시자. 《와이티엔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매화 대선(梅花大選) 한_한 「구」 매화가 피는 시기인 3월 초순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19대 대선은 장미 대선이지만 앞으로는 3월 초순에 치러지게 되니 {매화 대선이} 될 것이다. 《노컷뉴스 2017년 5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5>

멀티 자키(<영>▼multi jockey) 영_영 「구」 주로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상품에 대한 기획과 판매, 유통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각 공구 상품을 홍보하는 사람은 {멀티 자키로} 불리는 프리랜서들로 머천다이어저와 쇼 호스트, 콘텐츠 기획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통 전문 방송인이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비정규직 박물관(非正規職博物館) 한_한 「구」 방송 관련 노동 현장에서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현상을 ‘박물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이들은 또 “파견, 도급, 용역, 프리랜서 등 비정

규칙이 넘쳐나 ‘{비정규직 박물관’으로} 불리는 방송 콘텐츠 노동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요서울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선-남방계(先南方系) 한+한 [선남방계/선남방계] 「명」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앞선 시기에 남쪽 지방에 분포하여 있는 사람이나 동물, 식물의 계통. 『예를 들어 한국인이 {선남방계와} 후남방계가 섞인 것은 이번 계놈 데이터 정도로 정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

성장캐(成長<영><-character) 한+영 「명」 드라마나 영화 따위에서 극이 전개되는 중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캐릭터. 『그는 “...OOO을 두고 완성형 보컬이라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지만 내가 아는 한 OOO은 {성장캐에} 더 가깝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7년 8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

술싫모 고+고+고 [술실모] 「명」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줄여 이르는 말. 『‘떼어 내기 힘든 술의 유혹’을 단적으로 보여 준 이 사건과 정반대로, ‘{술싫모’는} 가까이 하기 정말 싫은 술에 대한 생각을 짙막한 글이나 사진에 담아 올린다. <국민일보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5>

앞-벅지 고+고 [압뻥찌] 「명」 허벅지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말. 『‘{앞벅지’로} 불리는...앞 허벅지에 살이 찌면 다리가 더 뚱뚱해 보이기 마련이다. <스포츠경향 2016년 9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5>

우주 발레(宇宙<프>valet) 한_프 「구」 우주 공간에서 1차적으로 도킹한 인공 위성이나 우주선을 2차적으로 다시 결합하는 작업을 이르는 말. 『OO 1호는 OO 2호와...총 세 차례 도킹을 시도하는데 특히 OO 1호와 OO 2호가 분리된 뒤 각각 180도 선회해 다시 도킹하는 2차 도킹은 ‘{우주 발레’로} 불리는 고난도 기술이다. <노컷뉴스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도: 5>

인터넷 고양이 이론(<영>internet고양이理論) 영_고_한 「구」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개보다 고양이가 많이 등장하는 현상을 분석한 이론.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고양이’와 관련된 표현이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찾아 보았다는 외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아이티(IT) 융합 박람회에서는 ‘{인터넷 고양이 이론}이라는’ 이색적인 컨퍼런스가 열렸다. 《주간조선 2017년 5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5>

자기티브(自<영><-negative) 한+영 「명」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는 일. 『지난 23일 중앙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티브이(TV) 토론회 이후 등장한 신조어 ‘{자기티브}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제물템(祭物<영><-item) 한+영 「명」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자신이 소중한게 여기는 물건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신 희생된 물건.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미리 만화책·장난감·게임기 등을 마련해 ‘바치는’ 길도 있다. 일명 ‘{제물템}’ 전략이다. 《연합뉴스 2016년 9월》 【2016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 / 2016년 빈도: 1>

직시급-제(直時給制) 한+한 [직씨급제] 「명」 퇴직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 수당을 고정적으로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물량 팀 노동자들은 ‘일당제’나 ‘{직시급제}와’ 같은 포괄 임금제로 되어 있어 주휴일도, 가산 수당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5>

청세-권(靑勢圈) 한+한 [청세권] 「명」 숲, 공원 따위의 녹지 공간의 주변에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 『이처럼 분양 시장에서 주변 자연환경이 집값 형성

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청세권에} 새로 공급되는 단지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데일리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5>

펫족(<영>←family pet族) 영+한 「펫」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그러나 {펫족이}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스포츠포스트 2017년 7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5>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Frankenstein<영>virus) 영^영 『생명』 생물이 아니지만 생물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무생물의 바이러스가 생물과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된 것이,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생물이 아닌 것에 생명을 불어 넣은 것과 비슷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막을 갖고 있는 ‘진핵생물’과 세포막이 없는 ‘원핵생물’ 그리고 ‘바이러스’로 나뉜다. 과학계에서는 이를 ‘생명의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는} 이와 별도로 제4의 생명일 가능성이 높다. 《매일경제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호모 고시오패스(<라>▼homo考試<영>←sociopath) 라_(한+영) 「구」 오랜 고시 준비로 인해 주변 일에 몹시 예민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석 달 전 만난 그는 {호모 고시오패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동아일보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호모 파덴스(<라>▼homo fadens) 라_라 「구」 인간을 보는 관점 가운데, 인간의 본질이 놀면서 일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견해. 일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와 유희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그는 “놀면서 일하는 인간, 이른바 {호모 파덴스}의} 시대가 열리면서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라고…강조했다. 《중앙일보 2017년 5월》 【←homo faber+homo ludens】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5>

혼모노-족(<일>honmono[本物]族) 일+한 「명」 한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집착하여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OO의 상영 후기를 보면, 이른바 {혼모노족의} 매너 없는 행동 목격담이 많다. 《한겨레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5>

가싶 남녀(가싶男女) 고_한 「구」 ‘가지고 싶은 남자와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가지고 싶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남녀를 이르는 말이다. 『일도 사랑도 모두 완벽한 {가싶 남녀로} 최강 호흡을 선보인 OO ‘OO’의 OOO·OOO…커플이 그 주인공이다. 《스포츠동아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계약-빵(契約빵) 한+고 [계: 약빵/계: 약빵] 「명」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미끼로 소비자를 협박하거나,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매물로 유인한 손님을 몇 시간씩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정상가를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한 뒤, 욕설과 함께 험악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법으로 중고 차량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계약빵}’이라는 수법을 썼다. 《인천일보 2017년 5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

공알못01(公알못) 한+고+고 [공알못] [공알못만[공알못만]] 「명」 ‘공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연말이 되면 ‘{공알못}도’ 한 번쯤 떠올리는 발레가 있다. 《문화일보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교순대-원(交巡隊員) 한+한 [교순대원] 「명」 ‘교통 순찰대원’을 줄여 이르는 말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주로 도로 교통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조직된 경찰대의 대원. 『하지만 정작 {교순대원들은} 자신들의 모터사이클을 OO로 부른다네요. 《서울경제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

네거티브 낙수 효과(<영>negative落水效果) 영^한^한 『경제』 대기업의 부실화가 계속되면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 역시 부실화되어 가계가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하며, 경제 성장 역시 둔화하는 효과. ‘낙수 효과’에 상대되는 말이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대기업 계열사의 부실화가 가속되면 이른바 {네거티브 낙수 효과} 현실화될 위험도 높아진다. <중앙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

노르웨이 패러독스(Norway<영>paradox) 영^영 『경제』 북해 유전을 통해 얻은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면서도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석유와 가스 산업을 약화하려는 노르웨이 정부의 모순을 이르는 말. 『석유로 석유를 퇴출시키는 격이다. 이를 ‘{노르웨이 패러독스’라} 부른다. <한겨레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노 알콜러(<영>no alcoholler) 영_영 「구」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대학가에서는 ‘{노 알콜러’라는} 신조어를 통해 술 먹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합 동아리도 만들어졌다. <강원일보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4>

대드버타이징(<영>dadvertising) 영 「명」 아버지의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여 효과를 내는 일. 『실제로 최근 아빠를 전면에 내세운 {대드버타이징} 광고에서 요즘 아빠들의 역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 【←dad+advertising】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4 / 2016년 빈도: 1>

로테크 테러(<영>low-tech terror) 영_영 「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수법으로 저지르는 테러. 예를 들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으로 대규모 인파가 있는 곳에 돌진하여 사상자를 내는 방식의 폭력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폭탄이 아닌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로테크 테러’가} 잇따르면서 테러 공포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케이비에스뉴스 2017년 8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4>

모바일 소파족(<영>mobile sofa族) 영_한 「구」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소파 쇼핑족. 『소셜 커머스 업계 등에서도 {모바일 소파족}, 모바일 침대족이란 신조어로 불리는 쇼핑객을 잡기 위한 각축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화일보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모바일 침대족(<영>mobile寢臺族) 영_한 「구」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OO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소파족’, ‘{모바일 침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30대 여성 직장인들이 저녁 8시 이후 소파나 침대 등에서 모바일 쇼핑을 즐기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라며 “이에 따라 피시(PC) 대신 모바일 쇼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밈-족(<영>meme族) 영+한 「명」 주로 10대나 20대의 어린 소비자로, 물품을 구입할 때 주변 환경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양한 브랜드를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경제력을 갖춘 30~40대 고객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던 유통업계가 젊은 고객층인 ‘{밈족}’ 유치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서울경제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4>

별나라 대출(별나라貸出) 고_한 「구」 매우 낮은 금리로 받는 대출. 특징인이 기업으로부터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두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별나라처럼 멀리 있는 혜택의 대출이라고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OOO 원내 대변인은 또한 “이에 더해 OOO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황제 전세’, ‘{별나라 대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라면서 “더불어 ‘모친의 빈곤층 의료비 수급’까지 일반인들의 건강한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힘든 하자가 있다.”라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비혼-층(非婚層) 한+한 [비 : 혼층] 「명」 사회 구성원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

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특위는 아울러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1인 가구와 미혼, {비혼층을}…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선인-용인(選人用人) 한+한 [서:니용인] 「명」 인재를 뽑아 씀. 중국의 당 전체 회의인 육중전회(六中全會)에서 나온 말이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군중노선, 민주 집중제, {선인용인} 등을 이번 육중전회(六中全會)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단어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

썰동(說▽動) 한+한 [썰동] 「명」 음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만든 동영상. 이야기나 의견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썰’과 ‘동영상’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경찰은 음란한 {썰동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7년 7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4>

영란 맛집(英蘭맛집) 한_고 「구」 식사 비용이 김영란법에서 고시한 허용 범위를 넘지 않는 맛집. 『영란 페이·{영란 맛집}…앱 시장도 김영란법 신폭속도. <매일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영란 페이(英蘭<영>pay) 한_영 「구」 김영란법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일을 더치페이에 빗대어 이르는 말. 『{영란 페이}’, ‘영란 맛집 가이드’와 같은 별칭이 붙은 앱들이 회자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매일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온라인 리플리(<영>▼online←Ripley syndrome) 영_영 「구」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은 자신마저 속이고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 과도한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은 자신마저 속이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유형의 인격 장애를 뜻하는 ‘리플리 증후군’이 현실에서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규범표기는 미확정이다. 『온라인에서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 {온라인 리플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엠비시뉴스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4>

웹툰컬(<영>▼webtoon←musical) 영+영 「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뮤지컬. ¶순수 국내산 {웹툰컬의} 탄생은 지난해 초연한 OO 예술단의 'OO'부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4>

유지어터(維持<영>←dieter) 한+영 「명」 현재의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중이 더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 ¶그는 지난 3월 긍정적인 사고로 음식을 무한 흡입하는 하루를 공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지어터로} 다이어트 노선을 변경해 더욱 뺄 터지는 다이어트 방식을 보여 줄 것이라는 제작진의 전언이다. <헤럴드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4>

은턴(銀<영>←intern) 한+영 「명」 인턴 활동에 대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인턴. ¶그 아래로 '{은턴'과} 절대다수의 '흙턴'이 있는데, '{은턴'은} 외국계 기업이나 공기업 인턴 등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인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엠비시뉴스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4>

재-재입덕(再再入덕) 한+(한+한+고) [재: 재입덕] [재재입덕만[재: 재입덕만]] 「명」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다 포기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또다시 좋아하게 됨을 이르는 말. ¶입덕, 재입덕, {재재입덕을} 부르는 위험한 남자 OOO을 만날 수 있는 'OO'은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스포츠조선 2016년 10월> 【덕:<일>←otaku[御宅]]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

지방러(地方<영>←er) 한+영 「명」 지방에서 사는 사람. 또는 지방 출신의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들은 스스로를 '{지방러'라} 표현하면서 수도권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가 영양가가 있는 ‘진짜’냐?” 등을 문의했다. <매일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캐럴 노가바(<영>carol노歌바) 영_(고+한+고) 「구」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성탄 축하곡인 캐럴의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일. 『이날 촛불 문화제의 압권은 시민들의 ‘{캐럴 노가바}가} 진행된 OO 콘서트였다. 《노컷뉴스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캠프니커(<영>▼←camping picnicker) 영+영 「명」 멀리 떠나지 않고 소풍을 하듯이 도시 인근에서 가볍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캠프닉을 즐기는 사람들, 이른바 ‘{캠프니커}들은} 무거워도 많은 장비를 챙길 수 있는 오토캠핑과 다르게 캠핑을 떠날 때 소풍을 가는 것처럼 가벼운 짐만 챙긴다. 《동아일보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4>

클론^패션(<영>clone fashion) 영^영 『복식』 복제된 듯이 유행하는 패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복제한 물건을 뜻하는 ‘클론(clone)’과 ‘패션(fashion)’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클론 패션}의} 대표적 예시인 ‘알약 룩’과 ‘모나미 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선일보 2017년 6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4>

탈-억제대(脫抑制帶) 한+한 [타력제대] 「명」 환자를 억제할 때 사용하는 끈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OO 요양 병원은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 주기 위해 ‘냄새 제로’, ‘낙상 제로’, ‘욕창 제로’, ‘와상 제로’, ‘탈기저귀’, ‘{탈억제대}의} 4무(無) 2탈(脫)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4 / 2016년 빈도: 1>

할류 열풍(韓流烈風) (고+한)_한 「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고가의 유아용품을 구매해 소비 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현상.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해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열렬히 좋아하고 선망하는 현상을 뜻하는 ‘한류 열풍’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할류 열풍을} 일으키는 할빠, 할마들은 언제나 멋지다. 《스포츠경향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허파진(허 파<영>←jeans) 고+영 「명」 ‘허벅지가 파인 진’을 줄여 이르는 말. 허벅지 부분에 구멍을 낸 청바지를 말한다. 『찢청을 입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자가 평일 ‘{허파진}’을 입고 출근하는 실험을 해 봤다. 《매일경제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4>

화성 얼음집(火星얼음집) 한_고 「구」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화성의 집. 화성의 기후에 맞게 설계되어 화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집이다. 『{화성 얼음집}의』 외벽은 두꺼운 얼음으로 설계됐다. 《에듀동아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4>

휘게 크로그(<텐>hygge krogh) 텐_텐 「구」 편안함이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집 안의 작은 공간. 주로 주방이나 거실의 구석에 설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공간을 뜻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예컨대 텐마크에서는 주방이나 거실의 아늑한 구석 공간을 ‘{휘게 크로그}’,…라고 말한다. 《조선비즈 2016년 12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

개헌론-파(改憲論派) 한+한 [개 : 헌논파] 「명」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제3 지대’, ‘비패권 지대’, ‘{개헌론파}’로 분류돼 온 세 사람은 15일 OO의 한 식당에서 만나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타임즈 2017년 2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경준-생(警準生) 한+한 [경 : 준생] 「명」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줄여 이르는 말. 『특히 경찰청이 2023년까지 경찰관 1만 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힘에 따라 ‘{경준생}들과’ 관련 학원들이 ‘공채 특수’ 기대감에 들떴다. 《법률저널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3>

골드 삼촌(<영>gold三寸) 영_한 「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조카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삼촌을 이르는 말. 『최근 30대 이상의

‘만혼’ 및 ‘비혼’ 현상이 늘어나면서 소득은 안정된 반면 부양가족이 없어 조카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는 이른바 ‘{골드 삼촌}·이모’로 불리는 미혼의 삼촌, 이모들의 아동 매장 방문이 늘면서 아동 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위클리오늘 2017년 2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공알못02(公알못) 한+고+고 [공알못] [공알못만[공알못만]] 「명」 ‘공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또, 누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공알못’이라고} 했던가. 《더팩트 2017년 5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3>

꽃-미남녀(꽃美男女) 고+한 [꽃미남녀] 「명」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꽃미남미녀. 『우리는 “OO 패밀리예요!”……{꽃미남녀} 절친 인증 완료. 《스포츠조선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닉슨 해법(Nixon解法) 영_한 「구」 탄핵 이전에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이 스스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르는 말.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탄핵 위기에 몰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미국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도출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여야와 청와대가 O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진 하야를 합의하자는 것으로, 미국 OOO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의 ‘{닉슨 해법}과’ 유사한 정치적 해법이다. 《중부일보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3>

도서관 미어캣(圖書館<영>meerkat) 한_영 「구」 도서관이나 독서실 따위에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미어캣처럼 목을 빼고 쳐다보며 민감하게 구는 사람을 조롱하는 ‘{도서관 미어캣’이란} 용어도 있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3>

레이지 신드롬(<영>rage syndrome) 영_영 「구」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갑자기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며 주인을 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증상. ‘돌발성 격노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레이지 신드롬이라고} 하는 돌발성 격노 증후군을 앓는 고양이들은 발작이 일어날 때 공격을 하고, 발작이 가라앉으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한다. <뉴스1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

리브르 아 를리에(<프>livre a relier) 프_프_프 「구」 제본을 하지 않은 상태의 서적. 텍스트가 인쇄된 종이가 표지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형태로, 독자가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책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출판사 OO는 {리브르 아 를리에} 형식에서 나온 OO를 내놓았다. <문화일보 2017년 1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마라마마(<중>malamama[麻辣媽媽]) 중 「명」 중국에서, 적극적이고 개성이 강한 이삼십 대 엄마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란 인터넷 신조어 {마라마마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맵고 얼얼한 엄마’라는 뜻이다. <매일경제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

마약-크림(麻藥<영>cream) 한+영 「명」 마취 작용이 있어 습관적으로 피부에 바르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크림. ¶과다 사용하면 호흡·심장이 멈춰 사망할 수 있어...{마약크림으로} 불리는 마약 진통제의 오남용·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

마운틴 포비아(<영>▼mountain phobia) 영_영 「구」 등산로에서 연이어 일어난 강력 범죄로 인해 등산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증세.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마운틴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산에서의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명정세 고+고+고 [명 : 정세] 「명」 보기에 하는 짓이 알미운 데가 있어 명치를 정말 세게 때려주고 싶은 감정을 줄여 이르는 말. 『각 작품 속 ‘{명정세}’를 부르는 절대 악역 캐릭터도 흥행 요인 중 하나다. 《마이데일리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병세-권(病勢圈) 한+한 [병 : 세권] 「명」 인근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 병원 따위의 의료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역. 『대형 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병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같은 행정 구역에 속해도 대형 병원이나 종합 병원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몸값이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16년 10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비잔틴^데이터(Byzantine<영>data) 영^영 『정보·통신』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비잔틴 시대에 전투에 나간 장군들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실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통칭 ‘{비잔틴 데이터}’라 부른다. 《서울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비 플러스 프리미엄(<영>b plus premium) 영_영_영 「구」 최고급은 아니지만 기능과 품질이 뛰어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녀 특별한 가치를 더한 제품을 이르는 말. 『OO은 올해의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는 ‘{비 플러스 프리미엄}’에 착안해, 할인에 추가 적립 혜택도 더하면서 나눔 캠페인에까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데일리 2017년 3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

사운드 담요(<영>sound毯요) 영_(한+고) 「구」 파장을 이용하여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제거하는 기기. 소음을 덮어 준다고 하여 ‘담요’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사운드 담요}라 불리는 이 기기는 파장을 일으켜 주변의 소음을 제거합니다. 《케이비에스뉴스 2017년 2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샤이 보터(<영>shy voter) 영_영 「구」 선거 따위의 투표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호하는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유권자를 이르는 말.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 투표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선거 기간 동안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O을 지지하는 ‘{샤이 보터}’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다. 《한겨레21 2017년 5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샤이 중도(<영>shy中道) 영_한 「구」 여론 조사 따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로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를 이르는 말. 『OOO OO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는…‘{샤이 중도}’로 불리는 이른바 중도 보수층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일보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세권 프리미엄(勢圈<영>premium) 한_영 「구」 집 주변의 환경적 요소가 집값에 영향을 미쳐 거주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세권 프리미엄}’이 강세다. 《세계일보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세젤섹(世젤<영>←sexy) 한+고+영 「명」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OOO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세젤섹}’이라고 밝혔다. 《오에스이엔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소파 쇼핑족(<영>sofa shopping族) 영_(영+한) 「구」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모바일 소파족. 『빠르게 늘어나는 심야 ‘{소파 쇼핑족}’. 《조선일보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3>

슬스타그램-족(슬←Instagram族) (한+영)+한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

서 술과 관련된 게시물을 주로 올리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OO에 술이나 안주 사진을 올리는 일명 ‘{술스타그램족}’이 늘면서 디자인이 예쁜 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매일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스마트컬슈머(<영>▼smart←culture consumer) 영+영+영 「명」 인터넷 티브이나 모바일 방송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공연이나 전시 등의 문화생활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향유하는 소비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가정 내 인터넷 티브이나 휴대폰의 모바일 방송을 통해 유명 공연이나 축제, 전시회 등 문화 행사를 알뜰하게 시청하는 20대·30대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정의하자면 스마트한 정보 통신 기술로 알뜰하게 수준 높은 문화를 소비하는 ‘{스마트컬슈머}라고 부를 만하다. 《서울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스좀비(<영>▼←smart phone zombie) 영+영 「명」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스몐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좀비와의} 전쟁’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해 기준으로 90퍼센트를 넘어선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실버 워리어(<영>←silver keyboard warrior) 영_영 「구」 인터넷상에서 풍문이나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헐담이 담긴 글을 거리낌 없이 유포하는 노인을 이르는 말. 『OO 단체의 ‘{실버 워리어}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보 진영을 중북 단체로 매도하는 등의 댓글 달기에 대거 나서고 있다. 《세계일보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썹덕-상(十▽덕相) (한+고)+한 [썹떡쌍] 「명」 매우 귀여운 인상을 이르는 말. 2015년 신어로 아주 귀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썹덕사’의 ‘썹덕’과 얼굴을 의미하는 ‘상(相)’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에스엔에스(SNS)를 하면서 이런 말들이 눈에 띄는 때는 뜻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한 독자가 칭찬의 의미로

해준 ‘{썩덕상’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과격한 욕인 줄 알았지만 꽤 흥미롭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인상이라는... 것이었다. 《매일경제 2016년 8월》 【덕: <일>←otaku[御宅]]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아재 취미(아재趣味) 고_한 「구」 중년층의 남성들이 즐길 법한 취미. 『실제로 그는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15년째 단골인 OO 수산 시장 횃집에 들러 선거 회와 소주를 즐기는 ‘{아재 취미}’를 갖고 있다. 《매일경제 2017년 4월》 【2016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3 / 2016년 빈도: 1>

아재-층(아재層) 고+한 [아재층] 「명」 사회 구성원을 이루는 남성 가운데 중년기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재 파탈 웹 게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OO은...쉬운 조작과 게임 플레이를 통해 일명 ‘{아재층}’의 진입 장벽을 낮쳤으며,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풍부한 스토리라인으로 지속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다. 《인벤 2017년 5월》 【2016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3 / 2016년 빈도: 2>

어금니 칫솔(어금니齒솔) 고_(한+고) 「구」 어금니와 같이 일반 칫솔이 닿기 힘든 부분을 닦아 내기 위해 만든 칫솔. 『이와 이 사이의 세균은 치과 칫솔인 치간 칫솔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입 냄새를 없앨 수 있으며, 이와 잇몸의 틈은 잇몸 칫솔, {어금니 칫솔로} 불리는 미세모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다. 《스포츠조선 2017년 6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3>

역외-법(域外法) 한+한 [여괴법/여괴법] [역외법만[여괴법만/여괴법만]] 「명」 『법률』 국내에서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가 아닌 타국에서 제정한 법률을 이르는 말. 『이 가운데 핵심 업체 21개는...업체 이름조차도 이른바 {역외법에} 의해 보호돼 익명으로 되어 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3>

오케이 인프라(<영>OK←infrastructure) 영_영 「구」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 『{오케이 인프라}’를 갖춘 수익형 부동산 분양도 이어진다. 《이데일리 2016년 7월》

【OK:one kilometer】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

육-퇴(育退) 한+한 [육퇴/육툐] 「명」 ‘육아 퇴근’을 줄여 이르는 말. 주로 아이가 밤잠이 들고 난 뒤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는 일을 퇴근에 비유하여 쓰는 말이다. 『O 씨는…집안일과 육아와 씨름하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를 재우고 이른바 ‘{육퇴}’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편의점을 찾는다. 《서울경제 2017년 8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이름표 행정(이름標行政) (고+한)_한 「구」 정책의 결정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된 사람의 실제 이름과 의견 등을 공개하는 제도. ‘정책 실명제’라고도 한다. 『이른바 ‘{이름표 행정}’으로 구는 정책 과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화해 왔다. 《아시아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이저일고(二低一高) 한 [이 : 저일고] 「명」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현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현상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말이다. 『OOO 대표는 “{이저일고라는} 신조어가 생긴 상황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며 “...시대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인어 머리(人魚머리) 한_고 「구」 긴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넣거나, 긴 머리의 일부나 전체에 푸른색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을 이르는 말. 『최근 유럽에서 광대나 콧등에 붙이는 주근깨 스티커, 파스텔 블루 그라데이션의 {인어 머리} 뷰티 트렌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조선일보 2017년 4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존뚝 고+고 [존뚝] [존뚝만[존뚱만]] 「명」 매우 똑같음. 또는 그런 모양. 『그대로인 얼굴에 푹푹한 느낌이 살아 있는 OOO의 과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지금이랑 ‘{존뚝}이네.”…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2017년 10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쥬마 로코(쥬마<영>←romantic comedy) 고_영 「구」 아쥬마가 주인공이 되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 『O 피디는...』제작 발표회에서 “우리 드라마는 ‘{쥬마 로코}’로 아쥬마 캐릭터가 코믹한 사건을 풀어 가는 내용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스포츠조선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직격 비행체(直擊飛行體) 한_한 「구」 높은 고도에서 다른 미사일을 요격하는 비행체. 표적 미사일에 명중될 시 발생하는 충돌 에너지로 다른 미사일을 요격한다. 『{직격 비행체}』 이미 속도가 마하 7~8 이상으로 가속된 상태로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

직구 정치(直球政治) 한_한 「구」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 지사는...』“소수 정치 집단이 전체를 대표하는 과거의 정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점점 커지는 ‘{직구 정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진보, 보수 양쪽 극단보다는 중간에 있는 사안별, 이슈별로 실현시킬 수 있는 협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테일리안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

취업 인류(就業人類) 한_한 「구」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을 구한 사람들을 ‘인류’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가리키는 ‘독서실 원시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외에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 후 취업을 해야 비로소 인류로 진화한다는 ‘{취업 인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 생겨났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11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3>

취업콥터 맘(就業<영>←helicopter mom) (한+영)_영 「구」 자녀의 취업을 위하여 자녀의 주위에서 모든 것을 챙겨 주고 관여하는 엄마. ‘취업’과 ‘헬리콥터 맘’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취업콥터 맘}』

로} 불리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취업 문제에까지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두고 극심한 취업난이 빚어낸 쓸쓸한 풍속도라는 의견과 과도한 간섭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3>

치매 푸어(癡呆<영>poor) 한_영 「구」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치매에 걸리면...{치매 푸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제민일보 2017년 7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3>

톤망진창(<영>tone망진창) 영+고 「명」 자신의 피부색에 맞지 않는 화장과 의상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모습이 어색해 보이는 상태. 색조를 뜻하는 영어 ‘톤(tone)’과 ‘영망진창’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톤을 맞추지 못한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연예인 사진을 두고 ‘{톤망진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톤-체성(<영>tone體性) 영+한 「명」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조. 개인의 피부색, 머리색 등에 따라 다르며 쿨톤, 웜톤 등이 있다. 색조를 뜻하는 영어 ‘톤(tone)’과 ‘정체성’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OO은 최근 ‘{톤체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자신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으려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윤곽 메이크업 제품인 OO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2017년 3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

투웨이^번^헤어(<영>two-way bun hair) 영^영^영 『복식』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말아 올린 머리 모양.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사진 속에서 OOO의 딸 OOO는 일명 ‘OO 머리’라 불리는 {투웨이 번 헤어}를 하고 깜찍한 미모를 자랑했다.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3>

트럼프시트(<영>Trumpxit) 영 「명」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나프타(NAFTA),

에프티에이(FTA) 따위의 무역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것을 이르는 말. 『OO는 지난 3월 OOO의 보호 무역 기조가 글로벌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트럼프시트} 리스크’라고 명명했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 【←Trump+exit】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트릭 포토 월(<영>trick photo wall) 영_영_영 「구」 인공 암벽 등반 시설물에 자연물의 배경을 입혀 만든 벽. 실제 자연 속의 암벽을 등반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소비자 이벤트로는 실제 자연 속 암벽에 도전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트릭 포토 월} 이벤트와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참여한 사진 공모전 등이 진행되었다. 《국민일보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팔러 캐비닛(<영>parlor cabinet) 영_영 「구」 미국의 공식 내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들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보좌 및 자문을 담당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을 받아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이르는 말인 ‘키친 캐비닛’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손님이 집에 오는 경우 보통 응접실이나 거실에서 손님을 대접하지만, 격의 없는 지인은 부엌까지 드나들 수 있는 미국의 문화에서 유래하였다. 『미국 가정에선 일반 손님은 응접실까지만 들이고, 친한 사이만 주방 출입을 허용한다. 이에 빗대 미국 정가에선 OOO 대통령 재임 이후 공식 내각을 ‘{팔러 캐비닛}’, 비공식 자문 위원을 ‘키친 캐비닛’으로 부른다. 《경향신문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포프리카(浦←Africa) 한+영 「명」 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 매우 더운 포항을 아프리카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포항과 아프리카를 결합한 신조어인 ‘{포프리카}에서’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뎌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오마이뉴스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해군-콩(海軍콩) 한+고 [해 : 군콩] 「명」 미국에서 해군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식량으로 사용되는 흰 강낭콩. 『일명 ‘{해군콩}이라고도 불리는 이 콩은 미해군의 완벽한 영양 보충원으로 쓰여 네이비 빈(navy bean)으로 불리게 되었

으며…저항성 전분이 함유되어 있다. 《디지털타임스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

핵-존잘(核존잘) 한+고 [핵존잘] 「명」 매우 잘생김. 『이를 본 네티즌들은 “OOO, {핵존잘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톱스타뉴스 2017년 5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헌팅 콘텐츠(<영>▼hunting contents) 영_영 「구」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헌팅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 주로 인터넷 방송에서 다루는, 길거리에서 애인을 찾는 방법이나 그 내용을 이른다. 『한편 O 씨와 O 씨는 일명 ‘{헌팅 콘텐츠}’를 처음 인터넷 방송에 도입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3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3 / 2016년 빈도: 1>

홀캉스-족(홀<프><←vacance族) (고+프)+한 「명」 혼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요즘은 홀로 휴가를 만끽하는 {홀캉스족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시아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화이트^프라질리티(<영>white fragility) 영^영 『사회 일반』 인종적 편견 때문에 흑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백인의 방어적 태도. 『OO에 따르면, {화이트 프래질리티는} 사회적 특권을 위협받고 있는 백인의 방어 행동을 일컫는다. 《마이데일리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3>

피젯 스피너(<영>fidget spinner) 영_영 「구」 피젯 토이의 하나로, 날개가 달린 작은 장난감.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손으로 돌리면 빠르게 회전한다. ⇒규범 표기는 ‘피젯 스피너’이다. 『{피젯 스피너는}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경제 2017년 5월》 【2017년 2월 신어】

피젯 토이(<영>fidget toy) 영_영 「구」 아이 또는 성인들이 한 손에 쥐고 주무르거나 눌러서 돌릴 수 있는 작은 장난감. ⇒규범 표기는 ‘피젯 토이’이다. 『

피젯 스피너는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한 손에 쥐고 반복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피젯 토이의} 한 종류다. 《노컷뉴스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4. 2017년 신어

- 가나다순 -



가성비-족(價性比族) 한+한 [가성비족] [가성비족만[가성비종만]] 「명」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중시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OO는 론칭 2년 만에 전국 매장 100개를 돌파할 정도로 {가성비족의} 발길을 잡았다. <헤럴드경제 2017년 4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2>

가싶 남녀(가싶男女) 고_한 「구」 ‘가지고 싶은 남자와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가지고 싶을 정도로 매력이 있는 남녀를 이르는 말이다. ¶일도 사랑도 모두 완벽한 {가싶 남녀로} 최강 호흡을 선보인 OO ‘OO’의 OOO·OOO…커플이 그 주인공이다. <스포츠동아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갑질 사범(甲질事犯) (한+고)_한 「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사회에 만연한 갑질과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100일 동안 특별 단속을 통해 7,663명의 {갑질 사범을} 검거했다. <노컷뉴스 2016년 12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9>

갓-땡작(<영>god名▽作) 영+한 「명」 명작 중에서도 뛰어난 명작. ‘신’을 의미하는 ‘갓(god)’과 ‘땡작’과 비슷한 글자 모양을 가진 ‘땡작’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모양으로 재미를 주다니, 역시 한글은 {갓땡작이} 분명하다. <채널예스 2017년 8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

갓상블(<영>god<프>←ensemble) 영+프 「명」 2인 이상이 하는 노래나 연주의 전체적인 어울림이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 최고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 작품 역시 이른바 {갓상블로} 통하는 앙상블의 화려한 군무가 인상적이다. <동아일보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1>

강세-권(江勢圈) 한+한 [강세권] 「명」 강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에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 주로 강 근처에 위치하여 강의 조망을 바라볼 수 있는 주거 지역을 이른다. 『특히 숲세권, {강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엠비시뉴스 2016년 10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3>

개너자이저(개<영>←energizer) 고+영 「명」 몹시 활동적이고 힘이 넘치는 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미국 미시간주에 사는 소형견 ‘OO’는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개너자이저}입니다. 《한국일보 2017년 5월》 【2016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1>

개-사이다(개<영>cider) 고+영 「명」 답답한 상황을 매우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나 상황을 속되게 이르는 말. 『OOO은 “{개사이다}”는 시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다. 직접적으로 개량도 관련 없고, 직접적으로 청량음료량도 관련 없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두 가지를 옆에 놓는 순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아주 시원한 기분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헤럴드피오피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0>

개용-품절(개龍品切) (고+한)+한 [개용품절] 「명」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개천에서 용 난다’를 줄인 ‘개용’과 ‘품절’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또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의미의 {개용품절}...이라는 표현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세계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5>

개헌론-파(改憲論派) 한+한 [개: 헌논파] 「명」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제3 지대, ‘비패권 지대’, ‘{개헌론파}로’ 분류돼 온 세 사람은 15일 OO의 한 식당에서 만나 분권형 의원 집정부제 개헌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타임즈 2017년 2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객리단-길(客理團길) 한+고 [갱니단길] 「명」 전주시에 있는 조선 시대 유적인 객사(客舍) 주변의 길. 맛집과 영화 관련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인기 명소이다. ‘객사’와 서울의 인기 명소 가운데 하나인 ‘경리단길’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전북 전주시 {객리단길에} 젊은 여행객이 몰리고 있다. <동아일보 2017년 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59>

갭투자족(<영>gap投資族) 영+한 『경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구입하여 전세를 놓은 후, 매매가 상승에서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O 교수는 “지금처럼 대출이 강화된 상태에서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갭 투자족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면서… 경고했다. <데일리안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8 / 2016년 빈도: 1>

갯꿀러(<영>get꿀<영><-er) 영+고+영 「명」 본인의 취향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 따위를 구매하여 소비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사람. 『20대는 이 달콤한 꿀 같은 소비를 위해 직접 나서기도 한다. 이처럼 여느 연령대보다 능동적인 소비를 즐기기 때문에 이른바 ‘{갯꿀러}로’ 불린다. <세계일보 2017년 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92>

경준-생(警準生) 한+한 [경 : 준생] 「명」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줄여 이르는 말. 『특히 경찰청이 2023년까지 경찰관 1만 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힘에 따라 ‘{경준생}들과’ 관련 학원들이 ‘공채 특수’ 기대감에 들떴다. <법률저널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3>

계약-뺑(契約뺑) 한+고 [계 : 약뺑/계 : 약뺑] 「명」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미끼로 소비자를 협박하거나, 소비자에게 강매하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매물로 유인한 손님을 몇 시간씩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정상가를 뛰어넘는 금액을 요구한 뒤, 욕설과 함께 협박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방법으

로 중고 차량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계약뺑}’이라는} 수법을 썼다. <인천일보 2017년 5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

고나리-자(官▽理者) 한+한 [고나리자] 「명」 지나치게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관리’의 오타인 ‘고나리’와 사람을 뜻하는 ‘자(者)’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고나리자로} 찍히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등 대화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중소기업뉴스 2017년 4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26>

고막 여친(鼓膜女親) 한_한 「구」 실제 여자 친구는 아니지만 연인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는 여성. 주로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 가수를 이르는 말이다. 『OO는 {고막 여친이란} 별명에 걸맞게 모닝콜과 벨 소리 만들기에 도전했다. <티브이리포트 2017년 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4>

고막 연인(鼓膜戀人) 한_한 「구」 실제 연인은 아니지만 연인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불러 주는 남성 또는 여성. 주로 매우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가수나 라디오 진행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듣는 누군가의 시끄러운 통화 소리, 직장 상사의 이유 없는 잔소리 등으로 지친 귀를 달래 주는 {고막 연인}. 당신의 {고막 연인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뉴스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8>

고삐^법안(고삐法案) 고^한 『법률』 미국에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미 정치 전문 매체인 OO는 28일 OO당 의회 소식통들을 인용해 하원이...새로운 대형 규제에 대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고삐 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

고시 삼자 동락설(考試三者同落說) 한_한_한 「구」 고시에서 떨어지면 친구와 여자, 돈까지도 함께 없어질 수 있음을 이르는 말. 『{고시 삼자 동락설}이} 판치는 속에...‘십시’들은 좀비처럼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한겨레 2016년 8

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1>

고층^작업^차(高層作業車) 한^한^한 『산업 일반』 사람이 직접 작업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차량. =고소 작업 차. ¶양쪽에 워킹 타워가 설치되면 이를 {고층 작업 차로} 연결하고, 수색 팀은 이 작업 차를 이용해 OO호 우현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7>

골드 삼촌(<영>gold三寸) 영_한 「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조카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삼촌을 이르는 말. ¶최근 30대 이상의 ‘만혼’ 및 ‘비혼’ 현상이 늘어나면서 소득은 안정된 반면 부양가족이 없어 조카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는 이른바 ‘{골드 삼촌}·이모’로 불리는 미혼의 삼촌, 이모들의 아동 매장 방문이 늘면서 아동 관련 상품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위클리오늘 2017년 2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골드 이모(<영>gold姨母) 영_한 「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결혼을 하지 않고 조카를 위해 지출을 아끼지 않는 이모를 이르는 말. ¶최근 조카 학비에 해외여행 비용까지 대 주는 이른바 ‘{골드 이모}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티브이데일리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3>

골든 타임 배송(<영>golden time配送) 영_영_한 「구」 가장 적절한 시간대에 물자를 보내 주는 일. 주로 신선한 식자재를 배송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수요자 관점에서는 최고의 품질의 식자재를 최적 시간에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골든 타임 배송의} 가능성이 활짝 열렸다. <헤럴드경제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3>

공알못01(公알못) 한+고+고 [공알못] [공알못만[공알못만]] 「명」 ‘공연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연말이 되면 ‘{공알못}도’ 한 번쯤 떠올리는 발레가 있다. <문화일보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공알못02(公알못) 한+고+고 [공알몬] [공알못만[공알몬만]] 「명」 ‘공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또, 누가 젊은 유권자들에게 ‘{공알못’이라고} 했던가. 《더팩트 2017년 5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3>

공취-생(公就生) 한+한 [공취생] 「명」 공무원 시험과 일반 기업 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 취업이 힘들어진 사회 분위기 때문에 다방면의 취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만들어진 말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 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과 일반 기업 취업 준비 사이를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공취생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20>

굉-끈(宏끈) 한+고 [굉끈/헝끈] 「명」 ‘굉장한 끈대’를 줄여 이르는 말.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그것만이 옳다고 지나치게 주장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말한다. 『최근에는 끈대라는 단어도 세분화되면서 {굉끈}, 젊끈 등의 신조어도 생겨났다. 《스포츠경향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교순-대(交巡隊) 한+한 [교순대] 「명」 ‘교통 순찰대’를 줄여 이르는 말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주로 도로 교통의 사정을 살피기 위하여 조직된 경찰대. 『{교순대의} 1순위 업무는 기동 경호. 대통령이나 해외 정상, 귀빈들의 차량을 경호하면서 길을 뚫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경제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3>

교순대-원(交巡隊員) 한+한 [교순대원] 「명」 ‘교통 순찰대원’을 줄여 이르는 말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주로 도로 교통의 사정을 살피기 위해 조직된 경찰대의 대원. 『하지만 정작 {교순대원들은} 자신들의 모터사이클을 OO로 부른다네요. 《서울경제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

교정-어(校定語) 한+한 [교 : 정어] 「명」 잘못된 글자나 글귀를 검토하여 바르게 고친 말. 『OO는 기본 입력 기능 외에 추천어, {교정어}...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경제신문 2017년 11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1>

국민 아이스바(國民▼ice bar) 한_영 「구」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막대기에 꽂혀 있는 형태의 긴 얼음과자를 이르는 말. 『OO는 1992년 출시부터 지난해까지 약 29억 개가 팔린 '{국민 아이스바}'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궁서리(窮<영>←luxury) 한+영 「명」 궁상맞으면서도 보기에 고급스러운 데가 있음. '궁상'과 고급스러움을 의미하는 '럭셔리(luxury)'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시작부터 OOO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궁서리}'를』 선보였다. 남산이 잘 보이는 옥상을 인터뷰 장소로 잡은 OOO은... 아보카도를 간장에 찍어 참치 뱃살 맛을 냈다. 《헤럴드팝 2017년 10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4>

그루답터(<영>▼←grooming early adopter) 영+영 「명」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패션이나 미용과 관련된 신제품을 구매하여 외모를 가꾸는 남자. 몸을 치장한다는 의미의 '그루밍(grooming)'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보습과 베이스 메이크업에 관심을 두던 그루밍족을 넘어 색조 메이크업과 제모 등에 관심을 두는 {그루답터가} 느는 추세다. 《머니투데이 2016년 11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3>

그루답터-족(<영>▼←grooming early adopter族) 영+한 「명」 다른 사람보다 먼저 패션이나 미용과 관련된 신제품을 구매하여 외모를 가꾸는 남자. 또는 그런 무리. 자신의 패션이나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일컫는 '그루밍족(grooming族)'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루밍족’을 넘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비교하거나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하는 ‘{그루답터족}까지’ 생겼다. 《중앙일보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6>

금-대리(金代理) 한+한 [금대리] 「명」 주로 건설업계의 회사에서, 대리금 인력이 많지 않아 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 회사 대표는 “최근 이직한 대리나 과장급 모두 대기업이나 경쟁 중견 기업에서 연봉을 조금 더 주고 데려간 것.”이라며 “요즘 업계에서는 {금대리}, 은과장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25>

길맥-족(길麥族) (고+한)+한 [길맥족] [길맥족만[길맥종만]] 「명」 길에서 맥주 마시는 것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흔히 ‘{길맥족’으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무분별하게 공원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탓에 공원을 찾은 시민과 인근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도민일보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20>

깃털 눈썹 고_고 「구」 새의 깃털 모양처럼 생긴 눈썹. 눈썹의 가운데에 약간 공백을 두고 절반은 위로, 절반은 아래로 나누어 고정하는 방식의 눈썹 화장법이다.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에스엔에스(SNS)에 공개한 ‘{깃털 눈썹}이’ 화제입니다. 《케이비에스뉴스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20>

꽃-미남녀(꽃美男女) 고+한 [꼴미남녀] 「명」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꽃미남미녀. 『우리는 “OO 패밀리예요!”……{꽃미남녀} 절친 인증 완료. 《스포츠조선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꽃샘 대선(꽃샘大選) 고_한 「구」 꽃샘추위가 있는 시기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2016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다음

대선의 날짜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다. 『현행 헌법대로…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월 하순 꽃샘추위 속에서 치르는 ‘{꽃샘 대선’이} 된다. 《부산일보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7>

꿀-근무지(꿀勤務地) 고+한 [꿀근무지] 「명」 다른 근무지에 비하여 쉽게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특히 검찰,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감사원, 외교부, 국세청 등 권력 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모두 교육 지원청, 구청, 대학, 중앙 도서관, 헌법 재판소 등 {꿀근무지}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3>

꿀잼-각(꿀잼角) 고+한 [꿀잼각] [꿀잼각만[꿀잼강만]] 「명」 꿀처럼 달콤한 재미가 기대되는 상황이나 일. 『잡학 박사들의 첫 회동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출연진들의 조합이 {꿀잼각이다}. 다른 말 필요 없고 빨리 방송 날이 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으로 극찬했다. 《부산일보 2017년 5월》 【2016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2>

꿀-중기(꿀中企) 고+한 [꿀중기] 「명」 경영 상태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취준생들은 소망하는 중소기업들을 ‘{꿀중기’라고} 부른다. 《동아일보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7>



나-로서기 고+고 [나로서기] 「명」 다른 것에 매이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찾고 본연의 ‘나’로 살아가는 일. ‘나’와 ‘홀로서기’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대학 생활은 {나로서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는 기간이다.

《미주한국일보 2017년 3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0>

내가티브(내가<영><-negative) 고+영 「명」 ‘내가 하는 네거티브’라는 뜻으로, 후보자가 스스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선거 운동 방식을 이르는 말. 『‘자거티브’는 자신을 가리키는 한자 ‘자’라는 글자와 상대 후보의 약점과 단점을 부각하는 선거 전략인 ‘네거티브’가 합쳐진 말로,...이와 같은 뜻의 유사어로 ‘{내가티브’라는} 신조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고 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내비게이션 소비(<영>navigation消費) 영_한 「구」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등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쇼핑 동선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비 형태. 『{내비게이션 소비는} 이용자의 모바일 쇼핑 동선을 파악해 수요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를 말한다. 인공 지능을 이용한 ‘OO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국민일보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4>

랜섬웨어(낭<영><-ransomware) 고+영 「명」 사용자가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양이가 방해하는 일을 두고 악성 파일인 ‘랜섬웨어’에 빗대어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랜섬웨어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낭섬웨어’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마이데일리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8>

넌-바이너리(<영>non binary) 영+영 「명」 남성과 여성 어느 한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 주로 자신의 성(性) 정체성을 남성이나 여성도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3의 성(性)을 이른다. 『지난 9일 OO 통신 등 외신은 오리건 주 주민들이 미국 주(州) 역사상 처음으로 신분증에 ‘{넌바이너리’로} 표기할 권리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2017년 5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50 / 2016년 빈도: 1>

네거티브^낙수^효과(<영>negative落水效果) 영^한^한 『경제』 대기업의 부실화가 계속되면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 역시 부실화되어 가계가 위축되고 소

비가 둔화하며, 경제 성장 역시 둔화하는 효과. ‘낙수 효과’에 상대되는 말이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대기업 계열사의 부실화가 가속되면 이른바 {네거티브 낙수 효과} 현실화될 위험도 높아진다. 《중앙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

네코노믹스(<일>neko[猫]<영>←economics) 일+영 「명」 일본에서,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효과. ‘고양이’를 의미하는 일본어 ‘네코(neko[猫])’와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일본 사회에 ‘{네코노믹스’라고까지} 불리는 고양이 붐이 일면서 새끼 고양이 가격이 치솟고 있다. 《국민일보 2017년 6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1>

네티페미(<영>▼net←feminist) 영+영 「명」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를 이르는 말.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을 의미하는 ‘인터넷(internet)’과 페미니즘을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페미니스트(feminist)’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른바 ‘{네티페미’}는 해시태그를 통해 같은 생각과 지향점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대하면서 막강한 ‘여성 연대’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 《여성신문 2017년 2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61>

노 룩 촬영(<영>no look撮影) 영_영_한 「구」 촬영하는 사람이 촬영 대상자를 보지 않고 다른 방향을 보면서 하는 촬영. 『O 의원은 ‘{노 룩 촬영’}을 한 이유에 대해 “(O 의원의 모습을) 기록은 하고 싶었지만 직접 보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데일리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79>

노 룩 취재(<영>no look取材) 영_영_한 「구」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하는 취재. 『방송 후 누리꾼들은 보도 화면에 OO 땅 현장 사진이 아닌 포털 사이트 OO 로드 뷰 사진이 쓰인 것을 두고 ‘{노 룩 취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부일보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66>

노르웨이^패러독스(Norway<영>paradox) 영^영 『경제』 북해 유전을 통해 얻은 석유와 가스를 수출하면서도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석유와 가스 산업을 약화하려는 노르웨이 정부의 모순을 이르는 말. 『석유로 석유를 퇴출시키는 격이다. 이를 ‘{노르웨이 패러독스’라} 부른다. <한겨레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노마드 보수(<영>nomad保守) 영_한 「구」 정치적으로 특정 후보를 일정하게 지지하지 않고 여러 후보에 대해 지지를 옮겨 다니는 보수층을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당의 선전은 지난 대선에서 {노마드 보수} 이끌었던 OO·OO의 높은 지지 때문이다. <주간경향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7>

노멀 크러시(<영>normal crush) 영_영 「구」 평범하면서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는 일. 『청년들이 {노멀 크러시} 추구하는 이유는 ‘공감’과 ‘편안함’에 있다. <더피알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7>

노 알콜러(<영>no alcoholler) 영_영 「구」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대학가에서는 ‘{노 알콜러’라는} 신조어를 통해 술 먹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합 동아리도 만들어졌다. <강원일보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4>

놀-존심(놀尊心) 고+한 [놀 : 존심] 「명」 노는 방식에 대해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놀다’와 ‘자존심’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이날 행사는 ‘{놀존심} 있다면 모여…OO 월드’라는 콘셉트로 열렸다. <뉴스1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8>

뇌피셜(腦<영>←official) 한+영 「명」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나 주장. 『또 다른 누리꾼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단독’은 뭐야…{뇌피셜} 좀 그만 보고 싶다.”라며 추측성 보도를 일갈했다. <뉴스타운 2016년 5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7>

뉴노멀중년(<영>new normal中年) 영+영+한 『사회 일반』 젊은 세대와 비슷한 삶의 방식과 취미 활동을 추구하는 중년. 주로 자기 관리나 자기 계발을 하는 데에 돈을 아끼지 않는 중년 세대를 의미한다. 『이른바 젊은 세대와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40, 50대를 일컫는 ‘{뉴 노멀 중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을 즐기며 피부, 미용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소비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7년 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0>

뉴칼라(<영>new collar) 영+영 「명」 생산직에 종사하는 육체 노동자인 ‘블루칼라’와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인 ‘화이트칼라’로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직종의 노동자. 노동의 디지털화·자동화가 이루어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노동 장소와 시간 등의 제약이 감소하면서 생겨난 개념이다. 『인공 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일상으로 파고들면 이를 조화롭게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각광받게 될 것이다. 두려움 대신 새롭게 등장할 {뉴칼라들} 이용하고 활용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시사저널 2017년 9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4>

뉴클리어 풋볼(<영>nuclear football) 영_영 「구」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의 발사를 명령할 때 사용하는 가방을 이르는 말. 약 20킬로그램가량의 검은색 가죽으로 된 서류 가방 형태를 하고 있다. ‘핵 가방’이라고도 하며, 핵무기 사용에 쓰이는 문서와 보안 카드 등이 들어 있다. 미국의 이전 대통령 시절 핵전쟁을 계획하며 만든 작전명인, 미식축구를 의미하는 ‘풋볼’ 용어와 관련이 있어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 『미국에서는 ‘{뉴클리어 풋볼}이라 불리는 핵 가방’ 이양은 군 통수권을 다음 대통령에게 넘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는다. <서울신문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7>

닉슨 해법(Nixon解法) 영_한 「구」 탄핵 이전에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이 스스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르는 말.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탄핵 위기에 몰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미국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

지 않는다는 합의를 도출한 데서 나온 말이다. 『여야와 청와대가 O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진 하야를 합의하자는 것으로, 미국 OOO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의 ‘{닉슨 해법}과’ 유사한 정치적 해법이다. 《중부일보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3>

ㄷ

다세-권(多勢圈) 한+한 [다세권] 「명」 교육 환경이 우수하고, 지하철역이나 공원 등이 인접해 있는 등의 다양하고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주거 지역. 『그동안 ‘{다세권}’은』 아파트의 몸값을 주도하는 요소로 각인돼 왔다. 하지만 이제 오피스텔에서도 ‘{다세권}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스페셜경제 2017년 9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26>

당떨시(糖떨時) 한+고+한 [당떨씨] 「명」 ‘당이 떨어지는 시간’을 줄여 이르는 말. 주로 오후에 가지는 간식 시간을 이르는 말이다. 『소포장 파이 제품들은 간편하게 아침을 대신하거나, 속칭 ‘{당떨시}’라 불리는 오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2~30대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코노믹리뷰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대드버타이징(<영>dadvertising) 영 「명」 아버지의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하여 효과를 내는 일. 『실제로 최근 아빠를 전면에 내세운 {대드버타이징} 광고에서 요즘 아빠들의 역할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 【←dad+advertising】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4 / 2016년 빈도: 1>

대-유잼(大有잼) 한+(한+고) [대 : 유잼] 「명」 큰 재미가 있음. 『방송을 접한

팬들은 “오늘도 너무 예쁘고 귀엽고 {대유짼이었다}.”, “오늘 역대급 방송으로 재밌어요. 대박!”, “오늘 완전 {대유짼}.”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미디어펜 2017년 5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9>

대-협치(大協治) 한+한 [대:협치] 「명」 여러 공공 조직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관계 기관 및 기업 따위의 관련 주체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의 과정에 참여하여 공적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연합 관리 체계. 『집권 초기 과감한 적폐 청산 이후에는 온 나라,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협치}를 펼치기를 당부 드린다. <광주일보 2017년 5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2>

댄스올린(<영>dance←violin) 영+영 「명」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 행위. ‘댄스’와 ‘바이올린’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바이올린과 댄스의 결합, 어색할 것만 같은 이 둘의 조합은 ‘{댄스올린’이란} 장르로 젊은 층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경제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7>

데가지즘(<프>dégagisme) 프 「명」 구체제 청산 혹은 인적 쇄신을 통해 겪게 되는 정치 체제의 변화를 이르는 말. ‘빠져나오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데가지(dégager)’에서 나온 말로, 프랑스의 대선 기간 중 주로 쓰인 말이다. 『영국 일간 OO은 구체제나 인물의 청산을 뜻하는 ‘{데가지즘’이} 프랑스 정치의 새로운 사조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51>

도른-미(도른美) 고+한 [도른미] 「명」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웃음을 주는 사람이 풍기는 매력. 정신에 이상이 생김을 속되게 이르는 동사 ‘돌다’의 비규범 활용형인 ‘돌은’을 발음대로 쓴 ‘도른’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美)’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OO의 익살스런 장난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섹시미, 청순미는 가라. {도른미의} 최강자 OO이 온다.”, “아 진짜 귀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 2017년 7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6>

도서관 미어캣(圖書館<영>meerkat) 한_영 「구」 도서관이나 독서실 따위에서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미어캣처럼 목을 빼고 쳐다보며 민감하게 구는 사람을 조롱하는 ‘{도서관 미어캣}이란’ 용어도 있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3>

독서실 원시인(讀書室原始人) 한_한 「구」 취업을 위하여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원시인’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을 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취업 인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2011년 공기업 몇 군데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다...O 씨는 그렇게 ‘{독서실 원시인’으로} 돌아왔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2>

돈세탁-망(돈洗濯網) (고+한)+한 [돈 : 세탕망] 「명」 돈세탁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돈세탁의 과정을 돕는 일에 관련된 조직이나 체계. 『국제적인 불법 {돈세탁망인} 이른바 ‘국제 빨래방’에 2010~2014년 사이에만 OO로부터 최소 200억 달러 이상의 수상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신문 OO이 2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6>

동원-동근(同源同根) 한+한 [동원동근] 「명」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같고 그 자라난 뿌리가 같다는 말로, 어떤 집단이나 단체의 본질이나 본바탕이 같음을 이르는 말. 『우선...우리가 이른바 중도 보수를 지향했던 같은 뿌리이니까, {동원동근이니까}, 국민 앞에 대선 후보를 한 분으로 모시자. 《와이티엔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뒷-벽지 고+고 [뒤 : 뻥찌/뒹 : 뻥찌] 「명」 허벅지의 뒷부분을 가리키는 말. 『{뒹벽지가} 짧아지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 작용으로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오며 허리의 정상적인 각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울경제 2017년 4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8>

드론 성지(<영>drone聖地) 영_한 「구」 무인 비행 물체인 ‘드론’을 날리기 좋은 장소. 항공, 안보상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넓은 공원, 바닷가, 운동장과 같은 곳이 이에 해당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른바 ‘{드론 성지}’로 불리는 OO군의 한 유원지 근처에는 주말마다 15~20명의 동호회 회원이 모여 드론을 날린다. <매일신문 2015년 12월> 【2015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2>

디지털 성범죄(<영>digital性犯罪) 영_한 「구」 카메라나 인터넷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예를 들어 몰래 카메라로 타인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 따위가 있다. 『O 의원은…“{디지털 성범죄는}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매일경제 2017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7>

명작(名▽作) 한 [명작] [명작만[명장만]] 「명」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서 ‘명작(名作)’이라는 뜻으로 쓰는 말. ‘명작’과 글자 모양을 비슷하게 변형한 것이다. 『‘명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쓰이는 급식체를 사용해 만든 ‘{명작}’이라는 단어를 OO에 검색한 결과를 두고 네티즌들은 놀라움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2017년 11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7>



라이스 슈가(<영>rice sugar) 영_영 「구」 쌀을 가공하여 만든 설탕. 기존의 설탕보다 당도가 덜하고, 쌀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가공 설탕이다. 엿기름을 이용해 쌀을 액체 상태로 만든 뒤, 다시 고체로 만드는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쌀설탕. 『국산 쌀을 가공해 설탕으로 만든 쌀설탕, {라이스 슈가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케이비에스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2>

라테 아빠(<이>latte아빠) 이_고 「구」 여유로운 모습으로 육아를 하는 아빠를 이르는 말. 한 손에는 카페라테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미는 모습을 두고 생긴 말이다. 『엄마와 아빠의 육아에 대한 차이는 소셜 미디어에 등장한 신조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아빠는 ‘{라테 아빠}’, ‘프렌디’, ‘플대디’ 등이 언급됐다. 《경향신문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6>

란파라치(蘭<이>←paparazzi) 한+이 「명」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는 공직자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사람. ‘김영란법’과 ‘파파라치’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일각에선 이른바 ‘파파라치’처럼 공무원과 기자들이 만나는 현장을 몰래 살펴보다가 규정보다 많은 금액을 쓴 것으로 의심되면 곧장 수사 당국에 신고하는 ‘{란파라치}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179>

랜선 실세(<영>LAN線實勢) (영+한)_한 「구」 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청문회에서,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를 이용해 정치인에게 사실이 담긴 내용을 제보하여 실제적인 세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른바 ‘{랜선 실세}’로 불리는 시민들은 문자 메시지,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해 국정 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제보하며 사실상 청문회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일보 2016년 12월》 【LAN:local area network】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8>

랜선 집사(<영>LAN線執事) (영+한)_한 「구」 고양이를 직접 키우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고양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귀엽게 여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랜선 집사임} 자부하는 구독자들은 “우리 ○○이 살이 너무 빠진 것 아닌가?” 등으로 마치 자기 고양이인 양 관심을 표현하고 “광고를 중간에 넘기지 않고 끝까지 다 볼 테니 광고 수익이 나면 애들 간식

을 사 먹여 달라.” 등의 요청을 댓글로 남긴다. 《세계일보 2017년 8월》
【LAN:local area network】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9>

랜선 커플(<영>LAN線<영>couple) (영+한)_영 「구」 온라인상에서 짝이 되는 남녀 한 쌍을 이르는 말. 『OO과 OO이 함께한 신곡 OO은 {랜선 커플의} 꼴 조합처럼 풋풋한 연애의 시작을 소재로 한 곡으로,…색다른 스토리텔링을 담을 예정이다. 《오에스이엔 2017년 3월》 【LAN:local area network】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29>

럭키 프로모션(<영>lucky promotion) 영_영 「구」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할인을 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 늘도록 유도하는 일. 『유아동 대표 1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OO의 이번 OO에서는 행사 당일 7%, 7천 원 할인 쿠폰 발급 등 숫자 7과 관련한 다양한 {럭키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스포츠조선 2016년 7월》 【2015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1>

레스-마켓(<영>←restaurant market) 영+영 「명」 매장 내에 진열대를 설치해 지역 농산물이나 농수산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이곳에는 레스토랑과 시장을 합한 개념의 {레스마켓도} 설치된다. 《동아일보 2017년 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0>

레이지 신드롬(<영>rage syndrome) 영_영 「구」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갑자기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며 주인을 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증상. ‘돌발성 격노 증후군’이라고도 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레이지 신드롬이라고} 하는 돌발성 격노 증후군을 앓는 고양이들은 발작이 일어날 때 공격을 하고, 발작이 가라앉으면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한다. 《뉴스1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

로테크 테러(<영>low-tech terror) 영_영 「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수법으로 저지르는 테러. 예를 들어,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으로 대

규모 인파가 있는 곳에 돌진하여 사상자를 내는 방식의 폭력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폭탄이 아닌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로테크 테러}가’ 잇따르면서 테러 공포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케이비에스뉴스 2017년 8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4>

리브르 아 를리에(<프>livre a relier) 프_프_프 「구」 제본을 하지 않은 상태의 서적. 텍스트가 인쇄된 종이가 표지 사이에 끼워져 있는 형태로, 독자가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책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출판사 OO는 {리브르 아 를리에} 형식에서 따온 OO을 내놓았다. 《문화일보 2017년 1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리커버 마케팅(<영>recover marketing) 영_영 「구」 이미 출간된 책의 표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꾸어 다시 출간하는 마케팅 전략. 『최근 출판계에서는 새로운 일러스트나 디자인으로 표지를 재단장하는 {리커버 마케팅이} 활발하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8>



마라마마(<중>malamama[麻辣媽媽]) 중 「명」 중국에서, 적극적이고 개성이 강한 이삼십 대 엄마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란 인터넷 신조어 {마라마마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맵고 얼얼한 엄마’라는 뜻이다. 《매일경제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

마약-크림(麻藥<영>cream) 한+영 「명」 마취 작용이 있어 습관적으로 피부에 바르면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크림. 『과다 사용하면 호흡·심장이 멈춰 사망할 수 있어...{마약크림으로} 불리는 마약 진통제의 오남용·불법 유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

어】 <2017년 빈도: 3>

마약-풍선(麻藥風船) 한+한 [마약풍선] 「명」 아산화 질소를 넣은 풍선. 풍선 안에 방부제나 마취제 따위에 쓰이는 아산화 질소가 들어 있어 이를 흡입하면 웃음이 자꾸 나고 정신이 몽롱하게 되는 등 마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증세를 보인다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일명 ‘{마약풍선}’이』 대학가 축제 현장에서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20>

마운틴 포비아(<영>▼mountain phobia) 영_영 「구」 등산로에서 연이어 일어난 강력 범죄로 인해 등산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증세.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마운틴 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산에서의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 2017년 3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만푼-남(漫騁男) (한+고)+한 [만 : 풀람] 「명」 ‘만화를 풀고 나온 듯한 남자’라는 뜻으로,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못지않게 외모가 뛰어난 남자를 이르는 말. 『OOO는 3일 자신의 OO에 “...OOO와 함께 지난 화 진정한 {만푼남이} 된 우리 OOO를 지켜봐 주세요. 오늘 밤 10시 ‘OO’ 5화 본방 사수!”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스타뉴스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만푼-녀(漫騁女) (한+고)+한 [만 : 풀려] 「명」 ‘만화를 풀고 나온 듯한 여자’라는 뜻으로,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 못지않게 외모가 뛰어난 여자를 이르는 말. 『한 드라마 속 {만푼녀가} 정말 만화 속 주인공 같은 비현실적인 미모를 뽐내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세계일보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6>

맘고리즘(<영>▼mom←algorithm) 영+영 「명」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고 생애 주기별로 육아를 반복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엄마’를 의미하는 ‘맘(mom)’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규칙을 의미하는 ‘알고리즘(algorithm)’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맘고리즘이} 계속되면, 엄마도 가정도 사회도 행복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09>

매너 푸드(<영>▼manner food) 영_영 「구」 주로 도서관 등 조용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 『보관과 섭취가 쉬운 과일 제품, 쏟을 걱정이 없는 에너지 젤리 등 도서관에서 즐기기 좋은 ‘{매너 푸드’가} 인기다. 《머니에스 2017년 5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6>

매직 툴바(<영>magic toolbar) 영_영 「구」 키보드의 평선 키를 대신해 컴퓨터 운영 체제나 웹 브라우저 따위의 응용 프로그램 가운데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따로 모아 아이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신형 OO는 디스플레이 자동 변환 기술인 {매직 툴바를} 탑재하고 있어 키보드 윗줄의 평선 키는 사라지게 됐다. 《뉴시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6>

매화 대선(梅花大選) 한_한 「구」 매화가 피는 시기인 3월 초순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19대 대선은 장미 대선이지만 앞으로는 3월 초순에 치러지게 되니 {매화 대선이} 될 것이다. 《노컷뉴스 2017년 5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5>

먹-슬림(먹<영>slim) 고+영 「명」 식사를 거르지 않으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일. 우리말의 ‘먹다’와 영어에서 ‘날씬하다’를 뜻하는 단어 ‘슬림(slim)’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건강 분야 탑 10에 오른 제품들만 봐도 ‘{먹슬림’이} 다 이어트 시즌을 불문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을 엿볼 수 있다. 《패션비즈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51>

먹-크러시(먹<영>crush) 고+영 「명」 먹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 또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 『OOO은 프로 복서 출신다운 날카로운 시선과 승부욕으로 남다른 ‘{먹크러시’를} 선보인다. 《스포츠큐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8>

먹튀 출산(먹튀出産) 고_한 「구」 특정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 지급하는 돈만 받은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현상.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로 주소지를 임시로 옮긴 뒤, 출산 장려금만 받고 다시 돌아가는 일을 이른다. 『4년째 출산율 1위인 전남 OO군이 {먹튀 출산과} 재정 악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매일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5>

멀티 자키(<영>▼multi jockey) 영_영 「구」 주로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상품에 대한 기획과 판매, 유통 등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각 공구 상품을 홍보하는 사람은 {멀티 자키로} 불리는 프리랜서들로 머천다이저와 쇼 호스트, 콘텐츠 기획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유통 전문 방송인이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명칭 비용(명칭費用) 고_한 「구」 자신의 부주의로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지출한 비용. 『취업 포털 OO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명칭 비용의} 대표적인 지불 사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제값 주고 구매하기’(44%)가 꼽혔다. 《한국일보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71>

메포츠(<영>←medical sport) 영+영 「명」 의사의 처방에 맞게 적절한 운동을 하면서 질환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의료 방법. 의학을 뜻하는 ‘메디컬(medical)’과 ‘스포츠(sport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학과 스포츠를 융합한 일명 ‘{메포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케이엔엔 2016년 10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4>

명정세 고+고+고 [명 : 정세] 「명」 보기에 하는 짓이 알미운 데가 있어 명치를 정말 세게 때려주고 싶은 감정을 줄여 이르는 말. 『각 작품 속 ‘{명정세}’를 부르는 절대 악역 캐릭터도 흥행 요인 중 하나다. 《마이테일리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모바일 뱅커(<영>mobile banker) 영_영 「구」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은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OO의 경우 금융 상품 및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상담은 이번에 선발하는 모바일 텔러가 맡고, 개인 정보 변경 처리 및 사고 관련 대응, 증서 처리 등은 정직원으로 사전에 선발된 {모바일 뱅커} 담당한다. 《아시아경제 2017년 4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85>

모바일 소파족(<영>mobile sofa族) 영_(영+한) 「구」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소파 쇼핑족. 『소셜 커머스 업계 등에서도 {모바일 소파족}, 모바일 침대족이란 신조어로 불리는 쇼핑객을 잡기 위한 각축이 치열해지고 있다. 《문화일보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모바일 침대족(<영>mobile寢臺族) 영_한 「구」 퇴근 후 저녁 시간에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OO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소파족’, ‘{모바일 침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30대 여성 직장인들이 저녁 8시 이후 소파나 침대 등에서 모바일 쇼핑을 즐기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라며 “이에 따라 피시(PC) 대신 모바일 쇼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몹스(<영>moobs) 영 「명」 2001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된 말로, ‘여성 유방증’을 이르는 말. 『여성 유방증을 뜻하는 {몹스}가 OO 사전에 신조어로 등재됐다. 《뉴스1 2016년 9월》 【←man+boobs】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9>

미코-녀(<영>←mini bag echo bag女) (영+영)+한 「명」 ‘미니 백과 에코 백을 모두 가지고 다니는 여자’를 줄여 이르는 말. 멋을 위해 작은 가방을 사용함과 동시에, 업무에 필요한 소지품이나 퇴근 후 운동을 위한 용품을 담기 위해 에코 백을 패션처럼 들고 다니는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미코녀는}...일과 개인 생활의 밸런스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밀레니엄 세대의 특성을 잘 보

여 준다. 《부산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0>

민주주의 소시지(民主主義<영>sausage) 한_영 「구」 호주에서, 구운 소시지를 얹은 빵을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제공하는 일. 투표소에서 소시지와 바비큐를 구워 제공하던 전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OOO OO 사전 편찬자는… “{민주주의 소시지라는} 단어의 탄생은 격동의 총선 기간 중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975>

میم-족(<영>meme族) 영+한 「명」 주로 10대나 20대의 어린 소비자로, 물품을 구입할 때 주변 환경이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양한 브랜드를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경제력을 갖춘 30~40대 고객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던 유통업체가 젊은 고객층인 ‘{میم족}’ 유치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서울경제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4>

ㅅ

배려-식(配慮食) 한+한 [배: 려식] [배려식만[배: 려싱만]] 「명」 음식물 섭취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양분이나 식감에 마음을 써서 만든 음식. 『고령식 공급 사업은 ‘OO’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배려식}을 판매하는 것이 골자로, OO대 식품 영양학과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데일리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6>

법-꾸라지(法꾸라지) 한+고 [법꾸라지] 「명」 자신이 알고 있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처벌을 피해 가거나 불리한 상황을 잘 모면하

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법’과 ‘미꾸라지’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O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국정 운영을 거들며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던 두 사람은 법망을 회피하는 ‘{법꾸라지}가’ 되는 길을 선택한 셈이다. 《헤럴드경제 2017년 1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441>

벚꽃 대선(벚꽃大選) 고_한 「구」 벚꽃이 피는 시기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2016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자 조기 대선의 날짜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말이다. 『현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들끓는 ‘촛불 민심’을 감안해 심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경우, 이르면 3월 봄철에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매일신문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243>

베이비 크러시(<영>baby crush) 영_영 「구」 어린아이답지 않게 톡톡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 또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 『여타 드라마들과 달리 아역 배우를 주인공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다른 노선을 택한 ‘OO’은 나날이 업그레이드되는 OOO의 {베이비 크러시} 등에 업고 경쟁작들에 맞서 초반 선전 중이다. 《헤럴드피오피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28>

베지노믹스(<영>vegenomics) 영 「명」 채식과 관련된 모든 경제 활동. 채소를 의미하는 ‘베지터블(vegetable)’과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로, 채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면서 채식 시장이 커져 감에 따라 생긴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채식주의가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떠오르며 ‘{베지노믹스}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vegetable+economics】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22>

베스 프로젝트(<영>BEPS project) 영_영 「구」 다국적 기업들이, 고세율 국가에서 낸 수익을 저세율 국가로 옮기는 방식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체계를 만드는 프로젝트.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지난 2015년 {베스 프

로젝트를} 시작하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관련해 과세 당국 간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제 2017년 3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15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96 / 2016년 빈도: 2>

별나라 대출(별나라貸出) 고_한 「구」 매우 낮은 금리로 받는 대출. 특징인 기업으로부터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두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별나라처럼 멀리 있는 혜택의 대출이라고 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1000 원내 대변인은 또한 “이에 더해 000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황제 전세’, ‘**별나라 대출**’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라면서 “더불어 ‘모친의 빈곤층 의료비 수급’까지 일반인들의 건강한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힘든 하자가 있다.”라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병세-권(病勢圈) 한+한 [병: 세권] 「명」 인근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 병원 따위의 의료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지역. ₩대형 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병세권**’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같은 행정 구역에 속해도 대형 병원이나 종합 병원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아파트가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몸값이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16년 10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보디^버든(<영>body burden) 영^영 『의학』 사람의 몸에 축적되는 유해 성분이나 화학 물질의 양. ₩최근 신체에 축적된 화학 물질량을 뜻하는 ‘**보디 버든**’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천연 성분으로 만든 자연주의 샴푸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아주경제 2017년 8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242>

복불 소설(複불小說) (한+고)_한 「구」 작가가 꾸며 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한 이야기의 내용이나 형식을 복사하고 붙여서 만든 소설. ₩그는 이 소설을 지칭하기 위해 ‘**복불 소설**’이란 말을 창조했고, 소설 내내 단 한 문장도

새롭게 쓰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7>

봄날 대선(봄날大選) 고_한 「구」 봄날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2016년 대통령 탄핵으로 원래 겨울철에 실시되던 대선이 앞당겨져 봄철에 치르게 되면서 생겨난 말이다. 『이른바 ‘{봄날 대선’이} 현실화되면 여야 차기 주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고작 80여 일에 불과합니다. 《이데일리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2>

부메랑 직원(<영>boomerang職員) 영_한 「구」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그 직장으로 돌아간 직원을 부메랑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기업 인사 담당자 10명 중 7명은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입사하는 이른바 ‘{부메랑 직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크로팬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55>

부패 투어(腐敗<영>tour) 한_영 「구」 멕시코에서, 정치·사상·의식적으로 타락하였던 장소에 가서 그곳을 둘러보는 일.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 상품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부패 명소를 돌아다니는 이른바 ‘{부패 투어’이다}. 《매일경제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84>

분산형^원장(分散型元帳) 한^한 『경제』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기기에 거래 내역을 기록·계산·정리하는 장부. 『{분산형 원장’이라} 할 수 있는 블록 체인은 거래 정보를 중앙의 중개 기관이 관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모든 거래 주체가 거래 정보를 동시에 기록하고 보유하도록 하는 소위 ‘신뢰 기술’로 미래 지불 수단의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7>

뷰니멀-족(<영>▼view←animal族) 영+한 「명」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지 않고 영상이나 사진으로 관찰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뷰니멀족은} 애완동물에 열광하면서도 분양 대신 관찰을 택하는 이유로 돈과 시간을

꼽는다. 《서울경제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8>

뷰알못(<영>←beauty알못) 영+고+고 「명」 ‘뷰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화장품이나 옷 등 외모를 가꾸는 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OOO는 인터뷰를 통해 “{뷰알못이지만}, 얼마 전부터 뷰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며 뷰티 분야에 관심을 드러냈다. 《스포츠동아 2017년 5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2>

비잔틴^데이터(Byzantine<영>data) 영^영 『정보·통신』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비잔틴 시대에 전투에 나간 장군들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실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통칭 ‘{비잔틴 데이터’라} 부른다. 《서울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비정규직 박물관(非正規職博物館) 한_한 「구」 방송 관련 노동 현장에서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현상을 ‘박물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이들은 또 “파견, 도급, 용역,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이 넘쳐나 ‘{비정규직 박물관’으로} 불리는 방송 콘텐츠 노동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요서울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비 플러스 프리미엄(<영>b plus premium) 영_영_영 「구」 최고급은 아니지만 기능과 품질이 뛰어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지녀 특별한 가치를 더한 제품을 이르는 말. 『OO은 올해의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는 ‘{비 플러스 프리미엄’에} 착안해, 할인에 추가 적립 혜택도 더하면서 나눔 캠페인에까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데일리 2017년 3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

비혼-층(非婚層) 한+한 [비: 혼층] 「명」 사회 구성원 가운데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특위는 아울러 현재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

로 추산되는 1인 가구와 미혼, {비혼층을}…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빡침 비용(빡침費用) 고_한 「구」 화가 났을 때 그러한 기분을 풀기 위해 쓰는 비용. 『{빡침 비용’을} 허용하는 사람들은, 제품 자체의 질과 가격을 따지는 효율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당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노컷뉴스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6>



사운드 담요(<영>sound毯요) 영_(한+고) 「구」 파장을 이용하여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를 제거하는 기기. 소음을 덮어 준다고 하여 ‘담요’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사운드 담요’라} 불리는 이 기기는 파장을 일으켜 주변의 소음을 제거합니다. 《케이비에스뉴스 2017년 2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샤이 보수(<영>shy保守) 영_한 「구」 여론 조사 따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로 보수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이르는 말. 『보수 성향의 응답이 줄어든 것은 탄핵 국면에서 자신을 보수라고 밝히기 부끄러워하는 ‘{샤이 보수’가} 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일보 2017년 4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530>

샤이 보터(<영>shy voter) 영_영 「구」 선거 따위의 투표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호하는지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유권자를 이르는 말.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 투표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성향을 드러냄으로써, 선거 기간 동안 지지율이 낮았던

후보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ㄱOOO을 지지하는 ‘{샤이 보터}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 수 없다. <한겨레21 2017년 5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샤이 중도(<영>shy中道) 영_한 「구」 여론 조사 따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로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를 이르는 말. ㄱOOO OO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는…‘{샤이 중도}’로 불리는 이른바 중도 보수층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일보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샤이 진보(<영>shy進歩) 영_한 「구」 여론 조사 따위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히지 않지만, 실제로 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이르는 말. ㄱO 평론가는 “{샤이 진보와} 샤이 보수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투표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표심을 숨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2017년 5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9>

서브-병(<영>sub病) 영+한 「명」 영화나 드라마 따위에서 조연 배우를 몹시 좋아하게 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 ㄱ방대한 주연 배우들 분량 사이에서 짝 내는 분량의 조연 배우들을 찾는, 걸리면 고치지도 못한다는 ‘{서브병}’을 유발하는 배우들 중 커플들을 모아 봤다. <시선뉴스 2016년 9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選舉後<영>stress障礙) 한_한_영_한 「구」 기대에서 벗어난 선거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빗대어 이르는 말. ㄱOO은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앓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빗대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OOO 정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20일 전했다. <경향신문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선-남방계(先南方系) 한+한 [선남방계/선남방계] 「명」 일정 시기를 기준으로

앞선 시기에 남쪽 지방에 분포하여 있는 사람이나 동물, 식물의 계통. 『예를 들어 한국인이 {선남방계와} 후남방계가 섞인 것은 이번 계놈 데이터 정도로 정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겨레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

선인-용인(選人用人) 한+한 [서 : 니용인] 「명」 인재를 뽑아 씀. 중국의 당 전체 회의인 육중전회(六中全會)에서 나온 말이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군중노선, 민주 집중제, {선인용인} 등을 이번 육중전회(六中全會)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단어로 제시했다. 《연합뉴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

성장캐(成長<영>←character) 한+영 「명」 드라마나 영화 따위에서 극이 전개되는 중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캐릭터. 『그는 “…OOO을 두고 완성형 보컬이라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지만 내가 아는 한 OOO은 {성장캐에} 더 가깝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7년 8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

세권 프리미엄(勢圈<영>←premium) 한_영 「구」 집 주변의 환경적 요소가 집값에 영향을 미쳐 거주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세권 프리미엄}’이 강세다. 《세계일보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세젤무(世젤무) 한+고+고 [세 : 젤무] 「명」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OOO이 “어머님을 {세젤무라고} 한다.”라고 말하자 OOO의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며 답을 말했다. 《티브이리포트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8>

세젤섹(世젤<영>←sexy) 한+고+영 「명」 ‘세상에서 제일 섹시한 사람’을 줄여 이르는 말. 『OOO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세젤섹’이라고} 밝혔다. 《오에스이엔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소울^타이(<영>soul tie) 영^영 『기독교』 기독교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끈끈한 영적 교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해 형성되는 건강하고 경건한 {소울 타이는}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쁨을 준다. 《한국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소파 사운드(<영>SOFAR sound) 영_영 「구」 정해진 공연장을 벗어나 집, 사무실, 옥상, 마당과 같이 작은 공간에서 소규모로 열리는 공연. 『또한 000은…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된 공연 동안 관객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소파 사운드’를} 구현했다. 《국제신문 2017년 4월》 【SOFAR:songs from a room】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소파 쇼핑족(<영>sofa shopping族) 영_(영+한) 「구」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모바일 기기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모바일 소파족. 『빠르게 늘어나는 심야 ‘{소파 쇼핑족}’. 《조선일보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3>

솔로 이코노믹스(<영>▼solo economics) 영_영 「구」 1인 가구와 관련된 경제 활동이나 전략. 1인 가구를 뜻하는 ‘솔로(solo)’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위 ‘{솔로 이코노믹스’와} ‘혼족 문화’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자치 단체 연구원의 정책 방향 설정이 눈길을 끈다. 《뉴스1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306>

쇼트 트랙 대선(<영>short track大選) 영_영_한 「구」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짧은 기간 동안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쇼트 트랙’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쇼트 트랙 대선’으로} 불리는 짧은 대선에서 티브이 토론 결과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이 더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뉴스1 2017년 4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5>

숙제 격차(宿題隔差) 한_한 「구」 숙제를 하는 환경의 차이. 인터넷에 접속하

여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찾는 것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숙제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OO의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의 정보 격차와 {숙제 격차}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미주 중앙일보 2016년 10월> 【2016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9 / 2016년 빈도: 1>

술스타그램-족(술←Instagram族) (한+영)+한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술과 관련된 게시물을 주로 올리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OO에 술이나 안주 사진을 올리는 일명 ‘{술스타그램족}’이 늘면서 디자인이 예쁜 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매일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술싫모 고+고+고 [술싫모] 「명」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줄여 이르는 말. 『‘떼어 내기 힘든 술의 유혹’을 단적으로 보여 준 이 사건과 정반대로, ‘{술싫모}’는} 가까이 하기 정말 싫은 술에 대한 생각을 짙막한 글이나 사진에 담아 올린다. <국민일보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5>

스마트컬슈머(<영>▼smart←culture consumer) 영+영+영 「명」 인터넷 티브이나 모바일 방송과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공연이나 전시 등의 문화생활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향유하는 소비자.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가정 내 인터넷 티브이나 휴대폰의 모바일 방송을 통해 유명 공연이나 축제, 전시회 등 문화 행사를 알뜰하게 시청하는 20대·30대 연령층의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정의하자면 스마트한 정보 통신 기술로 알뜰하게 수준 높은 문화를 소비하는 ‘{스마트컬슈머}’라고 부를 만하다. <서울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스마트포니스타(<영>smartphonista) 영 「명」 의류의 검색과 구매의 전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스마트폰(smartphone)’과 ‘패셔니스타(fashionista)’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스마트포니스타} 중 68퍼센트

가 패션 상품 검색에서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사용했다. 《전자신문 2016년 12월》 【←smart phone+fashionista】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

스몰텐트-론(<영>small tent論) 영+한 「명」 정치적 성향이나 신념이 비슷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는 현상. 『OOO 전 총장 중심의 ‘빅텐트론’이 사그라지면서 OO 주도의 ‘스몰텐트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 뉴스티브이 2017년 2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4>

스좀비(<영>▼←smart phone zombie) 영+영 「명」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스몼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스좀비와의’ 전쟁’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해 기준으로 90퍼센트를 넘어선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스테이테인먼트(<영>▼stay←entertainment) 영+영 「명」 호텔에서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호텔 내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휴가를 보내는 일. ‘머무르다’를 뜻하는 ‘스테이(stay)’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가족 이용객에겐 호텔에서 단순히 머무르기보다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스테이테인먼트’가』 인기다.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18>

스트리밍 쇼퍼(<영>▼streaming shopper) 영_영 「구」 제품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과 이미지를 통해 얻기를 선호하는 소비자. 『최근 동영상 콘텐츠에 커머스를 접목한 ‘브이(V)-커머스’가 {스트리밍 쇼퍼들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58>

스펙타쿠스(<영>▼spectacus) 영 「명」 학력, 학점, 자격증 등 각종 스펙을 쌓는 데에 몰두하는 취업 준비생을 이르는 말. 『취업 준비생이 ‘스펙타쿠스’로』

진화하는 사이 ‘스펙’도 한 단계 올라섰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시니어노믹스(<영>seniornomics) 영 「명」 노령 인구의 경제 활동으로 파생되는 경제 효과. 노령 인구를 뜻하는 ‘시니어(senior)’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50~60대 액티브 시니어들은 {시니어노믹스의} 건강한 주체로서 여전히 경제 성장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주신보 2017년 5월》 【←senior+economics】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0>

시발 비용(시발費用) 고_한 「구」 욕설을 할 정도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그러한 기분을 풀기 위해 쓰는 비용. 『취업 준비생 OOO 씨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밤에 야식을 시켜 먹으며 {시발 비용을} 쓰게 된다.”라고 했다. 《한국경제 2017년 3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238>

식큐멘터리(食<영>←documentary) 한+영 「명」 출연자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 내는 형식의 방송. ‘식사’와 ‘다큐멘터리(documentary)’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식큐멘터리}를 표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 무작정 찾아가 일반 대중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이다. 《스포츠큐 2017년 8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5>

신문해 계층(新文解階層) 한_한 「구」 문해 교육을 새로 받을 필요가 있는 계층. 한국 사회에 새롭게 나타나고 언어를 통한 사회 적응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른바 {신문해 계층으로} 불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해 교실이 문을 열었다. 《강원일보 2017년 3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7>

실버 워리어(<영>←silver keyboard warrior) 영_영 「구」 인터넷상에서 풍문이나

소문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헐담이 담긴 글을 거리낌 없이 유포하는 노인을 이르는 말. 『OO 단체의 ‘{실버 위리어’들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보 진영을 중북 단체로 매도하는 등의 댓글 달기에 대거 나서고 있다. 《세계일보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실버 파산(<영>silver破産) 영_한 「구」 은퇴 후 소득 감소,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 증가 등의 이유로 중산층이 노년기에 접어들어 빈곤층이 되는 일.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버 파산’의} 우려가 크다. 《서울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4>

실험동물^지킴이^법안(實驗動物지킴이法案) 한^고^한 『법률』 동물 실험 후 회복된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과 동물 실험 시설에서 무등록 공급자에게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아울러 이르는 말. 실험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동물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도 한다. 『정치권에서도 OOO 의원을 포함한 13명이 일명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투데이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5>

십시(十試/十匙) 한 [십씨] 「명」 각종 고시에서 열 번 떨어져 주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OOO은 사법 고시에 십회나 낙방해 ‘주변에서 십시일반 도와줘야 한다.’라고 해서 ‘{십시}로’ 불린다. 《티브이데일리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쌀-설탕(쌀雪糖▽) 고+한 [쌀설탕] 「명」 쌀을 가공하여 만든 설탕. 기존의 설탕보다 당도가 덜하고, 쌀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가공 설탕이다. 엿기름을 이용해 쌀을 액체 상태로 만든 뒤, 다시 고체로 만드는 공정을 거쳐 완성된다. =라이스 슈가. 『{쌀설탕은} 기존 설탕보다 덜 달고, 쌀이 함유한 영양소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엠비엔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9>

썰동(說▽動) 한+한 [썰동] 「명」 음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만든 동영상. 이야기나 의견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썰’과 ‘동영상’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경찰은 음란한 {썰동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17년 7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4>

쓰랑-꾼 고+고 [쓰랑꾼] 「명」 ‘쓰레기 사랑꾼’을 줄여 이르는 말로, 품성은 쓰레기라고 불릴 정도로 나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온 정성을 다하는 사람. 『인간성은 함량 미달이지만, 연애는 프로처럼 잘하는 일명 ‘{쓰랑꾼}들이’ 안방을 접수했다. <티브이리포트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0>

쓸개-혹 고+고 [쓸개혹] [쓸개혹만[쓸개홍만]] 「명」 『의학』 쓸개의 점막에서 증식하여 혹과 같이 돌출되어 있는 응어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담낭 용종’이라고도 한다. 『{쓸개혹으로도} 불리는 담낭 용종은 담석을 제외한 담낭 내장으로 돌출되는 모든 형태의 종괴를 의미한다. <동아일보 2015년 11월> 【2015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1>

쓸쓸 비용(쓸쓸費用) 고_한 「구」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쓰는 비용. 외로움을 잊기 위해 마신 술값, 혼자인 것이 쓸쓸해서 인형을 구입하는 데에 쓴 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혼자 밥 먹기 싫어 친구들에게 밥 사기, 잘 보일 사람도 없지만 비싼 옷 사기가 {쓸쓸 비용의} 대표 사례로,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 제값 주고 사기, 휴대 전화 수리하기 등이 명칭 비용의 대표 지불 사례로 꼽혔다고 합니다. <엠비시뉴스 2017년 6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33>

썩덕-상(十▽덕相) (한+고)+한 [썩덕쌍] 「명」 매우 귀여운 인상을 이르는 말. 2015년 신어로 아주 귀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썩덕사’의 ‘썩덕’과 얼굴을 의미하는 ‘상(相)’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에스엔에스(SNS)를 하면서 이런 말들이 눈에 띄는 때는 뜻을 찾아보기도 하는데 한 독자가 칭찬의 의미로 해준 ‘{썩덕상}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과격한 욕인 줄 알았지만 꽤 흥미롭게

관심을 가질 만한 인상이라는... 것이었다. 《매일경제 2016년 8월》 【덕:
<일>←otaku[御宅]]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아재슈머(아재<영>←consumer) 고+영 「명」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중년층의 남성 소비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취향의 40~50대 남성이 주축인 {아재슈머들은} 패션, 뷰티, 식품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패션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조선비즈 2017년 2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7>

아재 취미(아재趣味) 고_한 「구」 중년층의 남성들이 즐길 법한 취미. ¶실제로 그는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15년째 단골인 OO 수산 시장 횃집에 들러 선어 회와 소주를 즐기는 ‘아재 취미’를 갖고 있다. 《매일경제 2017년 4월》 【2016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3 / 2016년 빈도: 1>

아재-층(아재層) 고+한 [아재층] 「명」 사회 구성원을 이루는 남성 가운데 중년기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아재 파탈 웹 게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OO은...쉬운 조작과 게임 플레이를 통해 일명 ‘아재층’의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박진감 넘치는 전투와 풍부한 스토리라인으로 지속적인 플레이를 유도하고 있다. 《인벤 2017년 5월》 【2016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3 / 2016년 빈도: 2>

아재템(아재<영>←item) 고+영 「명」 중년층의 남성들이 즐겨 사용하거나 사용하던 물건. ¶일명 ‘아재템’으로 불리던 스포츠 샌들은 개성 있는 디자인과 편안한 착화감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5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아톰 보밍(<영>atom bombing) 영+영 「구」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社)에서 개발한 운영 체제 내의 데이터 저장 영역에 침투하여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나,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입력되는 사용자의 개인 정보 따위를 빼돌리는 등 사용자에게 유해한 동작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 컴퓨터 운영 체제의 보안에서 취약한 점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코드에 존재하는 결함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활용하는 운영 체제 내의 기본 데이터 저장 영역에 먼저 침입한 후에 목표한 유해한 동작을 다른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대부분의 보안 프로그램의 감시망을 빠져 나간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社)에서 개발한 운영 체제 내의 데이터 저장 영역을 가리키는 ‘아톰 테이블(atom table)’이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아톰 보밍은} 윈도의 보안 취약점이나 OO를 실행하는 코드상의 결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윈도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패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트디넷코리아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24>

악-편(惡編) 한+한 [악편] 「명」 ‘악마의 편집’을 줄여 이르는 말. 제작자나 편집자의 목적에 따라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출현자가 한 말이나 행동이 사실과 다르게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이른다. 【잘하는 것을 포착하지 않고, 못하는 것은 반복해 보여 주는 수법도 {악편의} 한 방식이다. <헤럴드팝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21>

안아키스트(안아키<영><-ist) 고+영 「명」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 현대 의학을 거부하고 자연주의적 치료법을 고수하는 사람을 이른다. 현대 의학의 치료법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요법만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래한 말이다. 【{안아키스트들은}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 등의 약을 쓰는 대신 자연적인 치료로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투데이신문 2017년 5월> 【2017년 5

월 신어】 <2017년 빈도: 26>

안아키-족(안아키族) 고+한 [아나키족] [안아키족만[아나키종만]] 「명」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현대 의학의 치료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민간요법만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래한 말이다. **『{안아키족들은}** 우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필수로 접종해야 하는 예방 접종을 거부한다. <뉴스1 2017년 5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9>

안전 속바지(安全속바지) 한_고 「구」 여성들이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치마 속에 끼입는 바지.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특수한 재질로 만든 반바지에 자물쇠를 단 줄을 연결하여 입은 사람만 입고 벗을 수 있게 만든 옷이다. 속바지가 찢어지는 경우, 경고음이 울려 착용자가 위험에 처했음을 주변에 알릴 수 있다. 독일의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안전 속바지'의}** 여밈 부분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절대 열 수 없다. <중앙일보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앞-벅지 고+고 [압뻥찌] 「명」 허벅지의 앞부분을 가리키는 말. **『{앞벅지'로}** 불리는...앞 허벅지에 살이 찌면 다리가 더 뚱뚱해 보이기 마련이다. <스포츠경향 2016년 9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5>

애국^페이^근절법(愛國<영>pay根絶法) 한^영^한 『법률』 애국심을 발미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을 근절하는 법안.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열악한 대우를 받는 한국 병사들의 임금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발의된 군인 월급 인상안으로, ‘군인 보수법 개정안’이라고도 한다. **『O** 의원은 “**{애국 페이 근절법을}** 통해 병사 사기를 진작하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2016년 12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5>

애그테크(<영>agtech) 영 「명」 농업 기술에 애플리케이션이나 드론 등의 아이

티(IT) 기술을 접목한 기술.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agriculture)’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에그테크는} 식량 위기 지역인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트렌드가 됐다. 《뉴스핌 2016년 12월》 【←agriculture+technology】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야근-각(夜勤角) 한+한 [야 : 근각] [야근각만[야 : 근강만]] 「명」 야근하게 될 것 같은 상황. 퇴근 시간이 지나 밤늦게까지 하는 근무를 뜻하는 ‘야근’과 무언가를 하게 될 것 같음을 뜻하는 ‘각’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네티즌들은 “왜 안 들어가지나. 방송이 종료됐다.”, “34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설마 파괴 왕 000 때문인가?”, “OO 제작진 오늘도 {야근각}.”…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신문 2017년 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26>**

어금니 칫솔(어금니齒솔) 고_(한+고) 「구」 어금니와 같이 일반 칫솔이 닿기 힘든 부분을 닦아 내기 위해 만든 칫솔. **【이와 이 사이의 세균은 치과 칫솔인 치간 칫솔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입 냄새를 없앨 수 있으며, 이와 잇몸의 틈은 잇몸 칫솔, {어금니 칫솔로} 불리는 미세모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다. 《스포츠조선 2017년 6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3>**

얼굴 패권주의(얼굴霸權主義) 고_한 「구」 얼굴이 준수한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는 일을 농담조로 이르는 말. 2017년 대선 이후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외모가 준수하여 생긴 말이다. **【외모가 뛰어난 인물들이 새 정부 주요 인사로 잇따라 발탁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 패권주의} 현실화.”라고 입을 모은다. 《아시아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05>**

얼리 어딕터(<영>early a떡<영>←er) 영_(영+고+영) 「구」 새로운 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어 보기를 즐기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고 신제품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매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뜻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와 동사 ‘먹다’의

어간 ‘떡-’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상하기 어려운 맛이나 기존에 볼 수 없는 기상천외한 제품일수록 {얼리 어떡터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제품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75>

얼리 힐링족(<영>▼early healing族) 영_(영+한) 「구」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30대의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주로 자기 계발이나 건강 관리 등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지치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30대를 이르는 말이다. 『또한 행복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30대인 ‘{얼리 힐링족}은’ 일 외에 본인의 삶과 생활을 중시하는 소비자들로 자기 계발과 여행, 자동차 등에 관심이 많다. 《동아일보 2017년 1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68>

엄카-족(엄<영>←card族) (고+영)+한 「명」 엄마의 카드를 사용해서 물건 따위를 사며 여유로운 소비를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일명 ‘{엄카족}인데’, 부모님 댁에서 살면서 엄마 카드로 여유 있게 소비를 하는 ‘차원이 다른’ 캔거루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에스비에스뉴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9>

에스 마이스(<영>S MICE) 영_영 「구」 스포츠 경기장을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따위를 개최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활용하여 관람객을 유치하는 일. 『OO시가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중 처음으로 {에스 마이스라는} 실험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기장 운영 적자 때문이다. 《한국경제 2016년 7월》 【←sports+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and event】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9>

엔딩 매직(<영>▼ending magic) 영_영 「구」 드라마가 마칠 때 나오는, 인상 깊은 마지막 장면을 마술에 빗대어 이르는 말. 『이미 OOO이 여자임을 알고 있었던 OOO의 반전 고백은 또 한 번의 {엔딩 매직을} 선사했다. 《스포츠동아 2016년 9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23>

역외-법(域外法) 한+한 [여괴뻘/여괴뻘] [역외법만[여괴뻘만/여괴뻘만]]
 「명」 『법률』 국내에서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가 아닌 타국에서 제정한 법률을 이르는 말. 『이 가운데 핵심 업체 21개는…업체 이름조차도 이른바 {역외법에} 의해 보호돼 익명으로 되어 있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3>

역피셜(歷<영>←official) 한+영 「명」 사극 등 역사 관련 극에서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다음 내용을 알아내는 일. 『해피 엔딩을 기대하자니 {역피셜}이 있고, 새드 엔딩을 보자니 시청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오에스이엔 2017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0>

연애 정상성(戀愛正常性) 한_한 「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사귀는 것만이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미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이탈리아 어 ‘아마토(amato)’와 정상성을 뜻하는 영어 ‘노머티비티(normative)’를 결합하여 만든 말인 ‘아마토노머티비티(amatonnormativity)’를 한국어로 번역한 말이다. 『{연애 정상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성향의 사람들은 연애 권하기를 넘어 연애를 강요하는 사회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여성신문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3>

연차 푸어(年次<영>poor) 한_영 「구」 해마다 차례대로 정해진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사람.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그들은 자신을 ‘연차 빈곤자’, {연차 푸어}라고} 부른다. 《한겨레21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7>

열대야락-족(熱帶夜樂族) 한+한 [열때야락족] [열대야락족만[열때야락족만]]
 「명」 열대야를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주로 캠핑이나 야외 활동 등으로 여름철의 무더운 밤을 이겨 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걷기, 달리기 등 가벼운 운동으로 기나긴 열대야를 하얗게 불태우려는 {열대야락족들도} 많다. 《한국경제티브이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3>

영란 맛집(英蘭맛집) 한_고 「구」 식사 비용이 김영란법에서 고시한 허용 범

위를 넘지 않는 맛집. 『영란 페이·{영란 맛집}...앱 시장도 김영란법 실효속
도. 《매일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영란 페이(英蘭<영>pay) 한_영 「구」 김영란법의 허용 범위를 넘지 않도록 비
율을 각자 부담하는 일을 더치페이에 빗대어 이르는 말. 『{영란 페이}』, ‘영
란 맛집 가이드’와 같은 별칭이 붙은 앱들이 회자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매일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영영 페미(<영>▼young young←feminist) 영_영 「구」 1990년대에 등장한 젊은
페미니스트인 ‘영 페미’ 이후 나타난 신경향의 더 어린 페미니스트. 『페미니
스트라는 낙인과 편견이 두려웠지만 ‘{영영 페미}들은’ 강남역에서 행동할
‘용기’를 얻었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한겨레 2017년 5월》 【2017년 5
월 신어】 <2017년 빈도: 15>

영포티-족(<영>▼young forty族) 영+한 「명」 젊게 사는 40대의 사람. 또는 그
런 무리. 주로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옷이나 신발 등으로 자신을 꾸미는 일
에 신경 쓰는 40대를 이르는 말이다. 『자기 투자를 아끼지 않는 20~30대 ‘허
세남’의 등극과 자기 관리를 중시하는 ‘{영포티족}들의’ 명품 가죽 사랑이 갈
수록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경제 2017년 5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23 / 2016년 빈도: 1>

오버 투어리즘(<영>over tourism) 영_영 「구」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주거 지역이 관광지가 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 ⇒규범 표기는 미확
정이다. 『서울 명동과 서촌 그리고 제주를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을’ 앓고
있다. 《매일경제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오케이 인프라(<영>OK←infrastructure) 영_영 「구」 반경 1킬로미터 이내에 교
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기반 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것. 『{오케이 인프
라}를’ 갖춘 수익형 부동산 분양도 이어진다. 《이데일리 2016년 7월》
【OK:one kilometer】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

오픈 캐비닛(<영>▼open cabinet) 영_영 「구」 정권을 잡았을 경우를 예상하여 정치 이념, 지역, 세력과 상관없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직하는 내각. 『O 후보가 정파와 관계없이 {오픈 캐비닛을} 구성하겠다는 것도 다른 정당과의 협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53>

오피스템(<영>▼office←item) 영+영 「명」 예쁘거나 독특한 디자인의 사무용품. ‘사무실’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와 ‘물건’을 뜻하는 ‘아이템(item)’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회사 안 자기 자리를 열정적으로 꾸미는 직장인이 늘면서 데스크테리어는 물론 개성 있는 디자인의 사무용품을 뜻하는 ‘{오피스템}’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동아일보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6>

온라인 리플리(<영>▼online←Ripley syndrome) 영_영 「구」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은 자신마저 속이고 환상 속에서 사는 사람. 과도한 신분 상승 욕구 때문에 타인에게 거짓말을 일삼다 결국은 자신마저 속이고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유형의 인격 장애를 뜻하는 ‘리플리 증후군’이 현실에서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규범표기는 미확정이다. 『온라인에서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 ‘{온라인 리플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엠비시뉴스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4>

와유 백(Wayuu<영>bag) 영_영 「구」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사이의 과히라(Guajira) 반도에 사는 와유(Wayuu) 부족이 전통적인 기법으로 만든 가방. 다양한 색깔과 화려한 패턴이 특징이다. 『패턴과 디테일이 달라 고르는 재미가 있는 {와유 백은} 충전연색으로 컬러가 다채롭고, 미니 사이즈부터 버킷백 사이즈까지 크기도 다양하다. 《스포츠조선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외모 패권주의(外貌霸權主義) 한_한 「구」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을 맡게 되는 일을 농담조로 이르는 말. 2017년 대선 이후에 들어선 새로

운 정부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외모가 준수하여 생긴 말이다. 『{외모 패권 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000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의 준수한 외모가 연일 화제를 모았다. 《한국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06>

욕실 세럼(浴室<영>serum) 한_영 「구」 욕실에서 세안한 직후에, 물기를 닦지 않고 피부에 바로 바르는 액체 타입의 화장품.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특히, 'OO 세럼'은 {욕실 세럼으로도} 불리며 세안 직후 욕실에서 즉각적인 보습을 공급하여 피부에 유수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스포츠조선 2017년 6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8>

올로 라이프(<영>YOLO life) 영_영 「구」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인생.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올로 라이프를} 실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여행이다. 《매일경제 2017년 7월》 【YOLO:you only live once】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66>

올로-족(<영>YOLO族) 영+한 「명」 지금 살아 있는 이 시점의 삶에 충실하며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현재 삶에 기쁨을 주는 소비를 하는 '{올로족'들이} 공연장에서도 아낌없이 지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2월》 【YOLO:you only live once】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854>

우주 발레(宇宙<프>valet) 한_프 「구」 우주 공간에서 1차적으로 도킹한 인공 위성이나 우주선을 2차적으로 다시 결합하는 작업을 이르는 말. 『OO 1호는 OO 2호와...총 세 차례 도킹을 시도하는데 특히 OO 1호와 OO 2호가 분리된 뒤 각각 180도 선회해 다시 도킹하는 2차 도킹은 '{우주 발레'로} 불리는 고난도 기술이다. 《노컷뉴스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워라밸(<영>▼←work life balance) 영+영+영 「명」 직장 일과 개인적인 생활 사이의 균형성.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이르는 말로, 일을 뜻하는 ‘워크(work)’, 삶을 뜻하는 ‘라이프(life)’, 균형을 뜻하는 ‘밸런스(balan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말이다. 『연봉이 높은 대기업과 연봉이 높진 않지만 ‘{워라벨}’이 좋은 기업 중 어느 곳을 택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놓는 이들도 많다. 《세계일보 2016년 9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08>

원룸 푸어(<영>▼one-room poor) 영_영 「구」 원룸의 비싼 월세와 보증금을 내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는 ‘{원룸 푸어}’가 등장했습니다. 《에스비에스뉴스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20>

웹툰컬(<영>▼webtoon←musical) 영+영 「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만든 뮤지컬. 『순수 국내산 {웹툰컬}의 탄생은 지난해 초연한 OO 예술단의 ‘OO’부터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4>

위너 소비자(<영>winner消費者) 영_한 「구」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한 제품이나 취향에 맞는 제품 등을 거리낌 없이 구매하는 사람. 『특히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이들은 취향을 소비로 표현하는 ‘{위너 소비자}’로서 취미 생활에 필요한 제품과 컴퓨터·오디오·카메라 등 아이티(IT) 기기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스포츠조선 2017년 4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50>

위상^점(位相點) 한^한 『물리』 역학에서, 일차원 공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상태를 이차원의 그래프 공간에 표시하는 점. 그래프의 가로축은 물체의 위치를, 세로축은 물체의 속도를 나타내며 물체의 상태에 해당되는 지점에 표시한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물체의 현 상태로부터 미래의 상태를 결정하니, {위상 점}은 시간이 지나면 위상 공간 안에서 궤적을 그리며 움직이게 된다. 《문화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위장 독감(偽裝毒感) 한_한 「구」 위장이 아픈 증세를 보이는 독감. 『리우 올림픽 한국 대표로 출전했던 OOO는 대회가 끝난 뒤 {위장 독감으로} 인해진 달 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마니아리포트 2016년 9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6 / 2016년 빈도: 2>

유심^폭리^방지법(<영>USIM暴利防止法) 영^한^한 『정보·통신』 이동 통신사가 자사의 유심(USIM)을 독점으로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2016년 10월에 처음 발의되었으나 계류 중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이동 통신 3사가 일선 유통점에 자사의 스마트폰 유심을 독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심 폭리 방지법’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아이뉴스24 2016년 10월》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유지어터(維持<영>←dieter) 한+영 「명」 현재의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중이 더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 『그는 지난 3월 긍정적인 사고로 음식을 무한 흡입하는 하루를 공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유지어터로} 다이어트 노선을 변경해 더욱 뺄 터지는 다이어트 방식을 보여 줄 것이라는 제작진의 전언이다. 《헤럴드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4>

육-퇴(育退) 한+한 [육퇴/육툐] 「명」 ‘육아 퇴근’을 줄여 이르는 말. 주로 아이가 밤잠이 들고 난 뒤 육아에서 잠시 벗어나는 일을 퇴근에 비유하여 쓰는 말이다. 『O 씨는...집안일과 육아와 씨름하다 이제 갓 돌 지난 아이를 재우고 이른바 ‘{육퇴}’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편의점을 찾는다. 《서울경제 2017년 8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은턴(銀<영>←intern) 한+영 「명」 인턴 활동에 대해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는 인턴. 『그 아래로 ‘{은턴’과} 절대다수의 ‘흠턴’이 있는데, ‘{은턴’은} 외국계 기업이나 공기업 인턴 등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인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엠비시뉴스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4>

이름표 행정(이름標行政) (고+한)_한 「구」 정책의 결정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된 사람의 실제 이름과 의견 등을 공개하는 제도. ‘정책 실명제’라고도 한다. 『이른바 ‘{이름표 행정}’으로』 구는 정책 과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화해 왔다. 《아시아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이저일고(二低一高) 한 [이 : 저일고] 「명」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현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현상이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에 대한 지속적인 언급으로 인해 나타나게 된 말이다. 『OOO 대표는 “{이저일고라는} 신조어가 생긴 상황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며 “...시대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인구 절벽 원년(人口絶壁元年) 한_한_한 「구」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고 고령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 2017년을 인구 절벽 원년으로 본다. 『금년은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 원년이다}. 《경향신문 2017년 7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7>

인맥 커팅(人脈<영>cutting) 한_영 「구」 인맥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서 오는 회의감으로 인해 관계를 과감히 끊는 일. 『{인맥 커팅을} 시도했던 이유로는 ‘원치 않는 타인에게 내 프로필을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인어 머리(人魚머리) 한_고 「구」 긴 머리에 굵은 웨이브를 넣거나, 긴 머리의 일부나 전체에 푸른색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을 이르는 말. 『최근 유럽에서 광대나 콧등에 붙이는 주근깨 스티커, 파스텔 블루 그라데이션의 {인어 머리}가} 뷰티 트렌드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조선일보 2017년 4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3>

인터넷 고양이 이론(<영>internet고양이理論) 영_고_한 「구」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개보다 고양이가 많이 등장하는 현상을 분석한 이론.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고양이’와 관련된 표현이나 콘텐츠를 가장 많이 찾아 보았다는 외국의 한 연구 결과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아이티(IT) 융합 박람회에서는 ‘{인터넷 고양이 이론}’이라는 이색적인 컨퍼런스가 열렸다. 《주간조선 2017년 5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5>

일코노미(一<영>←economy) 한+영 「명」 일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분야. ‘일인’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채널로 꼽히는 편의점뿐 아니라 슈퍼마켓부터 시내 백화점에서까지 ‘{일코노미}’에 집중하는 추세다. 《아시아경제 2017년 6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188>

일코노미-족(一<영>←economy族) (한+영)+한 「명」 일인 가구를 이루며 혼자서 경제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르면서...{일코노미족} 겨냥한 제품이 증가했다. 《에스비에스 뉴스 2017년 6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77>



자거티브(自<영>←negative) 한+영 「명」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을 드러내는 일. 『지난 23일 중앙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티브이(TV) 토론회 이후 등장한 신조어 ‘{자거티브}’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자소서 포비아(自紹書<영>phobia) 한_영 「구」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는 증세. 자기소개서 공포증이라고도 한다.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이 자기소개서 공포증에 시달리는 {자소서 포비아도} 취업 시즌이면 나타나는 증상이다. 《영남일보 2016년 10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8>

자소설 포비아(自小說<영>phobia) 한_영 「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마치 소설 같은 허구적인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일은 못 배우고 허드렛일만 계속하는 인턴을 일컫는 ‘흙턴’, 자소설 공포증을 의미하는 ‘{자소설 포비아}’ 등 다양한 취업 신조어가 파생되는 상황에서 대학교가 어떤 뚜렷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그 역할론이 매우 모호한 실정이다. 《이비엔 2017년 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장미 대선(薔薇大選) 한_한 「구」 장미가 많이 피는 시기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한국 사회에서 2016년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자 원래 2017년 12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대통령 선거가 5월로 앞당겨져 실시되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지난 10일 헌법 재판소가 000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면서 5월 ‘{장미 대선}’은 현실화됐다. 《뉴스1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920>

재-재입덕(再再入덕) 한+(한+한+고) [재: 재입떡] [재재입덕만[재: 재입떡만]] 「명」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다 포기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또다시 좋아하게 됨을 이르는 말. 『입덕, 재입덕, {재재입덕을} 부르는 위험한 남자 000을 만날 수 있는 ‘OO’은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스포츠조선 2016년 10월》 【덕:<일>←otaku[御宅]】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

적폐 정치(積弊政治) 한_한 「구」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을 일삼는 방식의 정치. 옳지 않은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여당이 000 장관 후보자가 받은 편법 증여 의혹을 자신

에게 제기한 데 대해서도 “논점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적폐 정치.”라고} 거칠게 반박했다. <부산일보 2017년 11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90>

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 한^한 『군사』 징병 종결 처분을 받고 현역, 예비역, 보충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징병 검사 결과 병중 판정을 받은 사람이 40세까지 복무하는 병역을 이르는 말. 원래 ‘제이 국민역’이었던 것이 2016년 5월 의결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O 씨가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된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2016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98 / 2016년 빈도: 2>

젊-꼰 고+고 [젊 : 꼰] 「명」 ‘젊은 꼰대’를 줄여 이르는 말.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젊은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회사원 O 씨는 “입사 초반에 나이가 나보다 세 살 어린 선배가 다짜고짜 반말을 했다.”라며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들어온 막내 직원에게 비슷한 행동을 하는 날 발견한 뒤 ‘나도 무의식중에 {젊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7년 1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1>

제물템(祭物<영>←item) 한+영 「명」 타인이나 상황에 의해 자신이 소중한게 여기는 물건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신 희생된 물건.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미리 만화책·장난감·게임기 등을 마련해 ‘바치는’ 길도 있다. 일명 ‘{제물템}’ 전략이다. <연합뉴스 2016년 9월> 【2016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 / 2016년 빈도: 1>

젠틀^제왕^절개(<영>gentle帝王切開) 영^한^한 『의학』 모체의 배를 가른 후, 태아가 스스로 모체의 배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수술. 제왕 절개 수술보다 덜 위험하며, 산모와 태아의 친밀감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 ¶매체에 따르면 {젠틀 제왕 절개들} 통해 산모는 출산에 기여하고 아이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졌잘싸 고+고+고 [전잘싸] 「명」 ‘졌지만 잘 싸웠음’을 줄여 이르는 말.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이후 네티즌들이 출전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에서 나온 말이다. 『경기가 끝나고 하루가 지난 21일에도 농구 팬들 사이에선 “OO의 ‘{졌잘싸}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조선일보 2017년 3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0>

존똥 고+고 [존똥] [존똥만[존똥만]] 「명」 매우 똥같음. 또는 그런 모양. 『그대로인 얼굴에 푹푹한 느낌이 살아 있는 OOO의 과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지금이랑 ‘{존똥}이네.’”…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2017년 10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줄귀탱 고+고+고 [줄귀탱] 「명」 매우 귀여운 대상을 이르는 말. 『지난 21일 OO는 공식 OO을 통해 “OO, {줄귀탱인데} 안 사고 어떻게 참아?”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인사이트 2017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줄혼-남(卒婚男) 한+한 [줄혼남] 「명」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 사이의 결혼 생활을 그만두는 남자. 『배우 OOO이 최근 {줄혼남으로} 살고 있음을 밝히며 그간 털어놓지 않았던 속마음을 고백했다. 《엑스포즈뉴스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쥔마 로코(쥔마<영><←romantic comedy) 고_영 「구」 아쥔마가 주인공이 되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나 드라마. 『O 피디는...제작 발표회에서 “우리 드라마는 ‘{쥔마 로코}’로 쥔마 캐릭터가 코믹한 사건을 풀어 가는 내용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스포츠조선 2017년 2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3>

쥔마 파탈(쥔마<프><←femme fatale) 고_프 「구」 매력 있는 아쥔마를 이르는 말. 『OOO OO 실장은 “...노출과 직결되는 패션을 망설이지 않고 과감히 도

전하는 4050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섹시한 중년 남성을 칭하는 아재 파탈과 함께 {쥬마 파탈이} 하나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7>

지방리(地方<영>-er) 한+영 「명」 지방에서 사는 사람. 또는 지방 출신의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들은 스스로를 ‘{지방리}라’ 표현하면서 수도권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가 영양가가 있는 ‘진짜’냐?” 등을 문의했다. 《매일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

지휘 근무병(指揮勤務兵) 한_한 「구」 지휘관의 공적 직무 수행을 돕고 비서 역할을 하는 병사. 주로 지휘관실의 시설을 관리하고, 상황실과의 연락을 담당하며, 기타 공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처럼 {지휘 근무병은} 지휘관이 자신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돕지만, 부대에 따라 업무 강도가 천차만별인 탓에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역(使役)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9>

직격 비행체(直擊飛行體) 한_한 「구」 높은 고도에서 다른 미사일을 요격하는 비행체. 표적 미사일에 명중될 시 발생하는 충돌 에너지로 다른 미사일을 요격한다. ¶{직격 비행체는} 이미 속도가 마하 7~8 이상으로 가속된 상태로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머니투데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

직구 정치(直球政治) 한_한 「구」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 지사는...“소수 정치 집단이 전체를 대표하는 과거의 정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점점 커지는 ‘{직구 정치}’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진보, 보수 양쪽 극단보다는 중간에 있는 사안별, 이슈별로 실현시킬 수 있는 협정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테일리안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

직시금-제(直時給制) 한+한 [직씨금제] 「명」 퇴직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 시간 외 근무 수당을 고정적으로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물량 팀 노동자들은 ‘일당제’나 ‘{직시금제}와’ 같은 포괄 임금제로 되어 있어 주휴일도, 가산 수당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5>

짜스(짜<영>←style) 고+영 「명」 ‘짜증나는 스타일’을 줄여 이르는 말. 『OOO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OOO와, OOO에게 ‘{짜스}라고 불리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OOO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아시아경제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1>

짬통 대선(짬통大選) 고_한 「구」 무척 무더운 여름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를 이르는 말. 『만약 현재가 6개월을 모두 채워 판결을 내리면 대선도 그만큼 늦어지고, 8월 한여름, 이른바 ‘{짬통 대선}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엠비엔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51>

大

채권 난민(債券難民) 한_한 「구」 저금리, 낮은 수익률 등의 이유로 채권 시장에서 빠져 나와 다른 투자처를 찾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 그룹의 OOO 주식 전략가는 “{채권 난민들이} 주식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급격한 인플레이 상승이나 성장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낮고 더 높은 배당을 보장하는 주식 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책맥-족(冊麥族) 한+한 [챙맥쪽] [책맥족만[챙맥종만]] 「명」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책맥족'은} 특히 여름밤이 '책맥'하기 딱 좋다고 입을 모은다. 직장인 000 씨는 “요즘처럼 더운 밤은 잠들기 쉽지 않은데 샤워 후에 선풍기를 틀어 놓고 책을 읽으며 맥주 한 잔 마시면 쉽게 잠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7>

청세-권(靑勢圈) 한+한 [청세권] 「명」 숲, 공원 따위의 녹지 공간의 주변에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 『이처럼 분양 시장에서 주변 자연환경이 집값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청세권에} 새로 공급되는 단지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데일리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5>

청-스타그램(靑<영>←Instagram) 한+영 「명」 청와대의 소식을 알리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청스타그램은}…비가 오는 청와대 경관 사진과 함께 “청와대에도 비가 왔습니다.”라는 글도 올렸다. 《매일경제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36>

초대형 폭탄주(超大型爆彈酒) 한_한 「구」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술을 섞어 만든 것. 피로를 회복하거나 잠을 깨우기 위하여 마신다. 『{초대형 폭탄주'가} 심혈관과 뇌 등 인체 건강에 유해하고 마약 등 약물 중독으로 빠지기 쉽게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7>

초딩-미(初딩美) (한+고)+한 [초딩미] 「명」 초등학생처럼 활발하며 장난기 넘치는 사람이 풍기는 귀여운 매력. 『귀여운 얼굴에 아담한 체격, 밝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까지, 000와 000이 {초딩미'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오에스이엔 2017년 4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7>

취업난 포비아(就業亂<영>phobia) 한_영 「구」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는 증세.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반영하여 생

겨난 말이다. 『이렇게 취업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공채 시즌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반영한 ‘{취업난 포비아}’란 말도 등장했다. 《부산일보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8>

취업 인류(就業人類) 한_한 「구」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을 구한 사람들을 ‘인류’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가리키는 ‘독서실 원시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외에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 후 취업을 해야 비로소 인류로 진화한다는 ‘{취업 인류}’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세대를 풍자하기 위해 생겨났다. 《파이낸셜뉴스 2017년 11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3>

취업콥터 맘(就業<영>←helicopter mom) (한+영)_영 「구」 자녀의 취업을 위하여 자녀의 주위에서 모든 것을 챙겨 주고 관여하는 엄마. ‘취업’과 ‘헬리콥터 맘’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취업콥터 맘}으로 불리는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의 취업 문제에까지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두고 극심한 취업난이 빚어낸 쓸쓸한 풍속도라는 의견과 과도한 간섭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헤럴드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3>

층견 소음(層犬騒音) 한_한 「구」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윗집이나 아랫집에 들리는 애완견의 소음.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 소음을 뜻하는 ‘층간 소음’과 개를 뜻하는 한자어 ‘견(犬)’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시민분들 가운데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층견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군요. 《엠비시뉴스 2017년 7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7>

치매 푸어(癡呆<영>poor) 한_영 「구」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치매에 걸리면...{치매 푸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제민일보 2017년 7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3>

치맥지교(<영><←chicken麥之交) 영+한 「명」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사귀. 또는 그런 친구. 치킨과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눈다는 뜻으로,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관포지교’에서 유래한 말이다. 『치느님,...{치맥지교}, 치중 진담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치킨은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머니에스 2017년 11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치중 진담(<영><←chicken中眞談) (영+한)_한 「구」 치킨을 먹는 동안 털어놓는, 진심에서 우리나라 말.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된다는 ‘취중 진담’에서 유래한 말이다. 『치맥지교, {치중 진담을} 나누는 대상은 친구인 경우가 많다.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치킨과 관련해 가장 언급이 많이 된 인물 1위가 친구인 점은 이를 보여 준다. 《세계일보 2017년 6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2>

치-탄(<영><←chicken炭) 영+한 「명」 치킨과 탄산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콜라 시장에 새로운 탄산수가 접목되면서...이름하여 ‘{치탄}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될지 궁금증을 만들어 내고 있다. 《머니에스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6>

ㅋ

카지노 미아(<이><casino迷兒) 이_한 「구」 도박으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카지노 주변에 체류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카지노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카지노 미아들을} 000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스비에스 뉴스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7>

칼박(칼<영><←box) 고+영 「명」 개봉 후에도 구겨지거나 흠집 없이 원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상자. 『실제…박스가 흠집이나 구겨짐이 전혀 없이 칼날 같은 모서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칼박}’ 등 포장 관련 신조어도 있다. 《매일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7>

캠-테크(<영>calm tech) 영+영 「명」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술. 조용함을 뜻하는 ‘캠(calm)’과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스마트 가구는 기술이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캠테크}’가 적용된다. 《헤럴드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59>

캐럴 노가바(<영>carol노歌바) 영_(고+한+고) 「구」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성탄 축하곡인 캐럴의 노래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일. 『이날 촛불 문화제의 압권은 시민들의 ‘{캐럴 노가바}’가 진행된 OO 콘서트였다. 《노컷뉴스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캘렉시트(<영>calexit) 영 「명」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연방에서 독립함을 이르는 말.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확산되었다. 『OOO 당선 이후 OO에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캘렉시트}’란 단어가 수십만 건씩 올라왔다. 《한국경제 2016년 11월》 【←California+exit】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0>

캠프니커(<영>▼←camping picnicker) 영+영 「명」 멀리 떠나지 않고 소풍을 하듯이 도시 인근에서 가볍게 캠핑을 즐기는 사람.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캠프닉을 즐기는 사람들, 이른바 ‘{캠프니커}’들은 무거워도 많은 장비를 챙길 수 있는 오토캠핑과 다르게 캠핑을 떠날 때 소풍을 가는 것처럼 가벼운 짐만 챙긴다. 《동아일보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4>

컨슈머토피아(<영>consumer←Utopia) 영+영 「명」 소비자의 요구가 시장의 모

든 요건을 결정하는 경제 체계.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consumer)’와 이상 세계를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우리는 이른바 ‘{컨슈머토피아}’에 살고 있다. 《조선일보 2017년 3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4>

코렌터(<영>▼←Korea enter) 영 「명」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유 무역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함을 이르는 말. 『그는 “우리는 대외 지향적 경제 개발 전략으로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라며 ‘{코렌터}’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이데일리 2016년 8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22>

코세페(Korea<영>←sale<이>←festa) 영+영+이 「명」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줄여 이르는 말. 대규모 할인 행사와 다양한 문화 행사가 결합된 쇼핑 관광 축제를 뜻한다. 『OO는…최대 10~30%까지만 할인을 하는데 ‘{코세페}’를 맞아 일부 품목은 40% 정도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엑스포즈뉴스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47>

클론^패션(<영>clone fashion) 영^영 『복식』 복제된 듯이 유행하는 패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복제한 물건을 뜻하는 ‘클론(clone)’과 ‘패션(fashion)’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클론 패션}’의 대표적 예시인 ‘알약 룩’과 ‘모나미 룩’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선일보 2017년 6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4>

키갈리^협약(Kigali協約) 영^한 『정치』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수소 불화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2016년 10월 15일 197개국이 르완다의 수도인 키갈리에서 맺은 협약. 『이번 ‘{키갈리 협약}’은 에어컨디셔너와 냉장고의 냉매제로 많이 사용되는 에이치에프시(HFC)의 사용 및 배출에 대해서만 단계적 금지를 규정해 놓은 점이 특징이다. 《뉴시스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6>

ㅍ

탄핵 시계(彈劾時計) 한_한 「구」 탄핵의 절차가 시작되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O당이 21일 의원 총회에서 당론으로 탄핵 추진을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탄핵 시계는} 급격히 빨라졌다. <연합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73>

탈-억제대(脫抑制帶) 한+한 [타릭제대] 「명」 환자를 억제할 때 사용하는 끈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OO 요양 병원은 환자의 존엄성을 지켜 주기 위해 ‘냄새 제로’, ‘낙상 제로’, ‘욕창 제로’, ‘와상 제로’, ‘탈기저귀’, ‘{탈억제대}의’ 4무(無) 2탈(脫)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4 / 2016년 빈도: 1>

탈-팩트(脫<영>fact) 한+영 「명」 사실에서 벗어나다는 뜻으로,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이르는 말. 『이 ‘{탈팩트}라는’ 신조어에는 무엇보다 ‘팩트스러운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고 판단하는 후기 자본주의적인 일상의 한 단면이 담겨 있다. <미디어오늘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7>

톤망진창(<영>tone망진창) 영+고 「명」 자신의 피부색에 맞지 않는 화장과 의상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모습이 어색해 보이는 상태. 색조를 뜻하는 영어 ‘톤(tone)’과 ‘영망진창’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톤을 맞추지 못한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어딘가 어색해 보이는 연예인 사진을 두고 ‘{톤망진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톤-체성(<영>tone體性) 영+한 「명」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조. 개인의 피부색, 머리색 등에 따라 다르며 쿨톤, 웜톤 등이 있다. 색조를 뜻하는 영어 ‘톤

(tone)’과 ‘정체성’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OO은 최근 ‘{톤체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자신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으려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맞춤형 윤곽 메이크업 제품인 OO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2017년 3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

통리-통략(統利統略) 한+한 [통:니통낙] [통리통략만[통:니통냥만]] 「명」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이익이 되는 피나 방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당리당략(黨利黨略)’에서 ‘정당’을 의미하는 ‘당(黨)’ 자를 ‘대통령’을 의미하는 ‘통(統)’ 자로 바꾸어 만든 말이다. 『OOO 최고 위원은…“요즘 O 전 대표의 행동 기준은 ‘{통리통략}.”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5>

투웨이^번^헤어(<영>two-way bun hair) 영^영^영 『복식』 머리카락을 양 갈래로 말아 올린 머리 모양.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사진 속에서 OOO의 딸 OOO는 일명 ‘OO 머리’라 불리는 {투웨이 번 헤어}를 하고 깜찍한 미모를 자랑했다. 《머니투데이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3>

트럼프시트(<영>Trumpxit) 영 「명」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나프타(NAFTA), 에프티에이(FTA) 따위의 무역 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것을 이르는 말. 『OO은 지난 3월 OOO의 보호 무역 기조가 글로벌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트럼프시트} 리스크’라고 명명했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 【←Trump+exit】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트럼프 페이드(Trump<영>fade) 영_영 「구」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경기를 좋게 할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격히 사라지는 현상. 『OO은 “…이제 ‘{트럼프 페이드}’가} 시작됐다.”라며 OOO 행정부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가 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7>

트럼프플레이션(<영>Trumpflation) 영 「명」 2016년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금융계에서는 {트림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파이낸셜뉴스 2016년 11월》 【←Trump+inflation】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454>

트리밍-족(<영>trimming族) 영+한 「명」 수염, 코털, 눈썹 등을 깎고 다듬는 일에 신경을 쓰는 남자. 또는 그런 무리. 다듬는다는 뜻의 영어 단어 ‘트리밍(trimming)’과 접사 ‘-족((族)’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트리밍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만큼 남성들 사이에서도 체모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제품 구매층도 한층 더 다양해졌다. 《아시아경제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10>

트릭 포토 월(<영>trick photo wall) 영_영_영 「구」 인공 암벽 등반 시설물에 자연물의 배경을 입혀 만든 벽. 실제 자연 속의 암벽을 등반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현장 소비자 이벤트로는 실제 자연 속 암벽에 도전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트릭 포토 월} 이벤트와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참여한 사진 공모전 등이 진행되었다. 《국민일보 2016년 9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3>

트페미(<←twitter<영>←feminist) 영+영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를 통해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는 덕질을 위한 정보 수집의 매체이자 또한 ‘{트페미’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페미니즘 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공간이다. 《일다 2017년 7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7>

티티 포즈(<영>▼TT pose) 영_영 「구」 눈물을 흘리는 모양처럼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펴서 눈 아래에 갖다 대는 자세. 인기 있는 걸 그룹의 춤 동작에서 유래하였다. 『특히 {티티 포즈는} 일본 유명 스타들도 따라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한국스포츠경제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0>

II

파미나(<영>▼←party seminar) 영 「명」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연수회나 강습회. ‘파티(party)’와 ‘세미나(seminar)’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정보 기술업계 종사자들은 올해 새롭게 부대 행사로 등장한 ‘{파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매일경제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1>

파파미(파 파美) 고+한 [파파미] 「명」 ‘파도 파도 미담’을 줄여 이르는 말.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좋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말이다. 『OOO는 야구계의 ‘{파파미}’다. 이미 OO 팬들은 그를 ‘기부 천사’라고 부른다. 《중앙일보 2017년 8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18>

팔러 캐비닛(<영>parlor cabinet) 영_영 「구」 미국의 공식 내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들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보좌 및 자문을 담당한다. 미국에서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을 받아 답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들을 이르는 말인 ‘키친 캐비닛’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손님이 집에 오는 경우 보통 응접실이나 거실에서 손님을 대접하지만, 격의 없는 지인은 부엌까지 드나들 수 있는 미국의 문화에서 유래하였다. 『미국 가정에선 일반 손님은 응접실까지만 들이고, 친한 사이만 주방 출입을 허용한다. 이에 빗대 미국 정가에선 OOO 대통령 재임 이후 공식 내각을 ‘{팔러 캐비닛}’, 비공식 자문위원을 ‘키친 캐비닛’으로 부른다. 《경향신문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3>

패싱 코리아(<영>passing Korea) 영_영 「구」 주변국들이 한국을 고려하지 않고 대북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는 일. 주로 북핵 등 전 세계의 안보와 관련된 논의들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을 말한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을

영어의 어순에 맞게 새로 만든 말이다. 『결국 000 정권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배제당하는 {팩싱 코리아를} 자초하고 말았다. 《아시아엔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2233>

팩력배(<영><←fact力輩) 영+한 「명」 사실에 입각하여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하는 사람을 폭력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000의 또 다른 별명은 팩격기, {팩력배이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8>

팩트-광(<영><fact狂) 영+한 「명」 정확한 사실을 열광적으로 즐기는 병적인 버릇. 또는 그런 사람. 『최근 00은 20대를 대표하는 2017년 키워드의 하나로, 사실을 매번 확인하려 한다는 ‘{팩트광}’을 꼽았다. 《연합뉴스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1>

팩트리엇(<영><←fact patriot) 영+영 「명」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 사실을 뜻하는 ‘팩트(fact)’와 미사일의 한 종류인 ‘패트리엇 미사일(patriot missile)’의 비규범 형태인 ‘팩트리엇 미사일’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00당 000 의원이 느닷없이 직격탄을 날려 {팩트리엇가} 됐다. 《한강타임즈 2017년 6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2>

팩트리엇 미사일(<영><▼←fact patriot missile) 영_영 「구」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는 행위. 사실을 뜻하는 ‘팩트(fact)’와 미사일의 한 종류인 ‘패트리엇 미사일(patriot missile)’의 비규범 형태인 ‘팩트리엇 미사일’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요즘 온라인에선 팩트로 무장한 ‘{팩트리엇 미사일}’이 이곳저곳 날아다닌다. 《위키트리 2017년 6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7>

팩트 폭격(<영><fact爆撃) 영_한 「구」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팩트 폭력, 팩트 폭행.

『1000 씨를 향한 아줌마들의 {팩트 폭격이} 네티즌들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 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7년 1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63>

팩트 폭력(<영>fact暴力) 영_한 「구」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팩트 폭격, 팩트 폭행. 『1000의 어머니가 딸에 대해 {팩트 폭력을} 날렸다. 《케이비에스연예 2017년 4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92>

팩트 폭행(<영>fact暴行) 영_한 「구」 사실에 입각해 상대방이 감추고 싶어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행위.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팩트 폭격, 팩트 폭력. 『1000이 일반인들의 {팩트 폭행에} 당황했다. 《엠비시연예 2017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00>

팩-폭(<영>←fact暴) 영+한 「명」 ‘팩트 폭력’을 줄여 이르는 말. 『O 군은 “나에게 낮은 순위를 매긴 친구에게 화를 내면 오히려 {팩폭을} 당해 발끈했느냐.’라며 놀림당한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7년 7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20>

팬텀 세대(<영>phantom世代) 영_한 「구」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소통하여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대. 유령을 뜻하는 ‘팬텀(phantom)’과 ‘세대’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본 2016년 한 해를 {팬텀 세대’가}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브릿지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3>

페모크라티(<독>femokratie) 독 「명」 여성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에서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장치. 여성주의를 뜻하는 독일어 ‘페미니즘(feminismus)’과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티(demokratie)’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페모크라티’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곳곳에서 여성 지도자의 활약이 돋보였지만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실패로 끝났다. 《여성신문 2017년 1월》 【←

feminismus+demokratie】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9>

페버타이징(<영>femvertising) 영 「명」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차별이 반영되지 않는 광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성적 대상화를 경계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강조하는 {페버타이징이} 광고계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한겨레 2016년 11월> 【←feminism+advertising】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4>

펫족(<영>←family pet族) 영+한 「명」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그러나 {펫족이} 늘어난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스포츠동아 2017년 7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5>

편의점 카페족(便宜店<프>café族) 한_(프+한) 「구」 편의점에서 커피를 즐기거나,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즐겨 이용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편의점에서 커피를 마시는 {편의점 카페족이} 늘면서 도시락에 이어 커피가 편의점 효자 상품으로 뜨고 있다. <국민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6>

편퇴족(便退族) 한+한 [편퇴족/편퇴족] [편퇴족만/편퇴족만] 「명」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러 가볍게 먹을 음식 따위를 사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지난해 말 한 취업 포털이 직장인 40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9퍼센트가 자신을 ‘{편퇴족}이라고」 답했다. <한겨레 2017년 3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66>

포켓코노미(▼Pokemongo<영>←economy) 영+영 「명」 증강 현실 게임 ‘포켓몬고’로 파생된 경제 효과를 뜻하는 말로, 포켓몬고에 나타나는 캐릭터가 출현하는 주변 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게임 이름인 ‘포켓몬고(Pokemongo)’와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economy)’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산업계 전반에 ‘{포켓코노미}’를 극대화하려는 ‘OO 마케팅’이 한창이다. <스포츠동아 2017년 2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93>

포프리카(浦←Africa) 한+영 「명」 여름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아 매우 더운 포항을 아프리카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포항과 아프리카를 결합한 신조어인 ‘{포프리카}에서’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뎌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오마이뉴스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프랑켄슈타인^바이러스(Frankenstein<영>virus) 영^영 『생명』 생물이 아니지만 생물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무생물의 바이러스가 생물과 유사한 기능을 갖게 된 것이, 소설 속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생물이 아닌 것에 생명을 불어 넣은 것과 비슷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세포막을 갖고 있는 ‘진핵생물’과 세포막이 없는 ‘원핵생물’ 그리고 ‘바이러스’로 나뉜다. 과학계에서는 이를 ‘생명의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는} 이와 별도의 제4의 생명일 가능성이 높다. <매일경제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프로 놀람러(<영>←professional놀람<영>←er) 영_(고+영) 「구」 시각이나 청각 등 특정한 자극으로 인해 평소와 다르게 심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이르는 말. 『한편 000는 이날 방송된 00 특집에서...귀신과의 만남에 소리치고 욕까지 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 ‘{프로 놀람러}’로’ 등극했다. <부산일보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6>

프로 야근러(<영>←professional夜勤<영>←er) 영_(한+영) 「구」 직장에서 야근을 자주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프로 야근러}인’ 직장인 O 씨에게 택시귀가는 언젠가부터 일상이 되어 버렸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0>

프로 할말러(<영>←professional할말<영>←er) 영_(고+영) 「구」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등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일 인공 지능 기반 빅 데이터 분석 업체 00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23일까지 블로그와 00를 분석해 2017년은 ‘{프로 할말러}의’ 시대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

빈도: 12>

프로 혼밥러(<영><←professional 혼 밥<영><←er) 영_(고+영) 「구」 혼자 밥을 잘 먹는 사람을 이르는 말.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프로 혼밥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혼밥 고깃집을 기자가 직접 가 봤다. 《머니투데이 2017년 3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8>

프로 혼참러(<영><←professional 혼 參<영><←er) 영_(고+한+영) 「구」 시위나 집회 따위에 혼자 잘 참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곳곳에는 어린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시민이나 홀로 집회에 참석한 이른바 ‘{프로 혼참러}’까지 눈에 띈다. 《노컷뉴스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9>

프롭테크(<영><←property tech) 영+영 「명」 부동산 거래 또는 관리에 사용되는 정보 산업 기술. 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임대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을 뜻하는 ‘프라퍼티(property)’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tech)’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첫 발표를 맡은 000 교수는 “00이나 00 등 평가액 10억 달러가 넘는 해외 {프롭테크}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통 산업과 신기술이 결합할 수 있는 시장 여건 외에 공공 정보의 완전 공개와 부동산 스타트업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역설했다. 《조선비즈 2017년 5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57>

프리랜서 바이오 해커(<영>free-lancer bio hacker) 영_영_영 「구」 유전자 편집 기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사람. 『000 박사는 “앞으로는 {프리랜서 바이오 해커들이}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팩트올 2016년 8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4>

피난처 도시(避難處都市) 한_한 「구」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를 처벌하지 않고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 1월 000 대통령은 {피난처 도

시를} 범죄의 온상이라고 지목하고, 해당 지역 정부에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미주한국일보 2017년 11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75>

피르가즘(皮<프>←orgasme) 한+프 「명」 피지를 제거하며 느끼는 쾌락을 이르는 말. ‘피지’와 ‘오르가즘(orgasme)’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피르가슴’이다. 『{피르가즘}을} 느끼고 싶다면, OO팩을 추천합니다. 《매일경제 2017년 2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11>

피젯 스피너(<영>fidget spinner) 영_영 「구」 피젯 토이의 하나로, 날개가 달린 작은 장난감.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손으로 돌리면 빠르게 회전한다. ⇒규범 표기는 ‘피젯 스피너’이다. 『{피젯 스피너는}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경제 2017년 5월》 【2017년 2월 신어】

피젯 토이(<영>fidget toy) 영_영 「구」 아이 또는 성인들이 한 손에 쥐고 주무르거나 눌러서 돌릴 수 있는 작은 장난감. ⇒규범 표기는 ‘피젯 토이’이다. 『피젯 스피너는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한 손에 쥐고 반복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 {피젯 토이의} 한 종류다. 《노컷뉴스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피젯 스피너(<영>fidget spinner) 영_영 「구」 피젯 토이의 하나로, 날개가 달린 작은 장난감. 가운데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손으로 돌리면 빠르게 회전한다.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유행하던 {피젯 스피너가} 올해부터 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알려지자 OO도 지난 5월부터 본격 판매를 시작했다. 《이데일리 2017년 6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660>

피젯 토이(<영>fidget toy) 영_영 「구」 아이 또는 성인들이 한 손에 쥐고 주무르거나 눌러서 돌릴 수 있는 작은 장난감. 『{피젯 토이는} 지난해 말부터 서구권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59>

픽미 세대(<영>pick me世代) 영_한 「구」 자신의 특별한 행동이나 외모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에서 유래하였다. 『O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20대를 ‘{픽미 세대’라고} 정의했다. 《중앙일보 2016년 11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108>

핑거 프린스(<영>finger prince) 영_영 「구」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직접 찾지 아니하고 남에게 물어보는 남자. 『‘핑프’라는 신조어는 {핑거 프린스}, 혹은 핑거 프린세스의 줄임말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알려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뜻합니다. 《와이티엔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0>

ㅎ

한한-령(限韓令) 한 [한 : 할령] 「명」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 상품을 수입하는 것과 한국 연예인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 중국 국민들이 한국으로 단체 관광을 가는 것 등을 제한하는 명령. 『O 대표는 {한한령으로} 중국 시장의 벽이 높아지자 동남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머니투데이 2016년 12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318>

할류 열풍(韓流烈風) (고+한)_한 「구」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고가의 유아용품을 구매해 소비 시장의 주류를 이루는 현상.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해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열렬히 좋아하고 선망하는 현상을 뜻하는 ‘한류 열풍’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할류 열풍을} 일으키는 할빠, 할마들은 언제나 멋지다. 《스포츠경향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4>

할-아재 고+고 [하라재] 「명」 노년과 중년 사이의 남성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보통 60대 중후반의 남성들을 말한다. ‘할아버지’와 ‘아재’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이들은 ‘아재’라는 단어로는 설명이 부족한 ‘{할아재}급의’ 드립력과 몸짓으로 또 한번 웃음 폭탄을 투척할 예정인 가운데, 저녁 식사를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친다. 《한국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2>

해군-콩(海軍콩) 한+고 [해 : 군콩] 「명」 미국에서 해군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 식량으로 사용되는 흰 강낭콩. 『일명 ‘{해군콩}’이라고도 불리는 이 콩은 미해군의 완벽한 영양 보충원으로 쓰여 네이비 빈(navy bean)으로 불리게 되었으며…저항성 전분이 함유되어 있다. 《디지털타임스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3>

해시-크래싱(<영>hash crashing) 영+영 「명」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에서 평범한 해시태그를 달아 의도적으로 유해한 게시물에 접근하도록 하는 일. ⇒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OOO 총괄은 “문제가 되는 특정 단어는 즉시 차단하거나 수를 줄인다.”라며 “정상적인 해시태그라도 내용이 문제되는 ‘{해시크래싱}’은」 신고 전에 미리 삭제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6>

해외 차례족(海外차禮族) 한_(고+한) 「구」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말이다. 『아예 가족이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명 ‘{해외 차례족}’이」 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의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매일경제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7>

해피-벌룬(<영>happy balloon) 영+영 「명」 일시적인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아산화 질소를 넣은 풍선. =해피풍선. 『정부가 {해피벌룬을}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6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658>

해피-풍선(<영>happy風船) 영+한 「명」 일시적인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아산화 질소를 넣은 풍선. =해피별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술집에서 {해피풍선이라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티브이조선 2017년 3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97>

핵-존잘(核존잘) 한+고 [핵존잘] 「명」 매우 잘생김. 『이를 본 네티즌들은 “OOO, {핵존잘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톱스타뉴스 2017년 5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행복 회로(幸福回路) 한_한 「구」 불행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행복한 상상을 하는 정신적 기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O 씨는 “우울할 때마다 {행복 회로} 돌려 ‘결혼 안 하면 책임도 줄고 부모님에게 손 벌릴 일이 없어 행복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7년 4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51>

향테리어(香<영><←interior) 한+영 「명」 꽃, 향,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로 실내를 장식하는 일. 또는 실내 장식용품. 『춘분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찾아오면서 겨우내 배었던 냄새를 없애고 싱그러운 향으로 공간을 채우는 {향테리어가} 새로운 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일보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7>

허파진(허파<영><←jeans) 고+영 「명」 ‘허벅지가 파인 진’을 줄여 이르는 말. 허벅지 부분에 구멍을 낸 청바지를 말한다. 『찢청을 입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자가 평일 ‘{허파진}’을 입고 출근하는 실험을 해 봤다. 《매일경제 2017년 3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4>

헌팅 콘텐츠(<영>▼hunting contents) 영_영 「구」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헌팅과 관련된 디지털 정보. 주로 인터넷 방송에서 다루는, 길거리에서 애인을 찾는 방법이나 그 내용을 이른다. 『한편 O 씨와 O 씨는 일명 ‘{헌팅 콘텐츠}’를 처음 인터넷 방송에 도입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3월》 【2016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3 / 2016년 빈도: 1>

호모 고시오패스(<라>▼homo考試<영>←sociopath) 라_ (한+영) 「구」 오랜 고시 준비로 인해 주변 일에 몹시 예민해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석 달 전 만난 그는 ‘{호모 고시오패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동아일보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

호모 스펙타쿠스(<라>▼homo<영>spectacus) 라_영 「구」 취업에 필요한 학력, 학점, 토익 점수에 집착하는 취업 준비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은…스펙 쌓기에 목숨을 거는 ‘{호모 스펙타쿠스’가} 되기도 했다. 《동아일보 2017년 6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7>

호모 인턴(<라>▼homo<영>intern) 라_영 「구」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인턴 생활만 반복하는 취업 준비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청년들 사이에 ‘{호모 인턴}’, ‘부장 인턴’이란 용어가 회자된단다. 인턴을 위한 인간이라거나 인턴을 워낙 많이 해 실무 능력은 부장급이란 패러디다. 《국민일보 2016년 10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3>

호모 체어쿠스(<라>▼homo <영>chair←pithecus) 라_영 「구」 오랜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인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로 장시간 동안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장인을 가리킨다. 『이번에 선보인 신규 티브이 광고 캠페인은 ‘{호모 체어쿠스’라는} 참신한 콘셉트를 활용했다. 《머니투데이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15>

호모 파덴스(<라>▼homo fadens) 라_라 「구」 인간을 보는 관점 가운데, 인간의 본질이 놀면서 일하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견해. 일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와 유희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그는 “놀면서 일하는 인간, 이른바 ‘{호모 파덴스’의} 시대가 열리면서 4차 산업 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라고…강조했다. 《중앙일보 2017년 5월》 【←homo faber+homo ludens】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5>

호텔 하우스 인테리어(<영>hotel house interior) 영_영_영 「구」 집 안을 호텔처럼 꾸미는 일. 쾌적한 호텔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인기를 끌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특급 호텔에서 경험한 편안함을 집에서도 느끼고자 ‘{호텔 하우스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이들도 적잖이 늘고 있다. 《머니 2017년 9월》 【2017년 2월 신어】 <2017년 빈도: 18>

혼골-족(혼<영>←golf族) (고+영)+한 「명」 혼자 골프를 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마침 {혼골족을} 위한 골프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O 씨는 바로 참가 신청서를 냈다. 《중앙선데이 2017년 4월》 【2016년 9월 신어】 <2017년 빈도: 52>

혼디(혼<영>←dessert) 고+영 「명」 혼자서 디저트를 먹음. 또는 그렇게 먹는 디저트. 『‘혼밥’, ‘혼술’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 혼자 즐기는 디저트인 ‘{혼디}까지’ 유행이 확산되며, 업계에서는 다양한 디저트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2016년 12월》 【2016년 12월 신어】 <2017년 빈도: 107>

혼모노-족(<일>honmono[本物]族) 일+한 「명」 한 분야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집착하여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OO의 상영 후기를 보면, 이른바 {혼모노족의} 매너 없는 행동 목격담이 많다. 《한겨레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5>

혼뱅(혼<영>←bank) 고+영 「명」 은행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은행 업무를 봄. 또는 그렇게 보는 은행 업무. 『3일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 은행인 OO는 {혼뱅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이데일리 2017년 4월》 【2017년 4월 신어】 <2017년 빈도: 52>

혼뱅-족(혼<영>←bank族) (고+영)+한 「명」 은행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혼뱅족들의} 추세를 볼 수 있는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 수는 매 분기마다 사상 최대를 갈아

치우고 있다. 《이데일리 2017년 6월》 【2017년 6월 신어】 <2017년 빈도: 11>

혼참-족(혼參族) (고+한)+한 [혼참족] [혼참족만[혼참중만]] 「명」 시위나 집회에 혼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이날 ‘혼자 온 사람들’의 깃발 아래 모인 {혼참족들은} 40여 명이었다. 《한겨레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6>

혼-창(혼창) 고+한 [혼창] 「명」 혼자서 노래를 부름. 또는 그렇게 부르는 노래. 『동진 노래방이 다시 인기를 끄는 것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자 노는 문화’가 퍼진 것도 한 요인이다. 젊은 층의 개인적 성향이 ‘혼밥’, ‘혼술’ 뿐만 아니라 ‘{혼창}까지’ 확산했다는 설명이다. 《국제신문 2016년 8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13>

혼커(혼<영>←coffee) 고+영 「명」 혼자서 커피를 마심. 또는 그렇게 마시는 커피. 『‘나 홀로 열풍’은 혼밥과 혼술, {혼커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신문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20>

혼행-족(혼行族) (고+한)+한 「명」 혼자서 여행을 가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부산이 ‘{혼행족}의’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7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508>

홀캉스-족(홀<프>←vacance族) (고+프)+한 「명」 혼자서 휴가를 즐기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요즘은 홀로 휴가를 만끽하는 {홀캉스족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아시아경제 2016년 8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3>

화성 얼음집(火星얼음집) 한_고 「구」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화성의 집. 화성의 기후에 맞게 설계되어 화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집이다. 『‘{화성 얼음집}의’ 외벽은 두꺼운 얼음으로 설계됐다. 《에듀동아 2017년 1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4>

화이트^프래질리티(<영>white fragility) 영^영 『사회 일반』 인종적 편견 때문에 흑인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백인의 방어적 태도. 『OO에 따르면, {화이트 프래질리티는} 사회적 특권을 위협받고 있는 백인의 방어 행동을 일컫는다. <마이데일리 2017년 5월> 【2017년 5월 신어】 <2017년 빈도: 3>

핫김 비용(火김費用) (한+고)_한 「구」 화가 나는 기화나 계기로 인해 충동적으로 쓰는 비용. 『출근 후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은 직장인 O 씨는 ‘{핫김 비용’으로} 신상 구두를 구매하려다 다시 마음을 접었다. <이데일리 2017년 9월> 【2017년 3월 신어】 <2017년 빈도: 96>

핫술-족(火술族) (한+고)+한 [화 : 술족/환 : 술족] [화 : 술족만[화 : 술종만]/환 : 술족만[환 : 술종만]] 「명」 핫김에 술을 마구 마시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최근 ‘OOO 게이트’의 영향 등으로 ‘{핫술족’이} 늘면서 술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일보 2016년 11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36>

휘게 라이프(<덴>hygge<영>life) 덴_영 「구」 소박하면서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사는 생활.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휘게(hygge)’와 삶을 뜻하는 ‘라이프(life)’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한국에서도 {휘게 라이프를} 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겨레 2016년 12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258>

휘게-스럽다(<덴>hygge스럽다) 덴+고 「형」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소소한 즐거움이나, 편안함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낄 만하다. 편안함, 따뜻함, 아늑함, 안락함을 뜻하는 덴마크어 ‘휘게(hygge)’와 형용사 파생 접미사 ‘스럽다’를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달달한 케이크와 차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 {휘게스러운} 공간이 된다. <울산매일신문 2017년 3월> 【2016년 11월 신어】 <2017년 빈도: 8>

휘게 크로그(<텐>hygge krogh) 텐_텐 「구」 편안함이나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집 안의 작은 공간. 주로 주방이나 거실의 구석에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공간을 뜻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예컨대 덴마크에서는 주방이나 거실의 아늑한 구석 공간을 ‘{휘게 크로그}’,…라고 말한다. 《조선비즈 2016년 12월》 【2016년 10월 신어】 <2017년 빈도: 4>

휘겔리케이션(<텐>hyggeligt<영>←vacation) 텐+영 「명」 편안하거나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기는 일. 『최근 휴가를 즐기는 방법으로 ‘{휘겔리케이션’이} 뜨고 있다. 《조선일보 2017년 7월》 【2017년 1월 신어】 <2017년 빈도: 10>

휴보젠트(<영>▼←humanized robotic agent) 영+영 『기계』 인간이 직접 하던 행정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지능화된 프로그램.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내재한 로봇. 『{휴보젠트를} 지원하는 인프라로…{휴보젠트가} 행정에 내재화되는 스마트 정보화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이 절실하다. 《테이터넷 2016년 7월》 【2016년 7월 신어】 <2017년 빈도: 9>

훈턴(훈<영>←intern) 고+영 「명」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허드렛일만 반복해서 하는 인턴. 가난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태어나 좋지 않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흙수저’와 회사나 기관 따위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에 앞서 훈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인턴’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금수저와 흙수저처럼 ‘금턴’과 ‘{훈턴’은} 인턴 자리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 준다. 《연합뉴스 2016년 9월》 【2016년 8월 신어】 <2017년 빈도: 107>

Ⅱ.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1. 2008년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1.1.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목적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는 2015년도에 도입된 신어 조사 사업의 새로운 과업으로, 10여 년 전에 수집된 신어가 현재까지 사용되는 사용 양상 및 사용 추이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매년 300~500여 개 정도로 수집되는 신어가 모두 동등한 중요도와 가치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수집된 신어들이 어떠한 사용 양상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그것들 중 얼마만큼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며, 안정적인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에 걸친 통시적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어에서 신어의 사용 추이를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빈도와 분포를 분석한 시도는 2015년 사업에서 2005년과 2006년에 조사·수집한 신어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것이 처음이며, 2016년 신어 조사 사업에서 2007년 수집 신어들을 대상으로 사용 추이를 조사한 이후 올해가 세 번째 해이다. ‘2017년 신어 조사’ 사업에서는 2008년에 수집한 신어의 사용 추이를 확인하고, 개별 항목들의 사용 추이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008년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개요>

- ㄱ. 조사 대상 신어: 2008년 신어(475개)
- ㄴ. 사용 추이 조사의 대상 기간: 10년간(2007년~2016년 12월)
- ㄷ. 사용 추이 조사의 대상 매체: 130개 내외의 언론 매체

조사 대상 기간의 시작점을 2007년으로 잡은 이유는 첫째, 2008년 신어가 엄격하게 2008년에 생겨난 신어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 웹 말뭉치의 분석 결과 2007년도 이전의 사용 예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2017년 조사 시점에서 2017년은 한 해(12개월)가 다 지나지 않았으므로 완

전한 사용 추이를 살필 수 없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정확히 10년 동안의 연도별 빈도 조사 결과를 주 자료로 삼아 2008년 신어의 사용 추이를 조사하였다.

1.2. 신어 사용 추이 조사의 대상 및 방법

신어 사용 추이 조사를 위해 본 연구진은 2008년에 수집된 신어 목록을 기반으로 웹 크롤링 말뭉치를 구축하고, 개별 항목의 동형어, 띄어쓰기 등의 변이를 고려한 재분석의 과정을 거쳐 신어의 사용 추이를 분석하였다.

- (1) ㄱ. 1차 조사 대상: 2008년 신어(475개)
 ㄴ. 2차 조사 대상: 2008년 신어(458개)
- (2) 사용 추이 조사의 범위: 수집 시기 (2007년)~현재(2016년 12월 기준)
- (3) 조사 방법 및 절차
 - ㄱ. 458개 신어 각각의 검색 결과에 대한 웹 크롤링
 - 일치 연산자(“”) 사용, 같은 웹 주소로 연결된 기사는 하나만 수집
 - ㄴ. 동형어 및 부분 형태 일치어 재분석
 - ㄷ. 연도별 빈도 산출

(1ㄱ)의 1차 조사 대상은 2008년에 조사된 신어 47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ㄴ)의 2차 조사 대상은 1차 조사 대상 중에서 2017년 현재(6월 기준) 웹상에서 용례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대상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는 신어들로, 본 조사의 실제적인 조사 대상이 된다. (1ㄴ)은 (1ㄱ)의 475개 신어에서 동형어 변별 등 현실적으로 사용 추이 분석이 불가능한 신어 12개를 제외한 458개이다. 2008년 신어 사용 추이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우선 2008년 신어 총 458개 각각에 대한 검색 결과를 웹 크롤링하여 말뭉치로 구축했다. 웹 크롤링의 대상이 된 자료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 카테고리 내 [언론사 뉴스]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130개 내외의 언론 매체이다.

(4) 네이버 뉴스 웹 크롤링 말뭉치의 구성(125개 매체)

강원일보, 게임메카, 경향신문, 골닷컴, 골프다이제스트, 국민일보, 기자회견보, 노컷뉴스, 뉴스1, 뉴스엔, 뉴스위크 한국판, 뉴시스, 데일리e스포츠, 데일리안, 동아일보, 디스이즈게임, 디스패치, 디지털데일리, 디지털타임스, 레이디경향, 로이터, 마니아리포트, 마이데일리, 매경이코노미, 매일경제, 매일신문, 머니S, 머니투데이, 몬스터짐, 문화일보, 미디어오늘, 베스트일레븐, 부산일보, 블로터,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스타뉴스, 스타캐스트,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스포츠조선, 스포츠타임스, 스포탈코리아, 스포티비뉴스, 시사IN, 신동아, 신화사 연합뉴스, 씨네21, 아시아경제, 아이뉴스24, 아이즈 ize, 앳스타일, 엑스포즈뉴스, 엠스플뉴스, 엠파이트, 여성신문,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오마이뉴스, 월간 산, 윈터뉴스 코리아, 이데일리, 이코노미스트, 인벤, 인터풋볼, 일간스포츠, 일다, 전자신문, 점프볼, 정책브리핑, 조선비즈, 조선일보, 조세일보, 조이뉴스24, 주간경향, 주간동아, 주간조선, 중앙SUNDAY, 중앙일보, 참세상, 채널A, 코리아넷, 코리아헤럴드, 코메디닷컴, 테니스코리아, 텐아시아, 티브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 포모스, 포포투, 풋볼리스트, 프레시안, 한겨레, 한겨레21, 한경비즈니스, 한국경제, 한국경제TV, 한국일보, 헤럴드POP, 헤럴드경제, 헬스조선, AP연합뉴스, enews24, EPA연합뉴스, JTBC, JTBC GOLF, KBO, KBS 뉴스, KBS 연예, MBC 뉴스, MBC연예, MBN, MK스포츠, OBS TV, OSEN, SBS CNBC, SBS funE, SBS 뉴스, TV리포트, TV조선, YTN, ZDNet Korea

다음으로, 사용 추이의 조사를 위한 빈도 분석에서 동형어의 가능성이 있는 예들에 대해서는 규칙을 주거나 수작업을 통해 정제하였다. 이러한 예들은 주로 용례가 너무 많아 동형어 변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즉 ‘먹질, 공투’ 등 2음절 신어나 ‘명태, 받아먹기’와 같은 동형어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사용 추이 조사에서 배제한 신어는 2008년 신어 전체 475개 중 17개에 해당한다. 조사에서 배제한 신어의 구체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5) 사용 추이 조사에서 배제한 신어

게임애드, 공투, 금융쇼핑, 기품, 눈길끌기, 먹질, 명태, 미피, 받아먹기, 백지상태, 베플, 성지, 성지순례, 창문형, 크루거, 티이이, 편플

이와 함께 본 연구진은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나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와 같은 구 단위 신어의 실제 사용에서 띄어쓰기가 임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개별 표제어에 따라 확률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표기의 변이형 목록을 작성하여 대상 매체에서 말뭉치를 추출하여 빈도를 계수하였다.

1.3. 2008년 신어의 사용 추이 분석

1.3.1. 임시어로서의 신어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의 구분

1.2에서 제시한 분석 절차에 따라 2008년 신어의 연도별 사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연도별 빈도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2008년도 신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신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빈도(10년)	출현연도수	실제출현기사수
1	녹색성장	30	3952	5714	4364	4327	3301	2462	1434	1524	1543	28651	10	16172
2	토크콘서트	21	8	268	920	3445	4135	4069	6943	2296	2414	24519	10	12516
3	녹색산업	14	1098	4811	732	4088	1991	671	727	561	467	15160	10	9930
4	프랜들리	279	5318	1803	1039	1181	500	800	887	734	670	13211	10	8949
5	사이버모욕죄	0	4435	2117	62	45	31	19	28	22	34	6793	9	3326
6	전자종이	727	555	1590	1556	396	583	191	136	120	127	5981	10	2537
7	불빛축제	427	409	590	583	703	624	880	603	568	523	5910	10	2739
8	영어몰입교육	0	2475	482	164	167	158	420	479	76	258	4679	9	3015
9	검역주권	0	3935	131	83	49	337	27	10	77	20	4669	9	3402
10	그랑셀카	0	4	0	1	63	103	500	3025	550	321	4655	8	1915
11	녹색일자리	0	34	2032	1149	365	455	205	125	107	59	4531	9	2433
12	학습지도요령해설서	0	2090	535	153	224	87	37	939	285	115	4465	9	3326
13	공정여행	7	39	683	594	879	464	546	409	420	420	4461	10	1552
14	키스방	1	8	317	505	1396	451	603	551	355	202	4389	10	1856
15	몰입교육	0	573	613	312	267	246	535	570	201	348	3665	9	2371
16	매법	188	1200	681	195	131	163	251	219	326	282	3636	10	2477
17	트렌드세터	12	41	51	139	106	50	65	111	1261	972	2808	10	2468
18	신상녀	0	920	453	245	173	59	64	18	158	24	2114	9	1381
19	교체지수	5	82	28	204	68	907	10	29	403	312	2048	10	1375
20	규제일몰제	218	338	427	68	37	60	135	336	58	68	1745	10	1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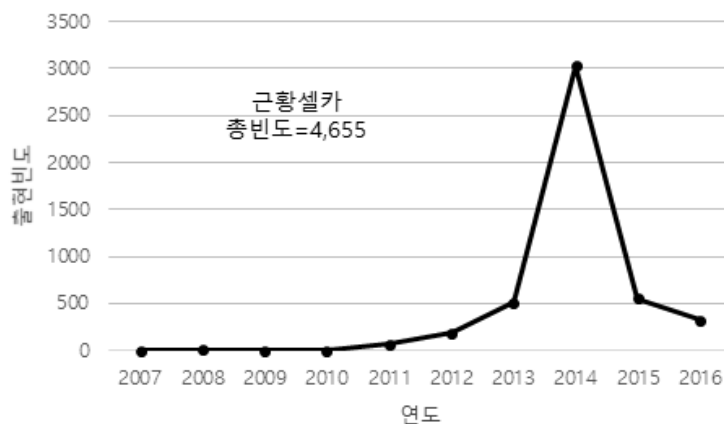
<그림 1> 2008년 신어의 사용 빈도_고빈도순

분석 대상 신어의 10년 동안의 빈도를 분석했을 때 특징적인 사실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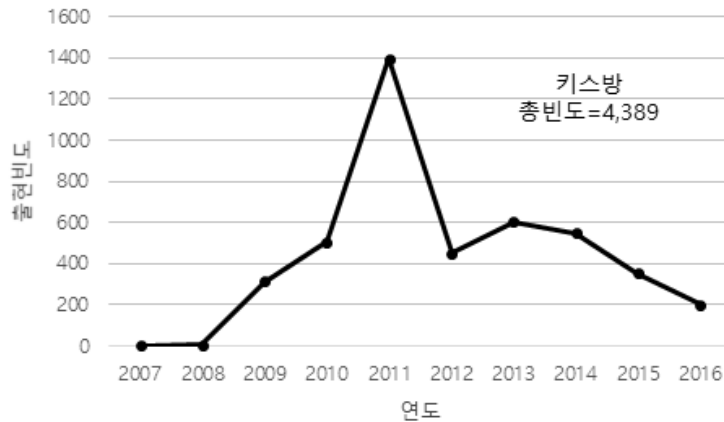
첫째, 10년 동안의 총빈도와 연도별 빈도는 비례관계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총빈도로서 고빈도가 연도별 고빈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08년 신어 중에서 2008년 한 해에 각각 4435회의 높은 빈도를

보이며 10년간 총빈도 순위 5위를 차지한 ‘사이버모욕죄’는 2016년까지 빈도가 낮아진 반면, 총빈도 순위 13위를 차지한 ‘공정여행’은 2008년 39회의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지만 이후 2016년까지의 사용 빈도가 점점 상승하는 등 다양한 사용주기를 보인다.

둘째, 신어 조사의 해당 연도를 제외하고는 단 1회도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났는데(154개), 이들 중 대부분은 사용되기 시작한 연도에 한두 번 출현하여 일시적으로 쓰였지만, ‘쌍방향통신요금제’(68회), ‘만민대로락’(45회)와 같이 해당 연도에 10회 이상 쓰이다가 다음 해부터 아예 사라진 예들도 있다. 해당 연도에만 쓰인 신어는 주로 일시적 사건이나 현상 등을 가리키거나 일시적 유행어로 쓰이다가 생명력을 상실한 것들이다. 반면에 근황셀카(4회), 키스방(8회)은 2008년 당시 10회 이하의 빈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용빈도가 급상승하여, 총 4,000회 이상의 고빈도로 나타나 10년간 총 빈도로 15위권 내에 들었다.



<그림 2> ‘근황셀카’의 사용 추이



<그림 3> ‘키스방’의 사용 추이

이는 조사 당시의 빈도가 신어의 생산성이나 신어 사용의 지속성 여부를 담보하지 못하며, 신어가 어휘 체계에 정착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생성 당시의 일시적인 사용 양상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조사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의 ‘총빈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사용 분포’, 그리고 빈도가 높더라도 제한된 텍스트에서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사 건수’의 기준을 마련하여, 1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신어들로 한정하여 그 구체적인 사용 추이의 양상을 살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6)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의 판별 기준

- ㄱ. 총빈도: 20회 이상 출현
- ㄴ. 기사 건수: 10건 이상의 기사에 출현
- ㄷ. 연도별 분포: 5개 연도 이상에 분포

(6)의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와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를 대상으로 4장에서 사용 추이에 따라 세부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조사 대상 전체 신어 458개 가운데 (7)에서 제시한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가 324개로 약 70%에 달한다. 이 중 (6)의 기준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유형은 256개로, 조사 대상의 약 56%에 달한다. 연도별로 조사되는 신어의 절반 이상이 조사 시기를 전후로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소멸되는 임시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7) 2008년 신어 중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총 324개, 가나다순)

가치투자꾼, 간식존, 감각세대, 감성캐팅, 개성표현꼴, 갠전, 갯닭음, 건보선택권, 결측, 경제력남, 경지하철, 경차전용구간, 경황감, 결그림, 계발형직장인, 고고걸, 고고패션, 고민탄선, 곤두박두질, 골드미시족, 골방누리꾼, 골수페미, 골태, 공감물, 공동귀농, 공동투자족, 공방법, 공상증, 공주족, 공통비자제, 공투족, 과로지수, 광대스럽다, 광태스럽다, 괴성스타, 교사의존학생, 교수사냥, 교태녀, 구매여행족, 국경허들, 국민만족도지수, 궁그루, 귀씨름, 금벼락, 금연놀이터, 금월세, 기름뭉치, 기생충요법, 길장사, 까치외교, 까칠남녀, 까칠부인, 캄캄시장, 꽃바퀴, 꽃사자, 꿈나라휴가, 끝맺음자막, 끝장세대, 낙방인, 난장승부, 낫시력, 낱사람, 내기쟁이, 냉방료, 냉정녀, 널싱커버, 넷폴리스, 노개념, 노랑머리녀, 노력세금, 노블티, 노상방뇨꾼, 노잡족, 노홀리데이, 노히트노런패, 놀이터커플, 농촌녀, 누드배낭, 누리장터꾼, 누명살이, 눈길장보기, 눈꽃비, 눈치우미, 다공질주택, 다방녀, 다산출, 다숨짓, 다우너소, 닥버로우, 단부채, 달콤처절하다, 당노국가, 대동화, 대왕콩, 대포반, 땃글세대, 더블일리미네이션제, 덩크족, 도끼창, 도둑방송, 독립작, 돈뽕, 동태족, 된장커플, 뒷문접수, 뒷북상품, 뒷북펀드, 뒷파도, 듀오룩, 득남포, 득점병기, 등용문하다, 디너갈라쇼, 폐법방지법, 폐수비, 렌탈물, 로또팡, 마당발족, 마무리포, 마커법, 막매쟁이, 막해설, 만민대로락, 말뚝금리, 맛벌이애완족, 맛짱외교, 맛짱의식, 맞춤술, 맞춤형누리방송, 맹물구호, 맹어필, 멀티소스멀티유저, 명품백조, 명품혐오증, 모유맘, 목파라치, 몰래바이트족, 무울법주의, 무컴플렉스, 문자이탈현상, 문화캐팅, 물류크루즈, 미니밥, 미래살이, 미외미, 민박텔, 밀담회의, 밀짱, 바가지파, 바멜롯, 반교차소유, 반비만세, 발컨하다, 밥로비, 배넷이름, 배송마캐팅, 배셀매, 버락스타, 법조약, 변이지방, 별점세대, 보케베케, 부름갈채, 부름공세, 불꽃라이딩, 불필운동, 비선공천, 빗광메이크업, 뿌리산, 사고뭉치녀, 사랑망상증, 사색녀, 사이버사기죄, 사이버스크랩족, 사잇글, 샅질녀, 상처중독자, 생선발, 생웃음, 생태족, 석유발, 선보임공연, 성공병, 성조숙화, 성형테크, 세금로비, 셀리켓, 소부처주의, 소신족, 소이력추적제, 소파라치, 쇠고기신고바치, 쇼플러, 쇼핑금단현상, 슛플래너, 숙제홀릭, 순진무구남, 슈퍼내각, 시멘트중후군, 시민역할극, 신자린고비족, 신

자취족, 신코쿤족, 실명추천제, 실버웰빙임플란트, 실신게임, 싱글열차, 쌍방향통신
요금제, 악맷글, 악의스럽다, 악플법, 안개샤워, 안방실장, 안장통증, 앓음돌, 알뜰
개성족, 아이(I)의공포, 알라미즘, 알벤동태족, 알현료, 암내족, 야근독, 야리꼴랑하
다, 양금스럽다, 어이모드, 얼썹하다, 엄지소설, 여가활용기술, 역월세, 영결차다,
영어은행, 영어전문교사자격제도, 예술감각상품, 왕짤돌이형, 왼손콤플렉스, 울벌
라이제이션, 웃자판, 원작재구성, 원정구매족, 육파라치, 은근카리스마, 은빛누리
꾼, 음성사기전화, 이동뱅크서비스, 이름설계사, 이혼타이틀, 인간바이킹, 인디물,
입시플래너, 자기가치개발족, 자유벌이족, 잡탕밥, 재생맥주, 전근병, 전단지족, 전
자오피스, 조롱송, 조흔족, 주북비, 주유소가격공개시스템, 주장력, 중계맨, 중샘사
상, 즐딸, 지조주의, 짹당딩이, 짹통성실, 짹음장, 차등가점제, 창피형, 책손, 책차
방, 철거맨, 체력도우미, 초인간주의자, 총병, 총알댄스, 총알차량, 출사생, 치병유
시, 친제과, 칠백유로세대, 칼플레이즈, 캠퍼서트, 커즈맘, 커플관, 컬러리스, 크러
쉬신드름, 크롤링팩제도, 큰손애호가, 클루지하다, 타발적, 토공족, 토목주의자, 통
쾌지수, 투명메모리, 트레깅스, 트리비아게임, 틈새족, 파자마걸, 팔색조투, 팔짱맨,
팬파라치, 필력귀, 편리갑, 폐쇄은둔족, 포즈볼, 폭음가, 푸틴맨, 플루토이드, 하이
터즘, 한국품질체계평가, 향진구제, 햄버거족, 행사빛냄이, 허커비풍, 혜진예술법,
호연지기족, 홀보듬엄마, 환경친화주부, 황금독신여성, 효산업, 흑흑분열, 힙뽕

1.3.2.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의 사용 추이

2차 조사 대상 가운데 (6)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를 제외한 2008년 신어 134개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134개의 신어 목록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의 사용 추이에 따라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등으로 하위분류한다.

1)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좌저우고형의 빈도 추이로 나타나는 신어들을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4> ‘토크콘서트’의 출현 빈도 추이



<그림 5> ‘트렌드세터’의 출현 빈도 추이

최초 출현일을 전후하여 상대적으로 저빈도로 나타나던 신어들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유형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 신어 가운데 43개의 항목이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그 목록을 제시하면 (8)과 같다.

(8) 2008년 신어 중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총 43개, 가나다순)

가늌터, 결혼면허증, 경제행복지수, 고발글, 공정여행, 구매글, 구분점포, 근황셀카,

급등락하다, 급방긋하다, 나노봇, 날씨중계, 놀이학습, 도도미, 돌쇠형, 드림메이킹, 뚜껑머리, 멤버놀이, 면식수행, 몰카하다, 문자알리미서비스, 문텐로드, 미텔슈탄트, 바비큐존, 버럭커플, 벽돌형, 분필아트, 분필코, 불법넷글, 불빛축제, 선한사마리아인법, 소다자주의, 스압, 스크린셀러, 아래차로, 의드, 일코, 좀비화, 추측글, 충성팬, 토크콘서트, 트렌드세터, 호리병몸매

2)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둘째로 아래 그림과 같이 좌고우저형의 빈도 추이를 나타내는 신어들을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6> ‘사이버모욕죄’의 출현 빈도 추이

최초 출현일을 전후하여 상대적으로 고빈도로 나타나던 신어들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유형에 해당하며, 조사 대상 신어 가운데 67개의 항목이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는데, 그 목록을 제시하면 (9)와 같다.

(9) 2008년 신어 중 감소 추이를 보이는 신어(총 67개, 가나다순)

가름짓다, 가상신희본부, 가업승계자금, 검역주권, 고공권, 공존지수, 괴짜심리학, 귀북, 귀향족, 그린스타트운동, 꽃가루달력, 꿈의낙원, 끝장야구, 나노미니스커트, 남편명절증후군, 녹색산업,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눈물렌즈, 눈물메이크업, 독설녀, 돌싱맘, 등정주의, 디지털학교, 폐법, 로또텔, 루비족, 리모델링론, 막말증세,

먹튀사업, 물뽕투자, 브래들리효과, 사이버모욕죄, 산림세러피, 선진회수육, 쇠파라치, 스크린프로, 신뉴딜정책, 신보릿고개, 신상녀, 신세대맘, 아르의공포, 안전등지, 애드버게임, 영어몰입교육, 월광욕, 윗불룩, 유류환급금, 저탄소녹색성장시대, 전자종이, 정보전염병, 주부남, 줌데렐라, 차등부과제, 채널지배력, 체포전담반, 총알춤, 출렁녀, 콘도호텔, 쿠거족, 키스방, 테크토닉, 투잡맨, 프랜들리하다, 프랜들리, 하트스토밍,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의 유형들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신어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사용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소멸의 징후를 보이는 측면에서 잠정적으로 임시어 후보군으로 편입할 수도 있다. 다만, 아래 그림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빈도의 출현을 보이는 신어들의 경우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세에 해당하지만, 여전히 최저 1000회 이상의 고빈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형 추이를 보이지만 총 빈도가 30회도 되지 않는 신어에 비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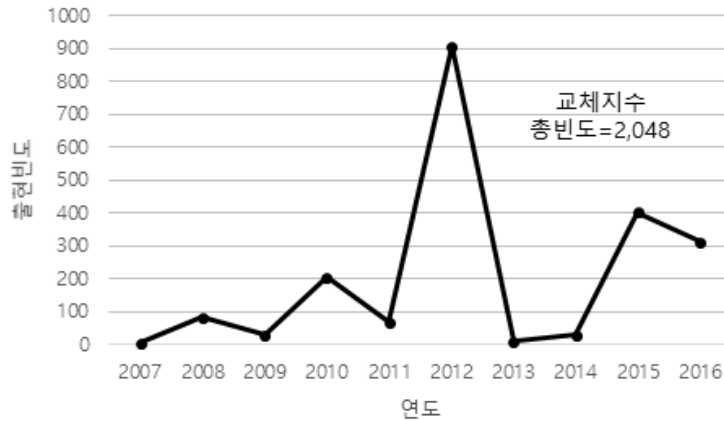


<그림 7> ‘녹색성장’의 출현 빈도 추이

3)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마지막 유형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증가와 감소가 교차되는 패턴을 일정 기간 사이에 되풀이하는 추이를 나타내는 신어들을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8> ‘교체지수’의 출현 빈도 추이



<그림 9> ‘규제일몰제’의 출현 빈도 추이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들은 대체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증가와 감소 패턴이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파동의 모양과 같이 되풀이된다. ‘교체지수’와 같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사건과 관련된 어휘들이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며, ‘규제일몰제’ 등과 같이 사회적 쟁점이 되는 비정기적인 사건들과 관련된 어휘들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10) 2008년 신어 중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총 24개, 가나다순)

거품가격, 결지방, 결혼도우미, 결혼면허, 교체지수, 규제일몰제, 기념북, 대회울령증, 디(D)공포, 매드무비, 면접울령증, 몰입교육, 바링허우세대, 복합불황, 부위정경, 뽕파업, 사보임, 역결집, 역사교훈여행, 이용실적점수, 친절매니저, 키보드배틀, 파티걸, 홍색귀족

위의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의 사용 추이와 출현 빈도의 절댓값을 통해 신어가 어휘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획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증가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는 잠정적으로 어휘적 안정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 가운데 출현 빈도의 절댓값이 높은 유형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점차 소멸해 가는 과정을 겪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들은 어휘적 안정성 획득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정기적인 사건과 관련된 유형의 경우 향후의 사용 추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1.4. 2008년 신어의 사용 분야에 따른 특징

여기서는 2008년 신어의 사용 분야를 15개의 대범주 영역으로 나누어 신어가 어떤 분야에서 자주 나타나고 사용되는지를 2008년 전체 신어와 134개 지속 신어를 구분하여 살펴본다. 특히 앞서 사용 추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 신어의 사용 분야에 따른 분포를 살펴봄으로써 약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한국인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조사에서는 신어를 대상으로 ‘전문어’와 ‘일반어’를 구분하는 것과 별도로, 모든 신어를 특정 사용 분야로 분류하여 사용 영역에 따른 신어 생성 주도 분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모든 신어를 특정 사용 분야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체 신어의 사용 분야 분류를 위해서는 제한된 전문어 분류 체계

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의미 분류 체계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국립국어원 (2014)의 의미 범주 체계를 일부 수정·활용하였다.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
인간	유형	사람의 종류, 신체 부위
	상태	체력 상태, 감각, 용모, 감정, 성격, 태도, 능력
	행위	신체 행위, 신체에 가하는 행위, 생리 현상, 인지 행위, 소리
삶	유형	친족, 가족 행사, 여가 도구, 여가 시설
	상태	삶의 상태, 병과 증상
	행위	삶의 행위, 일상 행위, 치료 행위, 여가 활동
식생활	유형	음식, 채소, 곡류, 과일, 음료, 식재료, 조리 도구, 식생활 관련 장소
	상태	맛
	행위	식사 및 조리 행위
의생활	유형	옷, 착용물, 의생활 관련 장소
	상태	의복 착용 상태
	행위	의복 착용, 미용 행위
주생활	유형	건물 종류, 주거 형태, 주거 지역, 가구, 가전제품, 일상용품, 주택 구성
	상태	주거 상태
	행위	주거 행위, 집안일
사회생활	유형	인간관계, 소통 수단, 교통수단, 교통 이용 장소, 매체, 직장, 직위, 직업, 사회 행사
	상태	사회생활 상태
	행위	사회생활 행위, 교통 이용 행위, 직장 생활, 언어 행위
경제생활	유형	경제 행위 주체, 경제 행위 장소, 경제 수단, 경제 산물
	상태	경제 상태
	행위	경제행위
교육	유형	교수 학습 주체, 전공과 교과목, 교육기관, 학교 시설, 학습 관련 사물, 학문용어

	상태	-
	행위	교수 학습 행위, 학문 행위
종교	유형	종교, 종교 장소, 종교인, 종교어, 종교 대상, 종교 사물
	상태	-
	행위	종교 행위
문화	유형	문화 활동 주제, 무형 문화, 유형 문화, 문화생활 장소
	상태	-
	행위	문화 활동
정치와 행정	유형	공공 기관, 사법 및 치안 주체, 무기
	상태	정치 치안 상태
	행위	정치 및 행정, 사법 치안
자연	유형	지형, 지표면 사물, 천체, 자원, 재해
	상태	기상 및 기후
	행위	-
동식물	유형	동물, 곤충, 식물, 동물의 부분, 식물의 부분
	상태	-
	행위	동식물 행위, 소리
개념	모양과 성질	모양, 성질, 속도
	빛과 색	밝기, 온도, 색깔
	수와 양	수, 세는 말, 양, 정도, 순서, 빈도
	시간과 위치	시간, 시간 단위, 위치 및 방향, 지역
	지시	지시, 접속, 의문, 인칭
통신 및 게임	통신	인터넷 활동, 휴대전화, 에스엔에스(SNS)
	게임	게임 활동, 게임 아이템

<표 1> 신어의 사용 분야 분류

위의 범주를 활용하여 2008년 신어 475개를 분류하여 2008년 신어의 등장 빈도가 높은 영역을 순서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2008년(개)	비율(%)	누적 비율(%)
사회생활	109	22.95	22.95
인간	100	21.05	44.00
경제생활	69	14.53	58.53
문화	55	11.58	70.11
통신 및 게임	26	5.47	75.58
삶	25	5.26	80.84
정치와 행정	23	4.84	85.68
교육	17	3.58	89.26
식생활	14	2.95	92.21
의생활	12	2.53	94.74
자연	10	2.11	96.84
주생활	10	2.11	98.95
개념	2	0.42	99.37
동식물	2	0.42	99.79
종교	1	0.21	100
합계	475	100	200

<표 2> 2008년 신어의 사용 분야별 빈도

위 표를 보면 15개의 범주들 가운데 ‘사회생활, 인간, 경제생활’의 3개 분야에서만 2008년 신어의 절반 이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사회생활’ 한 영역에서만 2008년 신어의 1/4가량이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신어가 일부 영역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15개 범주 중 절반에 해당하는 ‘사회생활, 인간, 경제생활, 문화, 통신 및 게임, 삶, 정치와 행정, 교육’ 영역에서 나타나는 신어가 약 90%에 달한다는 점에서 신어가 모든 사용 분야별로 고르게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사용 분야에서 나타난 신어의 대표적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 주요 사용 분야별 2008년 신어의 예

- ㄱ. 가상신혼부부, 성공병, 야근독 (사회생활)
- ㄴ. 까칠남녀, 도도미, 생웃음 (인간)
- ㄷ. 가치투자꾼, 감성케팅, 복합불황 (경제생활)
- ㄹ. 엄지소설, 의드, 토크콘서트 (문화)

- ㄱ. 넷폴리스, 닥버로우, 베플 (통신 및 게임)
- ㄴ. 공동귀농, 남편명절증후군, 맞벌이애완족 (삶)
- ㄷ. 검역주권, 교체지수, 사보임 (정치와 행정)
- ㄹ. 교사의존학생, 디지털학교, 영어몰입교육 (교육)

한편, 앞서 조사 시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에 걸쳐 지속적인 쓰임을 보이는 신어들을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와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속적인 사용 추이를 보이는 신어 134개를 사용 분야에 따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 분야	2008년(개)	비율(%)	누적 비율(%)
사회생활	30	22.39	22.39
경제생활	21	15.67	38.06
인간	21	15.67	53.73
문화	16	11.94	65.67
정치와 행정	11	8.21	73.88
통신 및 게임	8	5.97	79.85
교육	6	4.48	84.33
삶	6	4.48	88.81
의생활	6	4.48	93.28
식생활	4	2.99	96.27
자연	2	1.49	97.76
주생활	2	1.49	99.25
개념	1	0.75	100
합계	134	100	200

<표 3>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8년 신어의 사용 분야별 빈도

위 표를 보면, 약 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의 대략 90%에 해당하는 어휘가 ‘사회생활(30개), 경제생활(21개), 인간(21개), 문화(16개), 정치와 행정(11개), 통신 및 게임(11개), 교육(11개), 삶(6개), 의생활(6개)’의 9개 사용 분야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중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생활, 경제생활, 인간, 문화’ 4개 분야에서 나타난 신어는 지

속적으로 사용된 신어 중 6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어 475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생활’ 분야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가 가장 많이 분류된 4개 사용 분야의 신어들을 대표적인 예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8년 신어의 주요 사용 분야별 예

- ㄱ. 사회생활: 근황셀카, 그린스타트운동, 가상신혼부부
- ㄴ. 경제생활: 녹색성장, 복합불황, 물뽕투자
- ㄷ. 인간: 트렌드세터, 신상녀, 파티걸
- ㄹ. 문화: 토크콘서트, 불빛축제, 스크린셀러

이상을 통해 2008년 신어가 어떤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새로운 말의 출현이 새로운 제도나 현상, 범주 등을 지칭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어의 생성 분야 및 지속 신어의 사용 분야 분석은 언중의 관심사나 가치를 보여 주는 지표를 제공한다. 더 많은 신어에 대한 장기적인 사용 추이의 분석과 사용 분야 분석이 이러한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2006·2007년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

2016년 신어 조사 사업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어 사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2005·2006년 신어 231개와 2007년 신어 201개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16년 사용 빈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사용 추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때 10년간의 사용 추이 조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2016년 신어 조사 사업에서 조사되었던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빈도는 신어 사용의 지속성 판단에서 배제하였다. 그 결과, 2005·2006년 신어 231개 중 205개와 2007년 신어 201개 중 200개가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총 빈도 20회 이상, 기사빈도 10회 이상, 그리고 5개 연도 이상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어 지속성 판단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005년 신어 특히 2006년의 신어 ‘역기리기아빠’는 3개의 기준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잠정적으로 어휘 생명 주기에서 사멸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조사 결과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의 지위를 유지하는 목록과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신어의 목록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지속적으로 사용된 신어 총 405개

ㄱ.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년 신어 (78개)

개똥녀, 경찰률, 고고익선, 고공족, 고성불패, 공시족, 공시촌, 금융고시, 기생충김치, 김치지수, 깔때기홀, 낚시글, 낚김치, 네카시즘, 노퍽당당, 다둥이가족, 달팽이족, 드레스카페, 디지털코쿤족, 떨기춤, 룡디커플, 마술병, 먹사, 몰래제보꾼, 무꺼풀, 바다장, 밥터디, 부비부비춤, 불봉, 불임휴직, 불임휴직제, 비화폰, 빙면, 빗가림, 생리공결제, 생활경제고통지수, 생활스터디, 세금폭탄론, 소비자피해주의보, 손베개, 손편침막, 수림장, 수불사업, 수중뮤지컬, 스쿨폴리스, 실버뮤지컬, 안심택시, 알파메일, 애국베팅, 어울모임, 에어로바틱, 역계절진폭, 오삼데이, 월급고개, 위버섹슈얼, 육아데이, 잔토희물, 젓가락데이, 젓가락의날, 줌마렐라, 지행장, 직테크, 차치지청, 초슬림폰, 추모목, 추어데이, 추어탕데이, 취뽕, 털기춤, 토피스, 트

로트학과, 향한류, 헌집증후군, 험한류, 험악학과, 흥가포르, 흥색여행, 황빠

ㄴ.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6년 신어 (127개)

가위치기, 가족목, 고추장남, 골드미스, 골드미스터, 군복무크레디트, 귀족녀, 귀족소금, 그린슈머, 그린택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금사빠, 금연치약, 기부마라톤, 기프트콘, 꼭짓점댄스, 나오미족, 나우족, 노래텔, 노무족, 녹토미, 농민사관학교, 뉴럴네트워크, 달리미, 대포아이다, 댓글마케팅, 더위주의보, 동물조련이벤트과, 동안성형수술, 된장남, 된장녀, 뒷금, 마이크로포레이터, 뎀슈머, 땃돌춤, 머스트시, 명인강좌, 모범납세자카드, 미드족, 반값아파트, 버블세븐, 보건기상지수, 볼매, 비싱, 비행척추피로증후군, 살조, 새로마지플랜, 새싹플랜, 생동성, 선택요일제, 셀디, 손수제작물, 수그리족, 수면부위마취, 스포슈머, 시민거버넌스, 시장학교, 실버마크, 쌍춘년, 쌍얼, 썩소, 아나테이너, 아이돌보미, 안습, 어포더블럭셔리, 에듀시터, 에코맘, 엘프녀, 연량감, 연예고시, 영파라치, 오감브랜딩, 오크녀, 와인트레인, 완소남, 완소녀, 외모지수, 월드컵증후군, 웨딩알바, 윈드쉬어, 유시시, 유턴프로젝트, 육아휴직할당제, 이모부대, 이종배아, 인형체험방,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 자립홈, 자출, 장면갈무리, 장수축하수당,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능봉사, 적토미, 졸업세, 주택바우처제도, 지식콘서트, 지역약물감시센터, 참공약선택하기, 척추피로증후군, 체어마사지, 출국여부확인시스템, 츄름, 칙릿, 커플개그, 쿨링센터, 크로스섹슈얼, 클린로드, 키티맘, 톱건함, 트윈슈머, 틱타알릭, 파파쿼터제, 팔팔데이, 폭염대피소, 푸티니즘, 프라브족, 프로추어, 프리허그, 펄비, 하늘섬터, 한글패션, 한방고, 헬리콥터부모, 황금돼지띠, 훈남, 훈녀

ㄷ.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7년 신어 (200개)

가족기부, 건전치아, 견훤련소, 계절성정서장애, 골드미시, 곰신녀, 관상성형, 광클, 교육난민, 군삼녀, 그루밍족, 근과거, 글램핑, 금태, 기초견, 김씨아줌마, 김치투어, 나노미니, 너절리즘, 노노족, 노란우산공제, 노래스터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캅스, 님게임, 다크닝현상, 달라송, 대선삼수생, 대오족, 대입이혼, 도둑공부, 돌싱녀, 동네신문, 둔감력, 뒷박, 딸키, 떡실신, 떼빙, 레드존, 리본족, 마술스터디, 마음력, 말썰녀, 맥럭셔리, 메시지콘, 메시캡, 면접록, 모골담, 모바일투표, 모옥스터디, 모자방, 목도리녀, 몸테크, 무흥, 문화귀족,

물개드리블, 물광, 미소주름, 미스맘, 밀착가이드, 밀크데이, 밀크페인트, 밀글, 박근혜노믹스, 반값골프장, 발모광, 방문주차제, 배려석, 백수문학, 백수소설, 벌떼마운드, 베타남, 베타맘, 베타보이, 벨리브, 벼락두통, 병풍아파트, 보육도우미제도, 보이밴드, 보조개사과, 보통교과, 복합환승센터, 봉춤, 부모코칭전문가, 부축빼기법, 불륜녀, 브이라인, 블레임룩, 빗공화국, 사이버재판, 사이아트, 살랑살랑춤, 살인이자, 상승감, 새기팬츠, 새내기증후군, 서울클린데이, 선편러, 성실맨, 셀프체크인시스템, 소몰이창법, 소주녀, 스팅글리시, 슬로트래블, 시승감, 시청각설명, 식용본드, 식테크, 실버미스, 실버폴리스, 실사모형, 심빠, 싱글녀, 싱글아빠, 싱글이코노미, 싱어테이너, 아이팟지수, 아침사양족, 악플테러, 안구마우스, 알파맘, 알파맨, 알파우먼, 압박속옷, 애그플레이션, 어탐찌, 얼음조끼, 엄친딸, 엄친아, 에듀맘, 엔지족, 엔터테인먼트지수, 엠세대, 연말증후군, 오디세이გი, 오일볼, 온빙하, 와타나베부인, 완모, 우왕ㄱ군ㄱ, 움짤, 워크홀릭, 워킹족, 원링스캠, 원샷경선, 웹버족, 위키리크스, 유기데이, 음파라치, 이노스텔, 인포데미스, 일렉바이올리니스트, 입술갈림증, 입퇴사, 자가성형, 자연결핍장애, 자폐성장애인, 장르극, 장미족, 전라디언, 조립모형, 종영후유증, 주택연금, 중간광고, 쥐똥고추, 책임여행, 처분조건부대출, 출사족, 친구데이, 친디아, 캥거루효과, 커트어웨이, 코친디아, 콜메기, 큐세대, 킹왕짱, 타르볼, 타임리프, 투척용소화기, 트러킹, 파파라치룩, 팔십팔만원세대, 팔찌춤, 패서놀로지, 포키데이, 폭력남, 폰테크, 폴짝춤, 풍선내시경, 프린터어마켓, 프레전티이즘, 프리키스, 프리홈, 하나마나송, 해킹보험, 허드렛바지, 허본좌, 홀로가정, 휴대전화투표, 흠줍무

(2) 일시적으로 사용된 신어 (27개)

ㄱ. 일시적으로 사용된 2005년 신어 (8개)

건달정부(감), 바텐더로봇(파), 석유조기경보지수(감), 쌀파라치(파), 유포터(감), 파파데이(감), 포스트디지털세대(감), 편호요법(감)

ㄴ. 일시적으로 사용된 2006년 신어 (18개)

공중의견제출제도(파), 금연순찰대(증), 꺾기번호판(감), 누드항공기(감), 모녀마케팅(파), 뮤직스타일리스트(파), 씹장녀(파), 역기러기아빠(파), 온누리안(감), 왕남폐인(감), 워드신드롭(감), 코스피의개(감), 펴한류(파), 피부교감(파), 학교안전수호천사(파), 학교춘지근

절법(과), 한뼘바지, 흔들녀(감)

ㄷ. 일시적으로 사용된 2007년 신어 (1개)

보딩캠퍼스(감)

2016년 신어 조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로 판별된 신어 가운데 올해 조사 결과를 반영했을 때, 배제되는 목록은 (2)에서 제시한 2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2015년 및 2016년 신어 조사에서 제시한 사용 추이 유형을 살펴보면 이들 배제된 항목들은 해당 조사에서 대부분 감소형과 파동형 유형에 포함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감소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의 예로는 ‘건달정부’, ‘꺾기번호판’, ‘보딩캠퍼스’ 등이 포함되고, 파동형 추이를 보이는 신어의 예로는 ‘바텐더로봇’, ‘공중의견제출제도’ 등이 포함된다.

신어의 사용 추이 조사가 이루어진 지 3회째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 사용 추이의 추가 조사는 2회째이다. 사용 추이 조사 당시 ‘감소형’과 ‘파동형’의 사용 추이를 보였던 신어는 이듬해의 추가 조사에서 신어 사용의 지속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증가형’ 추이를 보인 신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성이 크다. 누적된 자료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지속적 사용을 보이는 신어에 대한 사용 추이 조사를 통해 사용 추이의 유형과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신어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록>

<부록 1> 표제어 찾아보기

┌		교정어	89, 139
		국민 아이스바	106, 139
		궁서리	82, 139
		그루답터	73, 139
		그루답터죽	102, 139
		금대리	72, 140
		길맥죽	75, 140
		깃털 눈썹	76, 140
		꽃미남녀	118, 140
		꽃샘 대선	97, 140
		꿀근무지	84, 141
		꿀잼각	102, 141
		꿀중기	97, 141
		└	
가성비죽	85, 133	나로서기	76, 141
가싶 남녀	111, 133	내가티브	107, 142
갑질 사범	77, 133	내비게이션 소비	67, 142
갯명작	106, 133	냥섬웨어	95, 142
갯상블	88, 133	넌바이너리	66, 142
강세권	73, 134	네거티브 낙수 효과	112, 142
개너자이저	101, 134	네코노믹스	67, 143
개사이다	91, 134	넷페미	63, 143
개용품질	106, 134	노 룩 촬영	61, 143
개헌론파	117, 134	노 룩 취재	62, 143
객리단길	64, 135	노르웨이 페러독스	112, 144
깍 투자죽	94, 135	노마드 보수	79, 144
갯폴리	61, 135	노멀 크러시	79, 144
경준생	117, 135	노 알콜러	112, 144
계약빵	111, 135	놀존심	95, 144
고나리자	70, 136	넉피셜	97, 144
고막 여친	82, 136		
고막 연인	95, 136		
고빼 법안	101, 136		
고시 삼자 동락설	89, 136		
고층 작업 차	78, 137		
골드 삼촌	117, 137		
골드 이모	84, 137		
골든 타임 배송	84, 137		
공알못01	111, 137		
공알못02	118, 138		
공취생	75, 138		
평꾼	102, 138		
교순대	73, 138		
교순대원	111, 138		

뉴 노멀 중년	69, 145
뉴칼라	63, 145
뉴클리어 풋볼	97, 145
닉슨 해법	118, 145

C

다세권	71, 146
당떨시	102, 146
대드버타이징	112, 146
대유잼	93, 146
대협치	86, 147
댄스올린	70, 147
데가지즘	58, 147
도른미	102, 147
도서관 미어캣	118, 148
독서실 원시인	86, 148
돈세탁망	103, 148
동원동근	107, 148
뒷벽지	95, 148
드론 성지	103, 149
디지털 성범죄	79, 149
땡작	98, 149

ㄷ

라이스 슈가	67, 149
라테 아빠	103, 150
란파라치	54, 150
랜선 실세	77, 150
랜선 집사	77, 150
랜선 커플	70, 151
럭키 프로모션	103, 151
레스마켓	70, 151

레이지 신드롬	119, 151
로테크 테러	112, 151
리브르 아 플리에	119, 152
리커버 마케팅	95, 152

마

마라마마	119, 152
마약크림	119, 152
마약풍선	58, 153
마운틴 포비아	119, 153
만뽕남	104, 153
만뽕녀	80, 153
맘고리즘	58, 153
매너 푸드	104, 154
매직 툴바	80, 154
매화 대선	107, 154
먹슬림	65, 154
먹크러시	78, 154
먹튀 출산	80, 155
멀티 자키	107, 155
멍청 비용	62, 155
메포츠	82, 155
명정쌔	120, 155
모바일 뱅커	61, 156
모바일 소파죽	113, 156
모바일 침대죽	113, 156
몹스	77, 156
미코녀	91, 156
민주주의 소시지	55, 157
밈족	113, 157

ㅁ

배려식	104, 157
법꾸라지	54, 157
벚꽃 대선	54, 158
베이비 크러시	58, 158
베지노믹스	74, 158
웹스 프로젝트	60, 158
별나라 대출	113, 159
병세권	120, 159
보디 버든	56, 159
복불 소설	98, 159
봄날 대선	86, 160
부메랑 직원	65, 160
부패 투어	61, 160
분산형 원장	98, 160
뷰니멀족	96, 160
뷰알못	74, 161
비잔틴 데이터	120, 161
비정규직 박물관	107, 161
비 플러스 프리미엄	120, 161
비혼층	113, 161
빡침 비용	80, 162



사운드 담요	120, 162
샤이 보수	53, 162
샤이 보터	121, 162
샤이 중도	121, 163
샤이 진보	68, 163
서브병	104, 163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89, 163
선남방계	108, 163
선인용인	114, 164
성장캐	108, 164

세권 프리미엄	121, 164
세젤무	96, 164
세젤섹	121, 164
소울 타이	86, 165
소파 사운드	86, 165
소파 쇼핑족	121, 165
솔로 이코노믹스	53, 165
쇼트 트랙 대선	69, 165
숙제 격차	93, 165
술스타그램족	121, 166
술싫모	108, 166
스마트컬슈머	122, 166
스마트포니스타	104, 166
스몰텐트론	69, 167
스좁비	122, 167
스테이테인먼트	78, 167
스트리밍 쇼퍼	64, 167
스펙타쿠스	89, 167
시니어노믹스	92, 168
시발 비용	57, 168
식큐멘터리	81, 168
신문해 계층	98, 168
실버 워리어	122, 168
실버 파산	72, 169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	81, 169
십시	82, 169
쌀설탕	93, 169
썰동	114, 170
쓰랑꾼	76, 170
쓸개혹	105, 170
쓸쓸 비용	69, 170
썩덕상	122, 170



아재슈머	68, 171
아재 취미	123, 171
아재층	123, 171
아재템	82, 171
아톰 보밍	72, 172
악편	75, 172
안아키스트	71, 172
안아키족	93, 173
안전 속바지	83, 173
앞벽지	108, 173
애국 페이 근절법	72, 173
애그테크	105, 173
야근각	71, 174
어금니 칫솔	123, 174
얼굴 패권주의	59, 174
얼리 어먹터	62, 174
얼리 힐링족	62, 175
엄카족	94, 175
에스 마이스	94, 175
엔딩 매직	74, 175
역외법	123, 176
역피셜	92, 176
연애 정상성	85, 176
연차 푸어	98, 176
열대야락족	85, 176
영란 맛집	114, 176
영란 페이	114, 177
영영 페미	81, 177
영포티족	74, 177
오버 투어리즘	83, 177
오케이 인프라	123, 177
오픈 캐비닛	57, 178
오피스텀	105, 178
온라인 리플리	114, 178

와유 백	89, 178
외모 패권주의	59, 178
육실 세럼	96, 179
올로 라이프	56, 179
올로족	55, 179
우주 발레	108, 179
워라벨	57, 179
원룸 푸어	76, 180
웹툰컬	115, 180
위너 소비자	66, 180
위상 점	90, 180
위장 독감	105, 181
유심 폭리 방지법	87, 181
유지어터	115, 181
육퇴	124, 181
은틴	115, 181
이름표 행정	124, 182
이저일고	124, 182
인구 절벽 원년	99, 182
인맥 커팅	87, 182
인어 머리	124, 182
인터넷 고양이 이론	109, 183
일코노미	54, 183
일코노미족	62, 183

ㄸ

자거티브	109, 183
자소서 포비아	70, 184
자소설 포비아	87, 184
장미 대선	53, 184
재재입덕	115, 184
적폐 정치	61, 184
전시 근로역	60, 185

끓곤	64, 185
제물템	109, 185
젠틀 제왕 절개	90, 185
젓갈싸	70, 186
존뚝	124, 186
줄귀탕	90, 186
줄혼남	83, 186
쭈마 로코	125, 186
쭈마 파탈	79, 186
지방리	115, 187
지휘 근무병	68, 187
직격 비행체	125, 187
직구 정치	125, 187
직시급제	109, 188
짜스	90, 188
썸통 대선	66, 188

六

채권 난민	83, 188
책맥죽	99, 189
청세권	109, 189
청스타그램	68, 189
초대형 폭탄주	99, 189
초딩미	79, 189
취업난 포비아	96, 189
취업 인류	125, 190
취업콕터 맘	125, 190
층건 소음	99, 190
치매 푸어	126, 190
치맥지교	87, 191
치중 진담	88, 191
치탄	71, 191

ㄱ

카지노 미아	99, 191
칼박	100, 192
캄테크	64, 192
캐럴 노가바	116, 192
캘럭시트	67, 192
캠프니커	116, 192
컨슈머토피아	83, 192
코렌터	75, 193
코세페	66, 193
클론 패션	116, 193
키갈리 협약	105, 193

ㅁ

탄핵 시계	56, 194
탈억제대	116, 194
탈팩트	100, 194
톤망진창	126, 194
톤체성	126, 194
통리통략	81, 195
투웨이 번 헤어	126, 195
트럼프시트	126, 195
트럼프 페이드	100, 195
트럼플레이션	56, 195
트리밍족	92, 196
트릭 포토 월	127, 196
트페미	100, 196
티티 포즈	92, 196

ㅂ

파미나	90, 197
-----	---------

파파미 78, 197
 팔러 캐비닛 127, 197
 패싱 코리아 53, 197
 팩력배 96, 198
 팩트광 91, 198
 팩트리아트 88, 198
 팩트리아트 미사일 100, 198
 팩트 폭격 63, 198
 팩트 폭력 57, 199
 팩트 폭행 59, 199
 팩폭 76, 199
 팬텀 세대 74, 199
 페모크라티 77, 199
 펌버타이징 84, 200
 펄펄족 110, 200
 편의점 카페족 106, 200
 편퇴족 63, 200
 포켓코노미 60, 200
 포프리카 127, 201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
 201
 프로 놀람러 80, 201
 프로 야근러 67, 201
 프로 할말러 88, 201
 프로 혼밥러 96, 202
 프로 혼참러 94, 202
 프롭테크 65, 202
 프리랜서 바이오 해커 84, 202
 피난처 도시 55, 202
 피르가즘 91, 203
 피젯 스피너 128, 203
 피젯 토이 128, 203
 피짓 스피너 55, 203
 피짓 토이 64, 203

픽미 세대 58, 204
 핑거 프린스 92, 204

ㅎ

한한령 53, 204
 할류 열풍 116, 204
 할아재 88, 205
 해군콩 127, 205
 해시크래싱 106, 205
 해외 차례족 101, 205
 해피별론 55, 205
 해피풍선 57, 206
 핵존잘 128, 206
 행복 회로 66, 206
 향테리어 101, 206
 허파진 117, 206
 헌팅 콘텐츠 128, 206
 호모 고시오패스 110, 207
 호모 스펙타쿠스 101, 207
 호모 인턴 85, 207
 호모 체어쿠스 82, 207
 호모 파덴스 110, 207
 호텔 하우스 인테리어 78, 208
 혼골족 65, 208
 혼디 59, 208
 혼모노족 111, 208
 혼뱅 65, 208
 혼뱅족 91, 208
 혼참족 72, 209
 혼창 85, 209
 혼커 76, 209
 혼행족 56, 209
 흘캉스족 128, 209

화성 얼음집	117, 209
화이트 프레질리티	128, 210
찾감 비용	60, 210
찾술죽	68, 210
휘게 라이프	56, 210
휘게스럽다	97, 210
휘게 크로그	117, 211
휘겔리케이션	93, 211
휴보젠트	94, 211
흙턴	59, 211

<부록 2> 표제어 역순 찾아보기

ㄱ

라이스 슈가	67, 149
야근각	71, 174
꿀잼각	102, 141
위장 독감	105, 181
젠틀 제왕 질개	90, 185
팩트 폭격	63, 198
선남방계	108, 163
탄핵 시계	56, 194
이저일고	124, 182
네거티브 낙수 효과	112, 142
비정규직 박물관	107, 161
팩트광	91, 198
치맥지교	87, 191
강세권	73, 134
다세권	71, 146
병세권	120, 159
청세권	109, 189
휘게 크로그	117, 211
동원동근	107, 148
나로서기	76, 141
꿀중기	97, 141
객리단길	64, 135
핑곤	102, 138
줍곤	64, 185
쓰랑곤	76, 170

ㄴ

파미나	90, 197
-----	---------

만퐁남	104, 153
줄혼남	83, 186
피젯 스피너	128, 203
피깃 스피너	55, 203
가싶 남녀	111, 133
꽃미남녀	118, 140
만퐁녀	80, 153
미코녀	91, 156
인구 절벽 원년	99, 182
뉴 노멀 중년	69, 145
팔러 캐비닛	127, 197
오픈 캐비닛	57, 178

ㄷ

휘게스럽다	97, 210
개사이다	91, 134
치중 진담	88, 191
픽미 세대	58, 204
팬텀 세대	74, 199
교순대	73, 138
탈억제대	116, 194
재재입덕	115, 184
샤이 중도	121, 163
셀둥	114, 170
소파 사운드	86, 165
트럼프 페이드	100, 195
매너 푸드	104, 154
보디 버든	56, 159
혼디	59, 208
존뚝	124, 186

ㄹ

뉴칼라	63, 145
오케이 인프라	123, 177
청스타그램	68, 189
통리통략	81, 195
프로 야근러	67, 201
갯꿀러	61, 135
프로 놀람러	80, 201
프로 할말러	88, 201
프로 혼밥러	96, 202
지방러	115, 187
프로 혼참러	94, 202
노 알콜러	112, 144
로테크 테러	112, 151
옥실 세럼	96, 179
우주 발레	108, 179
팩트 폭력	57, 199
한한령	53, 204
행복 회로	66, 206
인터넷 고양이 이론	109, 183
스몰텐트론	69, 167
레이지 신드롬	119, 151
해피벌론	55, 205
취업 인류	125, 190
넌바이너리	66, 142
금대리	72, 140
인어 머리	124, 182
궁서리	82, 139
식큐멘터리	81, 168
온라인 리플리	114, 178
댄스올린	70, 147
먹슬림	65, 154

마약크림	119, 152
------	----------

ㄴ

마라마마	119, 152
취업콥터 맘	125, 190
돈세탁망	103, 148
아재슈머	68, 171
스마트컬슈머	122, 166
술싫모	108, 166
골드 이모	84, 137
공알못01	111, 137
공알못02	118, 138
뷰알못	74, 161
세젤무	96, 164
일코노미	54, 183
포켓코노미	60, 200
초딩미	79, 189
도른미	102, 147
아재 취미	123, 171
파파미	78, 197
영영 폐미	81, 177
넛페미	63, 143
트페미	100, 196
채권 난민	83, 188
아톰 보밍	72, 172

ㄷ

캐럴 노가바	116, 192
국민 아이스바	106, 139
매직 툴바	80, 154
칼박	100, 192
팩력배	96, 198

와유 백	89, 178
위라벨	57, 179
흔땡	65, 208
갑질 사범	77, 133
역외법	123, 176
애국 페이 근절법	72, 173
유심 폭리 방지법	87, 181
닉슨 해법	118, 145
지휘 근무병	68, 187
서브병	104, 163
샤이 진보	68, 163
뉴클리어 풋볼	97, 145
내가티브	107, 142
자거티브	109, 183
갓상블	88, 133
내비게이션 소비	67, 142
스좀비	122, 167
라테 아빠	103, 150
계약빵	111, 135



랜선 집사	77, 150
먹튀 출산	80, 155
실버 파산	72, 169
썸덕상	122, 170
경준생	117, 135
공취생	75, 138
벚꽃 대선	54, 158
봄날 대선	86, 160
쇼트 트랙 대선	69, 165
장미 대선	53, 184
꽃샘 대선	97, 140
썸통 대선	66, 188

매화 대선	107, 154
마약풍선	58, 153
해피풍선	57, 206
고시 삼자 동락설	89, 136
복불 소설	98, 159
연애 정상성	85, 176
톤체성	126, 194
랜선 실세	77, 150
세젤썹	121, 164
럭키 프로모션	103, 151
트럼플레이션	56, 195
휘켈리케이션	93, 211
클론 패션	116, 193
네피셜	97, 144
역피셜	92, 176
어금니 칫솔	123, 174
골든 타임 배송	84, 137
노마드 보수	79, 144
샤이 보수	53, 162
호모 파덴스	110, 207
노르웨이 패러독스	112, 144
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	
201	
핑거 프린스	92, 204
몹스	77, 156
시니어노믹스	92, 168
베지노믹스	74, 158
네코노믹스	67, 143
솔로 이코노믹스	53, 165
에스 마이스	94, 175
짜스	90, 188
호모 체어쿠스	82, 207
호모 스펙타쿠스	101, 207
스펙타쿠스	89, 167

호모 고시오페스	110, 207
피난처 도시	55, 202
당떨시	102, 146
노멀 크러시	79, 144
베이비 크러시	58, 158
먹크러시	78, 154
십시	82, 169
배려식	104, 157
놀존심	95, 144
해시크래싱	106, 205
젼잘싸	70, 186
깃털 눈썹	76, 140
명정썸	120, 155



패싱 코리아	53, 197
카지노 미아	99, 191
취업난 포비아	96, 189
자소서 포비아	70, 184
자소설 포비아	87, 184
마운틴 포비아	119, 153
컨슈머토피아	83, 192
고빼 법안	101, 136
실험동물 지킴이 법안	81, 169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89, 163
키갈리 협약	105, 193
실버 워리어	122, 168
호텔 하우스 인테리어	78, 208
향테리어	101, 206
냥섬웨어	95, 142
교정어	89, 139
부패 투어	61, 160
원룸 푸어	76, 180

치매 푸어	126, 190
연차 푸어	98, 176
투웨이 번 헤어	126, 195
세권 프리미엄	121, 164
비 플러스 프리미엄	120, 161
리브르 아 를리에	119, 152
전시 근로역	60, 185
노 룩 촬영	61, 143
사운드 담요	120, 162
찾김 비용	60, 210
시발 비용	57, 168
쓸쓸 비용	69, 170
멍청 비용	62, 155
빡침 비용	80, 162
교순대원	111, 138
부메랑 직원	65, 160
트릭 포토 월	127, 196
층건 소음	99, 190
얼굴 패권주의	59, 174
외모 패권주의	59, 178
소울 타이	86, 165
피젯 토이	128, 203
피깃 토이	64, 203
영란 페이	114, 177
독서실 원시인	86, 148
고막 연인	95, 136
선인용인	114, 164
팩트리아트 미사일	100, 198



고나리자	70, 136
위너 소비자	66, 180
갯평작	106, 133

명작	98, 149
핵존잘	128, 206
분산형 원장	98, 160
할아재	88, 205
노 룩 취재	62, 143
대유잼	93, 146
개너자이저	101, 134
개용품절	106, 134
위상 점	90, 180
이름표 행정	124, 182
직시급제	109, 188
혼골족	65, 208
혼모노족	111, 208
모바일 침대족	113, 156
열대야락족	85, 176
술스타그램족	121, 166
해외 차례족	101, 205
올로족	55, 179
얼리 힐링족	62, 175
길맥족	75, 140
책맥족	99, 189
뷰니멀족	96, 160
일코노미족	62, 183
밈족	113, 157
트리밍족	92, 196
혼뱅족	91, 208
가성비족	85, 133
왓솔족	68, 210
홀캥스족	128, 209
깍 투자족	94, 135
혼참족	72, 209
엄카족	94, 175
안아키족	93, 173
그루답터족	102, 139

편퇴족	63, 200
영포티족	74, 177
모바일 소파족	113, 156
편의점 카페족	106, 200
팜팜족	110, 200
소파 쇼핑족	121, 165
혼행족	56, 209
디지털 성범죄	79, 149
초대형 폭탄주	99, 189
티티 포즈	92, 196
피르가즘	91, 203
맘고리즘	58, 153
오버 투어리즘	83, 177
데가지즘	58, 147
법꾸라지	54, 157
꿀근무지	84, 141
안전 속바지	83, 173
뒷벽지	95, 148
앞벽지	108, 173
드론 성지	103, 149
민주주의 소시지	55, 157
엔딩 매직	74, 175
허파진	117, 206
영란 맛집	114, 176
화성 얼음집	117, 209
대드버타이징	112, 146
팜버타이징	84, 200

六

고층 작업 차	78, 137
숙제 격차	93, 165
튼망진창	126, 194
혼창	85, 209

직격 비행체	125, 187
골드 삼촌	117, 137
별나라 대출	113, 159
헌팅 콘텐츠	128, 206
메포츠	82, 155
신문해 계층	98, 168
아재층	123, 171
비혼층	113, 161
란파라치	54, 150
직구 정치	125, 187
적폐 정치	61, 184
대협치	86, 147
고막 여친	82, 136

ㄱ

포프리카	127, 201
성장캐	108, 164
도서관 미어캣	118, 148
캠프니커	116, 192
모바일 뱅커	61, 156
프리랜서 바이오 해커	84, 202
혼커	76, 209
웹툰킬	115, 180
레스마켓	70, 151
줌마 로코	125, 186
해군콩	127, 205
애그테크	105, 173
프롭테크	65, 202
캠테크	64, 192
멀티 자키	107, 155

ㄴ

스마트포니스타	104, 166
치탄	71, 191
줌마 파탈	79, 186
쌀설탕	93, 169
줄기탱	90, 186
그루답터	73, 139
코렌터	75, 193
얼리 어먹터	62, 174
샤이 보터	121, 162
유지어터	115, 181
비잔틴 데이터	120, 161
은턴	115, 181
호모 인턴	85, 207
흙턴	59, 211
제물템	109, 185
오피스템	105, 178
아재템	82, 171
육퇴	124, 181
스테이테인먼트	78, 167
안아키스트	71, 172
캘럭시트	67, 192
트럼프시트	126, 195
팩트리어트	88, 198
뱍스 프로젝트	60, 158
휴보젠트	94, 211
탈팩트	100, 194
페모크라티	77, 199
화이트 프레질리티	128, 210
인맥 커팅	87, 182
리커버 마케팅	95, 152

ㄷ

개헌론파	117, 134
------	----------

스트리밍 쇼퍼	64, 167
코세페	66, 193
악편	75, 172
팩폭	76, 199
할류 열풍	116, 204
회계 라이프	56, 210
올로 라이프	56, 179
랜선 커플	70, 151

ㅎ

팩트 폭행	59, 199
쓸개 흑	105, 170

<부록 3> 표제어 빈도순 찾아보기

※ 괄호 안은 빈도

(6,318)한한령	53, 204	(109)맘고리즘	58, 153
(3,306)솔로 이코노믹스	53, 165	(108)픽미 세대	58, 204
(2,233)패싱 코리아	53, 197	(107)혼디	59, 208
(1,920)장미 대선	53, 184	(107)흙턴	59, 211
(1,530)샤이 보수	53, 162	(106)외모 패권주의	59, 178
(1,441)법꾸라지	54, 157	(105)얼굴 패권주의	59, 174
(1,243)벚꽃 대선	54, 158	(100)팩트 폭행	59, 199
(1,188)일코노미	54, 183	(98)전시 근로역	60, 185
(1,179)란파라치	54, 150	(96)웹스 프로젝트	60, 158
(975)민주주의 소시지	55, 157	(96)왓김 비용	60, 210
(854)올로족	55, 179	(93)포켓코노미	60, 200
(675)피난처 도시	55, 202	(92)갯꿀러	61, 135
(660)피젯 스피너	55, 203	(90)적폐 정치	61, 184
피젯 스피너	128, 203	(85)모바일 뱅커	61, 156
(658)해피벌룬	55, 205	(84)부패 투어	61, 160
(508)혼행족	56, 209	(79)노 룩 촬영	61, 143
(466)올로 라이프	56, 179	(77)일코노미족	62, 183
(454)트림플레이션	56, 195	(75)얼리 어먹터	62, 174
(273)탄핵 시계	56, 194	(71)명칭 비용	62, 155
(258)취계 라이프	56, 210	(68)얼리 힐링족	62, 175
(242)보디 버든	56, 159	(66)노 룩 취재	62, 143
(238)시발 비용	57, 168	(66)편퇴족	63, 200
(208)워라벨	57, 179	(64)뉴칼라	63, 145
(197)해피풍선	57, 206	(63)팩트 폭격	63, 198
(192)팩트 폭력	57, 199	(61)넷페미	63, 143
(153)오픈 캐비닛	57, 178	(61)줍곤	64, 185
(151)테가지즘	58, 147	(59)객리단길	64, 135
(128)베이비 크러시	58, 158	(59)캄테크	64, 192
(120)마약풍선	58, 153	(59)피젯 토이	64, 203

피켓 토이	128, 203	(26)야근각	71, 174
(58)스트리밍 쇼퍼	64, 167	(26)치탄	71, 191
(57)프롭테크	65, 202	(26)혼참죽	72, 209
(55)부메랑 직원	65, 160	(25)금대리	72, 140
(52)혼골죽	65, 208	(25)애국 페이 근절법	72, 173
(52)혼뱅	65, 208	(24)실버 파산	72, 169
(51)먹슬림	65, 154	(24)아툼 보밍	72, 172
(51)찜통 대선	66, 188	(23)강세권	73, 134
(51)행복 회로	66, 206	(23)교순대	73, 138
(50)넌바이너리	66, 142	(23)그루답터	73, 139
(50)위너 소비자	66, 180	(23)엔딩 매직	74, 175
(47)코세페	66, 193	(23)영포티죽	74, 177
(44)내비게이션 소비	67, 142	(23)팬텀 세대	74, 199
(42)라이스 슈가	67, 149	(22)베지노믹스	74, 158
(41)네코노믹스	67, 143	(22)뷰알못	74, 161
(40)캘럭시트	67, 192	(22)코렌터	75, 193
(40)프로 야근러	67, 201	(21)악편	75, 172
(39)샤이 진보	68, 163	(20)공취생	75, 138
(39)지휘 근무병	68, 187	(20)길맥죽	75, 140
(37)아재슈머	68, 171	(20)깃털 눈썹	76, 140
(36)청스타그램	68, 189	(20)나로서기	76, 141
(36)왓슬죽	68, 210	(20)쓰랑꾼	76, 170
(35)쇼트 트랙 대선	69, 165	(20)원룸 푸어	76, 180
(34)스몰텐트론	69, 167	(20)팩폭	76, 199
(33)쓸쓸 비용	69, 170	(20)혼커	76, 209
(30)뉴 노멀 중년	69, 145	(19)갑질 사범	77, 133
(30)레스마켓	70, 151	(19)랜선 집사	77, 150
(30)젼잘싸	70, 186	(19)몹스	77, 156
(29)랜선 커플	70, 151	(19)페모크라티	77, 199
(28)자소서 포비아	70, 184	(18)랜선 실세	77, 150
(27)댄스올린	70, 147	(18)먹크러시	78, 154
(26)고나리자	70, 136	(18)스테이테인먼트	78, 167
(26)다세권	71, 146	(18)파파미	78, 197
(26)안아키스트	71, 172	(18)호텔 하우스 인테리어	78, 208

(17)고층 작업 차	78, 137	(13)혼창	85, 209
(17)노마드 보수	79, 144	(12)가성비족	85, 133
(17)노멀 크러시	79, 144	(12)대협치	86, 147
(17)디지털 성범죄	79, 149	(12)독서실 원시인	86, 148
(17)쭈마 파탈	79, 186	(12)봄날 대선	86, 160
(17)초딩미	79, 189	(12)소울 타이	86, 165
(16)만뽕녀	80, 153	(12)소파 사운드	86, 165
(16)매직 툼바	80, 154	(12)유심 폭리 방지법	87, 181
(16)빡침 비용	80, 162	(12)인맥 커팅	87, 182
(16)프로 놀람리	80, 201	(12)자소설 포비아	87, 184
(15)떡튀 출산	80, 155	(12)치맥지교	87, 191
(15)식큐멘터리	81, 168	(12)치중 진담	88, 191
(15)실험동물 지킴이 법안	81, 169	(12)팩트리어트	88, 198
(15)영영 페미	81, 177	(12)프로 할말러	88, 201
(15)통리통략	81, 195	(12)할아재	88, 205
(15)호모 체어쿠스	82, 207	(11)갓상블	88, 133
(14)고막 여친	82, 136	(11)고시 삼자 동락설	89, 136
(14)궁서리	82, 139	(11)교정어	89, 139
(14)메포츠	82, 155	(11)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89, 163
(14)십시	82, 169	(11)스펙타쿠스	89, 167
(14)아재템	82, 171	(11)와유 백	89, 178
(14)안전 속바지	83, 173	(11)위상 점	90, 180
(14)오버 투어리즘	83, 177	(11)젠틀 제왕 절개	90, 185
(14)줄혼남	83, 186	(11)줄귀탱	90, 186
(14)채권 난민	83, 188	(11)짜스	90, 188
(14)컨슈머토피아	83, 192	(11)파미나	90, 197
(14)웹버타이징	84, 200	(11)팩트광	91, 198
(14)프리랜서 바이오 해커	84, 202	(11)피르가즘	91, 203
(13)골드 이모	84, 137	(11)혼뱅족	91, 208
(13)골든 타임 배송	84, 137	(10)개사이다	91, 134
(13)꿀근무지	84, 141	(10)미코녀	91, 156
(13)연애 정상성	85, 176	(10)시니어노믹스	92, 168
(13)열대야락족	85, 176	(10)역피셜	92, 176
(13)호모 인턴	85, 207	(10)트리밍족	92, 196

(10)티티 포즈	92, 196	(7)책맥죽	99, 189
(10)핑거 프린스	92, 204	(7)초대형 폭탄주	99, 189
(10)휘젓리케이션	93, 211	(7)층건 소음	99, 190
(9)대유잼	93, 146	(7)카지노 미아	99, 191
(9)숙제 격차	93, 165	(7)칼박	100, 192
(9)쌀설탕	93, 169	(7)탈팩트	100, 194
(9)안아키죽	93, 173	(7)트럼프 페이드	100, 195
(9)엄카죽	94, 175	(7)트페미	100, 196
(9)에스 마이스	94, 175	(7)팩트리아트 미사일	100, 198
(9)프로 혼참러	94, 202	(7)해외 차레죽	101, 205
(9)휴보젠티	94, 211	(7)향테리어	101, 206
(8)갭 투자죽	94, 135	(7)호모 스펙타쿠스	101, 207
(8)고막 연인	95, 136	(6)개너자이저	101, 134
(8)냥섬웨어	95, 142	(6)고빠 법안	101, 136
(8)놀존심	95, 144	(6)핑곤	102, 138
(8)뒷벽지	95, 148	(6)그루답터죽	102, 139
(8)리커버 마케팅	95, 152	(6)꿀잼각	102, 141
(8)뷰니멀죽	96, 160	(6)당떨시	102, 146
(8)세젤무	96, 164	(6)도른미	102, 147
(8)육실 세럼	96, 179	(6)돈세탁망	103, 148
(8)취업난 포비아	96, 189	(6)드론 성지	103, 149
(8)팩력배	96, 198	(6)라테 아빠	103, 150
(8)프로 혼밥러	96, 202	(6)릭키 프로모션	103, 151
(8)휘게스럽다	97, 210	(6)만푹남	104, 153
(7)꽃샘 대선	97, 140	(6)매너 푸드	104, 154
(7)꿀중기	97, 141	(6)배려식	104, 157
(7)뇌피셜	97, 144	(6)서브병	104, 163
(7)뉴클리어 풋볼	97, 145	(6)스마트포니스타	104, 166
(7)명작	98, 149	(6)쓸개혹	105, 170
(7)복불 소설	98, 159	(6)애그테크	105, 173
(7)분산형 원장	98, 160	(6)오피스템	105, 178
(7)신문해 계층	98, 168	(6)위장 독감	105, 181
(7)연차 푸어	98, 176	(6)키갈리 협약	105, 193
(7)인구 절벽 원년	99, 182	(6)편의점 카페죽	106, 200

(6)해시크래싱	106, 205	(4)모바일 침대족	113, 156
(5)갯명작	106, 133	(4)밈족	113, 157
(5)개용품절	106, 134	(4)별나라 대출	113, 159
(5)국민 아이스바	106, 139	(4)비혼층	113, 161
(5)내가티브	107, 142	(4)선인용인	114, 164
(5)동원동근	107, 148	(4)썰동	114, 170
(5)매화 대선	107, 154	(4)영란 맛집	114, 176
(5)멀티 자키	107, 155	(4)영란페이	114, 177
(5)비정규직 박물관	107, 161	(4)온라인 리플리	114, 178
(5)선남방계	108, 163	(4)웹툰컬	115, 180
(5)성장캐	108, 164	(4)유지어터	115, 181
(5)술싫모	108, 166	(4)은턴	115, 181
(5)앞벽지	108, 173	(4)재재입덕	115, 184
(5)우주 발레	108, 179	(4)지방러	115, 187
(5)인터넷 고양이 이론	109, 183	(4)캐럴 노가바	116, 192
(5)자거티브	109, 183	(4)캠프니커	116, 192
(5)제물템	109, 185	(4)클론 패션	116, 193
(5)직시급제	109, 188	(4)탈억제대	116, 194
(5)청세권	109, 189	(4)할류 열풍	116, 204
(5)펍팻족	110, 200	(4)허파진	117, 206
(5)프랑켄슈타인 바이러스	110, 201	(4)화성 얼음집	117, 209
(5)호모 고시오패스	110, 207	(4)휘게 크로그	117, 211
(5)호모 파덴스	110, 207	(3)개헌론파	117, 134
(5)혼모노족	111, 208	(3)경준생	117, 135
(4)가실 남녀	111, 133	(3)골드 삼촌	117, 137
(4)계약빵	111, 135	(3)공알못02	118, 138
(4)공알못01	111, 137	(3)꽃미남녀	118, 140
(4)교순대원	111, 138	(3)닉슨 해법	118, 145
(4)네거티브 낙수 효과	112, 142	(3)도서관 미어캣	118, 148
(4)노르웨이 패러독스	112, 144	(3)레이지 신드롬	119, 151
(4)노 알콜러	112, 144	(3)리브르 아를리에	119, 152
(4)대드버타이징	112, 146	(3)마라마마	119, 152
(4)로테크 테러	112, 151	(3)마약크림	119, 152
(4)모바일 소파족	113, 156	(3)마운틴 포비아	119, 153

(3)명정세	120, 155	(3)트림프시트	126, 195
(3)병세권	120, 159	(3)트릭 포토 월	127, 196
(3)비잔틴 데이터	120, 161	(3)팔러 캐비닛	127, 197
(3)비 플러스 프리미엄	120, 161	(3)포프리카	127, 201
(3)사운드 담요	120, 162	(3)해군콩	127, 205
(3)샤이 보터	121, 162	(3)핵존잘	128, 206
(3)샤이 중도	121, 163	(3)헌팅 콘텐츠	128, 206
(3)세권 프리미엄	121, 164	(3)홀캥스죽	128, 209
(3)세젤썩	121, 164	(3)화이트 프레질리티	128, 210
(3)소파 쇼핑족	121, 165		
(3)술스타그램족	121, 166		
(3)스마트컬슈머	122, 166		
(3)스좀비	122, 167		
(3)실버 워리어	122, 168		
(3)썩덕상	122, 170		
(3)아재 취미	123, 171		
(3)아재층	123, 171		
(3)어금니 칫솔	123, 174		
(3)역외법	123, 176		
(3)오케이 인프라	123, 177		
(3)육퇴	124, 181		
(3)이름표 행정	124, 182		
(3)이저일고	124, 182		
(3)인어 머리	124, 182		
(3)존뚝	124, 186		
(3)줌마 로코	125, 186		
(3)직격 비행체	125, 187		
(3)직구 정치	125, 187		
(3)취업 인류	125, 190		
(3)취업콧터 맘	125, 190		
(3)치매 푸어	126, 190		
(3)툰망진창	126, 194		
(3)툰체성	126, 194		
(3)투웨이 번 헤어	126, 195		

<부록 4>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8년 신어의 사용 빈도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늠터	43	32	5	0	6	0	0	1	0	4	0	4	28
가름짓다	208	198	10	23	62	33	13	22	13	8	13	15	6
가상신혼부부	256	242	9	0	150	17	9	11	3	2	11	52	1
가업승계자	27	24	7	0	15	3	2	1	3	2	0	0	1
거품가격	342	304	10	68	32	20	19	39	24	26	67	28	19
검역주권	4669	3402	9	0	3935	131	83	49	337	27	10	77	20
결지방	25	18	5	0	8	8	0	0	0	6	1	0	2
결혼도우미	62	49	10	7	7	5	11	1	4	8	5	7	7
결혼면허	180	72	10	12	38	5	11	3	4	32	16	52	7
결혼면허증	57	33	8	2	8	1	3	1	0	6	7	29	0
경제행복지수	618	247	9	0	51	111	94	79	41	19	2	105	116
고공권	213	193	10	28	24	30	27	25	46	5	11	5	12
고발글	292	214	10	1	2	1	3	13	43	22	45	72	90
공정여행	4461	1552	10	7	39	683	594	879	464	546	409	420	420
공존지수	128	84	10	48	23	10	3	12	5	6	11	4	6
괴짜심리학	104	74	9	1	46	17	0	6	2	6	11	13	2
교체지수	2048	1375	10	5	82	28	204	68	907	10	29	403	312
구매글	34	32	7	0	1	0	0	6	3	3	7	8	6
구분점포	100	51	8	0	1	0	1	2	1	24	22	35	14
귀북	33	26	8	0	3	14	2	0	3	6	1	3	1
귀향족	30	23	8	0	1	1	4	6	8	4	4	0	2
규제일몰제	1745	1157	10	218	338	427	68	37	60	135	336	58	68
그린스타트운동	1339	803	9	0	24	465	268	140	208	135	71	25	3
근황셀카	4655	1915	8	0	4	0	1	63	183	508	3025	550	321
급등락하다	232	208	10	4	18	3	7	5	5	8	11	25	146
급방긋하다	32	24	9	1	0	1	6	1	2	3	1	16	1
기념북	33	33	7	0	0	1	5	2	4	11	0	8	2
꽃가루달력	52	31	5	0	26	19	0	0	0	1	0	4	2
꿈의낙원	72	61	10	9	9	8	17	6	4	3	4	9	3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끝장야구	38	25	7	0	22	6	0	0	1	2	1	3	3
나노미니스 커트	37	31	5	18	2	5	0	0	0	11	1	0	0
나노봇	170	67	10	22	16	1	2	3	4	16	7	86	13
날씨중계	78	70	8	1	13	0	0	5	6	7	6	30	10
남편명절증 후군	22	15	6	0	15	1	1	2	0	0	1	2	0
녹색산업	14703	9930	10	14	1098	4811	732	4088	1991	671	727	561	467
녹색성장	27118	16172	10	30	3952	5714	4364	4327	3301	2462	1434	1524	1543
녹색일자리	4531	2433	9	0	34	2032	1149	365	455	205	125	107	59
놀이학습	1213	986	10	46	76	96	48	141	78	149	140	302	137
눈물렌즈	38	33	9	6	8	4	4	1	8	1	2	4	0
눈물메이크 업	44	34	5	5	8	1	0	0	25	0	0	5	0
대회울렁증	85	74	9	0	13	4	30	1	18	2	4	5	8
도도미	33	25	7	0	1	0	1	1	2	0	8	6	14
독설녀	219	187	8	0	8	0	8	117	30	46	3	6	1
돌쇠형	127	115	10	5	21	15	13	7	7	9	24	8	18
돌상맘	208	170	7	0	2	0	0	174	13	4	11	2	2
드림메이킹	37	30	7	0	8	2	0	1	1	0	3	15	7
등정주의	186	141	10	15	7	33	23	43	16	8	16	11	14
디공포	194	148	9	0	38	7	2	6	28	19	44	43	7
디지털학교	34	21	8	12	7	3	2	3	0	2	1	4	0
떼법	3636	2477	10	188	1200	681	195	131	163	251	219	326	282
뚜껑머리	30	22	8	1	0	1	4	5	4	0	1	3	11
로도텔	145	99	8	86	27	1	1	0	13	6	5	6	0
루비족	856	375	9	0	52	174	150	82	65	94	123	90	26
리모델링론	76	53	9	31	3	5	1	23	5	1	0	5	2
막말중계	63	42	7	1	48	0	2	0	2	0	1	1	8
매드무비	92	60	5	0	2	18	0	0	0	0	1	26	45
먹튀사업	40	20	7	0	2	0	1	33	1	0	1	1	1
멤버놀이	267	196	7	0	16	0	0	4	13	6	171	55	2
면식수행	40	31	9	5	3	4	2	1	0	3	4	16	2
면접울렁증	132	94	10	1	31	4	3	2	56	2	27	4	2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물뽕투자	961	818	10	166	186	74	141	125	74	58	44	47	46
물입교육	3665	2371	9	0	573	613	312	267	246	535	570	201	348
몰카하다	87	84	5	0	0	0	0	0	1	6	1	11	68
문자알리미 서비스	211	163	10	8	3	10	2	8	11	13	24	106	26
문텐로드	140	113	9	0	2	3	2	31	27	37	14	13	11
미텔슈탄트	398	148	10	2	5	5	4	4	81	115	121	40	21
바랑허우세 대	354	182	9	0	38	12	71	31	21	11	36	98	36
바비큐존	1116	856	9	0	2	133	102	206	75	101	241	166	90
버럭커플	32	29	5	0	1	0	0	0	2	2	0	17	10
벽돌형	137	128	10	2	11	9	9	8	2	4	75	1	16
복합불황	1145	722	10	45	198	76	45	104	205	30	257	111	74
부위정경	350	212	9	0	118	115	13	21	3	1	34	3	42
분필아트	299	115	8	0	24	0	1	4	6	7	8	4	245
분필코	74	52	9	0	1	1	1	1	2	30	26	11	1
불법덧글	849	642	6	0	1	0	0	0	436	247	38	84	43
불빛축제	5397	2739	10	427	409	590	583	703	624	880	603	568	523
브래들리호 과	578	264	8	0	498	2	9	2	24	0	3	2	38
뽕파업	155	94	10	1	41	16	24	8	7	2	31	21	4
사보임	1015	588	10	7	225	35	28	45	18	81	55	364	157
사이버모욕 죄	6793	3326	9	0	4435	2117	62	45	31	19	28	22	34
산림세러피	387	236	10	3	51	39	104	76	21	27	26	20	20
선진회수육	306	155	5	0	283	2	5	13	3	0	0	0	0
선행사마리 아인법	108	73	10	3	15	6	2	5	5	16	14	10	32
소다자주의	25	11	6	0	0	4	0	1	1	1	0	17	1
쇠파라치	215	94	6	0	204	6	1	1	2	0	0	1	0
스압	92	80	7	2	2	0	0	0	5	20	13	28	22
스크린셀러	1180	493	9	0	3	40	10	112	92	115	437	145	226
스크린프로	55	41	7	0	18	3	2	1	24	5	0	2	0
신뉴딜정책	697	430	8	0	573	114	2	0	2	1	3	1	1
신보릿고개	45	35	5	0	16	0	2	8	9	10	0	0	0
신상녀	2114	1381	9	0	920	453	245	173	59	64	18	158	24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신세대맘	60	43	6	0	0	10	5	22	0	3	9	11	0
아래차로	42	18	5	0	3	5	0	0	5	7	22	0	0
아르의공포	303	212	8	0	181	14	0	9	88	3	4	1	3
안전동지	252	77	5	0	226	1	17	6	2	0	0	0	0
애드버게임	32	17	6	0	3	15	0	1	0	2	0	10	1
역결집	66	57	10	3	4	4	10	3	10	1	2	22	7
역사교훈여 행	48	40	9	0	3	7	6	1	3	10	1	11	6
영어몰입교 육	4430	3015	9	0	2475	482	164	167	158	420	479	76	258
월광육	25	20	8	0	8	1	2	2	2	3	5	2	0
윗불록	20	15	7	0	0	0	3	9	2	1	2	2	1
유류환급금	95	78	6	0	59	21	0	5	7	0	0	1	2
의드	1029	662	10	6	71	21	12	15	77	355	60	167	245
이용실적점 수	20	19	5	0	4	2	7	0	0	4	0	3	0
일코	327	156	10	6	1	13	16	7	14	29	100	91	50
저탄소녹색 성장시대	407	382	9	0	63	153	104	41	26	9	4	5	2
전자종이	5981	2537	10	727	555	1590	1556	396	583	191	136	120	127
정보전염병	324	206	7	46	252	13	5	3	0	0	1	4	0
좀비화	394	316	9	0	7	21	21	58	74	46	23	44	100
주부남	28	24	7	3	3	1	0	9	2	3	7	0	0
좀데렐라	155	85	9	2	126	14	3	1	1	2	0	2	4
차등부과제	184	117	9	20	47	21	17	58	8	0	2	1	10
채널지배력	51	48	9	1	4	0	4	10	16	8	1	4	3
체포전담반	258	196	10	8	169	18	4	4	1	23	14	15	2
총알춤	130	103	9	2	43	49	8	9	2	12	0	2	3
추측글	157	143	9	1	0	11	6	21	4	15	55	32	12
출령녀	225	129	7	4	184	12	16	1	2	6	0	0	0
충성팬	22	21	7	0	1	5	0	1	0	2	3	5	5
친절매니저	81	49	10	3	13	1	2	20	22	2	12	4	2
콘도호텔	190	164	10	40	16	26	16	34	10	24	7	10	7
쿠거족	163	71	9	0	48	47	27	11	11	5	5	8	1
키보드배틀	92	71	9	1	0	3	13	9	26	5	1	8	26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키스방	4389	1856	10	1	8	317	505	1396	451	603	551	355	202
테크토닉	590	403	9	0	201	185	38	60	12	6	16	63	39
토크콘서트	22115	12516	10	21	8	268	920	3445	4135	4069	6943	2296	2414
투잡맨	74	71	9	3	5	2	2	2	38	19	1	0	2
트렌드세터	1846	2468	10	12	41	51	139	106	50	65	111	1261	972
파티걸	1242	869	10	184	86	110	122	163	57	204	146	105	65
프랜들리하 다	375	344	10	20	145	32	40	21	19	12	63	14	9
프렌들리	12551	8949	10	279	5318	1803	1039	1181	500	800	887	734	670
하트스토밍	164	91	9	7	27	5	7	0	5	13	9	87	4
학습지도요 령해설서	4465	3326	9	0	2090	535	153	224	87	37	939	285	115
호리병몸매	518	394	9	0	6	7	35	10	75	53	144	128	60
홍색귀족	156	76	9	0	9	3	11	38	37	5	36	3	14

<부록 5>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5년 신어의 사용 빈도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개똥녀	619	579	10	122	99	62	88	51	76	38	19	33	31
경찰률	73	16	6	0	6	0	0	3	1	13	41	9	0
고고익선	39	28	9	2	0	1	1	2	14	3	3	5	8
고공족	38	20	6	13	10	1	0	0	0	0	9	4	1
고성불패	64	51	9	11	16	7	8	3	2	5	5	7	0
공시족	1631	877	10	130	314	135	86	44	41	132	139	176	434
공시촌	97	77	9	4	2	0	5	7	28	19	5	14	13
금융고시	73	51	8	24	6	7	8	0	7	4	15	2	0
기생충김치	84	91	10	11	41	8	6	1	5	4	3	4	1
김치지수	473	149	9	4	1	3	1	0	38	180	207	37	2
갈때기홀	167	117	10	56	1	21	28	12	21	14	4	3	7
낚시글	246	223	10	61	9	15	12	24	35	50	20	17	3
납김치	22	34	6	4	11	1	3	0	1	0	2	0	0
네카시즘	24	18	6	8	7	2	2	0	3	0	2	0	0
노퐁당당	37	34	9	1	4	0	2	5	5	1	1	17	1
다둥이가족	2276	1444	10	67	104	545	322	220	146	150	267	196	259
달팽이족	45	26	6	2	0	1	2	6	0	0	12	22	0
드레스카페	54	31	7	26	12	2	9	2	1	0	2	0	0
디지털코쿤	24	10	8	3	1	7	4	1	1	6	0	0	1
떨기춤	37	44	8	6	6	1	6	6	3	7	2	0	0
롱디커플	44	17	8	1	17	3	1	0	0	1	12	1	8
마술병	100	69	9	49	18	8	3	7	4	4	3	0	4
먹사	57	46	10	4	10	1	3	11	5	3	8	5	7
몰래제보꾼	38	34	7	12	6	13	1	2	2	2	0	0	0
무꺼풀	82	57	8	0	4	1	0	3	10	1	6	6	51
바다장	149	59	9	1	0	1	41	4	36	28	24	8	6
밥터디	190	110	10	25	2	12	17	1	10	12	27	30	54
부비부비춤	169	131	10	3	6	9	4	15	7	40	6	58	21
불봉	35	16	7	2	1	17	2	0	0	3	0	8	2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불임휴직	188	217	10	38	2	1	45	14	23	19	23	19	4
불임휴직제	56	48	7	0	0	14	6	4	8	5	18	0	1
비화폰	48	36	6	0	0	1	0	0	4	1	26	1	15
빙면	228	189	10	6	2	6	34	28	7	28	71	1	45
빛가림	48	48	10	2	8	3	1	6	3	8	2	10	5
생리공결제	247	83	10	86	78	15	20	6	2	2	4	16	18
생활경제고 통지수	381	119	5	165	137	44	27	8	0	0	0	0	0
생활스터디	172	99	10	14	4	28	23	24	5	10	13	19	32
세금폭탄론	796	554	10	43	31	4	5	99	30	216	12	335	21
소비자피해 주의보	2864	2182	10	213	32	202	212	443	434	297	287	520	224
손배개	225	83	5	3	0	0	0	1	0	73	2	146	0
손팔침막	157	139	10	3	2	14	9	18	10	14	22	28	37
수림장	34	28	7	9	4	5	10	1	0	3	2	0	0
수불사업	298	58	9	23	8	3	0	15	130	61	16	37	5
수중뮤지컬	183	103	6	4	30	7	0	0	0	132	4	0	6
스쿨폴리스	2022	1109	10	100	141	28	66	176	738	244	71	83	375
실버뮤지컬	49	69	7	8	23	7	3	2	0	0	0	2	4
안심택시	562	334	10	22	5	41	28	74	31	118	146	51	46
알파메일	299	201	10	3	2	6	19	32	9	21	100	45	62
애국베팅	178	137	10	28	14	16	26	10	23	29	13	14	5
어울모임	57	30	5	0	11	0	17	24	0	0	0	3	2
에어로바틱	80	57	6	0	0	0	26	5	16	30	0	2	1
역계절진폭	49	39	6	0	0	5	2	0	4	0	7	16	15
오삼데이	37	21	8	0	1	7	8	4	3	0	1	12	1
월급고개	593	173	9	19	60	3	0	12	114	157	60	70	98
위버섹슈얼	335	256	10	46	17	81	23	83	10	47	21	3	4
육아데이	346	233	9	239	18	30	10	7	4	4	9	0	25
잔토희물	113	35	6	0	0	11	5	57	0	0	9	14	17
젓가락데이	167	93	10	3	1	3	1	19	14	11	89	17	9
젓가락의날	170	107	5	3	0	0	0	7	0	3	0	130	27
쭈마렐라	2195	1190	10	41	450	433	290	131	59	40	74	363	314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지행장	276	171	9	37	55	37	13	8	21	16	80	9	0
직테크	139	46	9	20	13	17	33	27	20	4	1	0	4
차치지청	53	35	9	1	3	4	5	0	2	2	6	22	8
초슬림폰	165	112	10	88	10	10	4	19	5	2	1	20	6
추모목	516	230	10	47	28	189	47	66	28	7	55	28	21
추어데이	73	27	8	21	19	8	2	4	0	13	4	0	2
추어탕데이	24	23	8	0	2	1	0	1	1	1	15	2	1
취뽀	235	112	10	3	9	3	3	6	6	98	55	39	13
털기춤	1733	1382	10	142	103	31	134	117	202	347	391	255	11
토피스	468	266	10	22	12	38	14	59	19	2	16	62	224
트로트학과	23	17	6	0	0	6	9	1	2	2	3	0	0
항한류	31	34	6	3	7	6	7	1	0	0	7	0	0
헌집증후군	272	184	10	17	17	4	25	60	7	14	20	73	35
험한류	1640	1052	10	86	147	138	110	260	419	112	151	140	77
협약학과	156	157	10	69	18	12	13	9	12	1	3	12	7
홍가포르	34	40	8	14	7	1	3	0	0	5	1	1	2
홍색여행	162	128	6	0	3	3	0	9	0	9	12	126	0
황빠	74	99	10	15	4	15	2	9	18	2	3	5	1

<부록 6>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6년 신어의 사용 빈도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위치기	75	57	6	0	1	0	8	0	3	4	0	57	2
가족목	128	68	8	1	0	80	19	6	4	2	9	7	0
고추장남	44	30	9	10	4	13	3	5	2	0	4	2	1
골드미스	24281	14438	10	1188	2412	5303	4416	1770	1443	2158	3781	1140	670
골드미스터	989	569	10	6	148	144	108	70	100	122	94	133	64
군복무크레 디트	215	98	10	23	4	1	7	1	5	15	12	8	139
귀족녀	75	88	10	23	8	9	14	2	2	7	2	6	2
귀족소금	32	14	5	0	22	0	1	2	0	1	0	6	0
그린슈머	62	44	7	2	17	18	9	1	10	5	0	0	0
그린택시	48	50	8	28	2	3	0	0	2	5	2	5	1
근로자능력 개발카드	233	205	7	68	28	84	14	29	9	0	0	0	1
금사빠	1376	817	10	4	2	2	7	30	85	658	167	325	96
금연치약	104	89	7	3	21	14	44	13	8	1	0	0	0
기부마라톤	168	133	10	8	11	1	2	8	7	26	12	16	77
기프트콘	16912	12851	10	354	626	1312	1929	1455	2638	2662	2134	1639	2163
꼭짓점댄스	960	37	10	68	58	51	34	12	45	412	150	76	54
나오미족	103	49	9	7	12	41	7	0	5	1	6	22	2
나우족	143	79	10	55	20	18	6	2	4	21	4	11	2
노래텔	22	20	6	6	2	5	0	0	4	4	1	0	0
노무족	577	297	9	100	22	63	52	17	40	94	73	116	0
녹토미	42	38	8	0	4	12	9	1	5	1	1	9	0
농민사관학 교	2239	1033	10	64	135	174	315	221	387	221	305	247	170
뉴럴네트워 크	156	73	8	1	3	0	0	3	2	4	9	72	62
달리미	68	33	8	4	10	13	12	0	1	0	7	12	9
대포아이디	70	56	9	0	3	4	7	2	7	25	2	15	5
닷컴마케팅	43	35	8	7	8	2	0	2	2	11	0	8	3
더위주의보	86	86	9	2	0	1	2	3	5	9	4	7	53
동물조련이 벤트과	249	180	10	26	17	39	12	22	23	15	32	22	41
동안성형수 술	77	56	8	0	0	1	2	3	1	8	4	31	27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된장남	893	609	10	71	35	31	47	108	128	251	96	94	32
된장녀	7562	5132	10	703	634	356	917	811	1241	1055	702	662	481
뒷금	131	44	9	1	3	32	5	2	7	21	35	25	0
마이크로포 레이터	171	90	7	40	84	39	3	0	2	2	1	0	0
맨슈머	94	48	8	38	2	4	0	2	19	4	5	20	0
맷돌춤	427	400	10	139	55	60	9	1	34	47	56	8	18
머스트시	120	114	10	2	5	3	15	9	8	11	14	18	35
명인강좌	62	55	7	1	22	19	7	1	0	11	0	1	0
모범납세자 카드	90	67	7	14	40	0	0	17	0	11	5	1	2
미드족	238	134	10	168	37	6	11	2	2	2	7	2	1
반값아파트	9333	5054	10	5189	1028	940	357	785	342	187	124	176	205
버블세븐	17155	8812	10	3224	4349	3641	1575	589	1513	836	743	480	205
보건기상지 수	75	51	9	19	2	2	17	1	0	12	7	12	3
볼매	1473	1265	10	14	21	40	90	108	148	225	418	323	86
비싱	22	12	5	12	0	3	0	0	0	2	4	0	1
비행척추피 로증후군	77	34	8	4	5	3	41	18	2	1	3	0	0
살조	40	16	7	4	2	1	1	0	2	15	0	0	15
새로마지플 랜	254	269	9	84	32	23	53	3	38	8	12	0	1
새싹플랜	25	38	6	12	0	7	2	1	1	2	0	0	0
생동성	6308	2180	10	984	1614	695	366	420	302	281	415	618	613
선택요일제	793	281	10	7	42	422	86	59	18	48	38	67	6
셀디	325	146	9	160	35	44	4	72	3	3	1	3	0
손수제작물	3922	3816	10	1795	724	544	248	101	118	79	107	126	80
수그리족	68	33	6	3	2	0	0	0	16	39	2	6	0
수면부위마 취	189	67	9	9	28	60	30	42	4	7	8	1	0
스포슈머	245	124	8	18	0	4	65	14	0	8	78	47	11
시민거버넌 스	124	124	9	6	0	8	5	1	6	8	23	28	39
시장학교	206	98	9	2	54	73	25	39	5	4	1	3	0
실버마크	532	252	10	19	83	94	24	27	41	27	128	38	51
쌍춘년	2870	2209	10	1232	432	238	80	45	12	61	179	587	4
쌍얼	7685	4504	10	1190	959	625	745	764	533	609	868	842	550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씩소	2278	1574	10	104	130	172	339	218	458	316	226	193	122
아나테이너	2267	1444	10	88	460	159	85	199	144	201	139	285	507
아이돌보미	9577	4394	10	556	830	1948	1153	819	665	1299	1206	710	391
안습	1436	1196	10	142	91	78	100	96	396	220	130	118	65
어포더블럭 셔리	67	123	7	0	0	10	4	7	7	8	15	0	16
에듀시터	87	57	9	35	1	5	13	9	7	3	9	5	0
에코맘	2028	1039	9	0	143	127	291	275	337	254	241	212	148
엘프녀	2259	1271	10	35	140	161	1196	112	58	86	284	41	146
연량감	110	99	5	5	37	28	27	0	13	0	0	0	0
연예고시	21	27	6	2	0	1	2	5	1	0	10	0	0
영파라치	78	69	7	45	6	19	0	0	1	0	4	2	1
오감브랜딩	267	162	7	11	1	0	0	28	0	133	73	20	1
오크녀	85	58	7	0	0	2	12	0	9	25	13	20	4
와인트레인	792	437	10	304	86	130	61	44	18	28	27	43	51
완소남	3634	2792	10	1563	657	419	240	173	140	87	171	113	71
완소녀	424	329	10	144	42	40	48	35	21	44	21	27	2
외모지수	57	52	9	4	1	3	0	28	6	5	2	3	5
월드컵중후 군	35	60	5	1	0	0	12	0	0	0	16	3	3

<부록 7> 지속적으로 사용된 2007년 신어의 사용 빈도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가족기부	80	72	8	2	0	19	1	3	1	2	36	16	0
건전치아	65	35	7	12	22	16	4	2	0	0	2	0	7
건훈련소	43	31	6	5	19	15	2	0	0	1	0	1	0
계절성정서 장애	652	202	10	9	2	2	3	13	9	8	42	389	175
골드미시	41	20	8	15	6	4	3	2	0	1	0	4	6
곰신녀	102	51	7	1	0	0	4	2	2	31	0	45	17
관상성형	547	265	10	42	30	127	34	59	18	100	40	43	54
광클	831	608	6	0	0	0	0	68	94	171	195	184	119
교육난민	25	30	8	5	2	3	2	0	1	0	4	3	5
군삼녀	69	31	7	42	0	6	9	2	1	4	0	5	0
그루밍족	4121	2676	10	17	190	172	241	284	392	459	694	983	689
근과거	40	46	9	2	0	2	4	1	1	13	4	3	10
글램핑	16681	7894	8	20	0	5	0	61	1275	4036	3710	5267	2307
금태	526	248	10	147	27	31	80	17	22	12	108	34	48
기초견	22	13	5	11	5	0	3	1	0	2	0	0	0
김씨아줌마	47	27	7	24	5	7	2	0	2	0	1	0	6
김치투어	80	54	9	1	1	19	6	4	1	9	0	11	28
나노미니	418	218	9	60	3	8	7	5	0	67	200	65	3
너절리즘	51	38	9	1	0	1	2	24	4	8	4	3	4
노노족	769	126	6	1	2	0	0	1	0	0	675	76	14
노란우산공 제	9845	3265	10	270	154	494	724	616	1096	1474	785	1992	2240
노레스터디	28	23	5	23	0	1	1	0	0	2	0	1	0
노인장기요 양보험	15823	9659	10	1690	4141	1689	1197	907	1540	1301	1119	1095	1144
누리캡스	1841	796	10	226	202	184	347	80	169	96	136	156	245
님게임	37	16	8	12	3	1	1	0	8	3	8	0	1
다크닝현상	468	472	10	1	1	1	19	48	63	102	77	85	71
달라송	154	67	7	41	87	6	0	1	1	0	4	14	0
대선삼수생	58	51	6	46	4	0	2	4	1	0	0	0	1
대오족	44	35	7	8	4	11	11	0	0	1	7	2	0
대입이혼	61	33	6	30	20	8	1	0	0	0	1	0	1
도둑공부	50	42	9	9	19	2	3	1	0	3	9	3	1
돌싱녀	6234	4852	10	9	39	39	160	333	96	526	3486	939	607
동네신문	138	104	10	27	10	21	15	28	5	16	4	7	5
둔감력	91	38	10	20	7	2	20	4	1	3	17	4	13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뒷박	37	24	9	11	1	4	1	0	6	2	9	2	1
딸키	110	56	6	14	0	1	0	2	25	41	0	0	27
떡실신	2017	1109	8	3	9	0	0	111	461	603	260	438	132
떼빙	130	69	7	4	0	0	0	1	58	15	3	40	9
레드존	1486	936	10	67	158	105	104	113	75	223	117	222	302
리본족	49	15	5	11	4	25	0	0	0	8	0	1	0
마술스터디	26	26	6	17	0	1	1	2	0	2	0	3	0
마음력	30	26	8	11	2	7	3	1	0	2	0	1	3
말성녀	34	30	6	3	0	2	13	7	6	3	0	0	0
맥럭서리	84	52	7	9	41	5	7	12	2	8	0	0	0
메시지콘	266	71	5	64	171	22	2	0	0	0	0	7	0
메시캡	143	97	10	44	3	9	12	15	20	5	8	18	9
면접록	395	224	8	6	0	0	1	62	48	29	24	78	147
모굴탐	46	37	5	18	17	7	0	2	2	0	0	0	0
모바일투표	16060	7853	10	4850	437	318	323	769	3132	2373	1684	884	1290
모욕스터디	98	51	7	65	1	3	5	0	0	0	3	17	4
모자방	39	27	7	6	0	3	1	1	0	13	4	0	11
목도리녀	179	97	8	165	2	2	1	2	3	3	1	0	0
몸테크	68	30	7	9	5	37	5	1	4	0	0	7	0
무흥	204	106	10	1	11	8	60	70	17	6	14	10	7
문화귀족	79	68	9	22	7	0	1	13	1	1	5	25	4
물개드리블	114	44	7	64	18	5	22	1	0	0	2	0	2
물광	9384	5995	10	225	193	150	121	797	1541	2117	3642	303	295
미소주름	34	21	8	7	4	5	4	5	6	1	0	0	2
미스맘	1109	847	10	65	109	91	17	69	23	2	696	32	5
밀착가이드	68	56	7	31	2	2	0	11	1	2	0	0	19
밀크데이	34	34	6	1	0	1	1	0	0	13	0	17	1
밀크페인트	65	22	8	19	26	2	3	0	0	1	1	1	12
밀글	21	13	8	9	2	3	1	2	1	1	0	2	0
박근혜노믹스	650	466	8	17	0	0	4	11	142	306	76	44	50
반값골프장	154	81	10	118	22	1	1	3	1	4	1	1	2
발모광	81	45	8	1	7	2	9	13	0	0	5	21	23
방문주차제	82	32	8	7	0	0	1	7	12	28	9	17	1
배려석	4229	1103	10	134	66	190	49	149	73	586	103	1753	1126
백수문학	187	95	10	1	41	35	17	12	11	4	4	25	37
백수소설	30	28	7	0	9	13	3	2	1	0	0	1	1
벌떼마운드	1181	980	10	191	125	228	168	156	56	57	12	100	88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베타남	43	20	6	16	11	9	0	0	0	0	5	1	1
베타맘	264	80	9	36	93	110	7	1	0	5	5	1	6
베타보이	34	20	6	12	1	0	0	3	10	2	0	0	6
벨리브	1332	652	10	181	287	425	186	65	36	37	67	25	23
벼락두통	119	73	8	49	6	0	13	4	0	3	2	24	18
병풍아파트	146	142	9	6	4	82	3	32	7	8	1	0	3
보육도우미 제도	33	22	5	13	1	3	0	0	0	8	0	8	0
보이밴드	5384	4162	10	80	273	364	272	363	394	382	953	1447	856
보조개사과	258	96	9	185	4	6	1	0	2	41	3	1	15
보통교과	433	422	8	56	30	14	78	0	0	50	42	82	81
복합합승센 터	12521	7532	10	104	303	968	640	1389	1677	1427	1596	1320	3097
봉춤	5562	2492	10	237	83	60	508	602	389	1931	888	534	330
부모코칭전 문가	33	27	9	8	1	0	2	2	7	2	4	3	4
부축빼기범	117	102	8	1	4	14	0	2	0	6	13	32	45
불륜녀	7214	5043	10	303	125	327	246	637	537	1282	1809	1214	734
브이라인	12364	7619	9	873	1380	2090	2787	1176	1423	58	0	760	1817
블레이록	204	62	8	4	0	26	1	33	0	17	51	1	71
빛공화국	56	53	9	2	1	0	7	2	12	3	15	4	10
사이버재판	74	45	8	30	1	16	20	3	1	2	0	0	1
사이아트	247	178	10	30	19	56	17	4	5	57	37	14	8
살랑살랑춤	317	242	10	30	3	59	6	18	7	27	35	103	29
살인이자	55	28423	6	4	4	0	3	1	0	41	2	0	0
상승감	140	135	10	12	14	20	8	17	13	17	7	20	12
새기팬츠	172	40	8	12	3	0	0	26	47	41	21	3	19
새내기증후 군	30	12	6	10	1	0	0	9	1	7	2	0	0
서울클린데 이	160	113	10	76	11	11	3	9	2	19	12	12	5
선편러	108	79	10	31	15	5	24	8	5	8	8	2	2
성실맨	374	360	10	46	25	33	16	41	39	40	61	39	34
셀프체크인 시스템	198	101	10	12	2	8	3	5	17	6	6	131	8
소물이창법	854	628	10	240	138	74	51	35	32	47	53	141	43
소주녀	243	128	5	30	0	0	0	112	2	7	92	0	0
스팽글리시	28	33	7	12	4	3	1	1	2	5	0	0	0
슬로트래블	139	90	10	18	1	1	8	1	2	72	7	17	12
시승감	67	67	10	4	2	1	3	9	6	13	4	17	8
시청각설명	51	64	9	4	3	1	1	0	1	4	10	6	21
식용본드	25	24	9	2	1	2	3	0	2	6	2	5	2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식테크	20	10	5	4	3	0	0	5	7	0	1	0	0
실버미스	131	53	9	78	11	13	10	0	8	2	5	3	1
실버폴리스	101	66	7	26	43	19	7	3	2	0	0	0	1
실사모형	57	64	10	3	1	2	4	2	17	3	2	2	21
심빠	219	144	6	55	0	3	2	154	4	1	0	0	0
싱글녀	7165	5550	10	81	136	442	1031	862	243	428	1395	1985	562
싱글아빠	94	49	10	30	22	2	2	9	15	7	4	1	2
싱글이코노 미	82	75	8	31	4	2	0	1	0	7	9	3	25
싱어테이너	77	43	5	4	37	20	13	3	0	0	0	0	0
아이팟지수	87	27	8	73	0	2	2	1	2	5	1	0	1
아침사양족	224	149	6	191	11	9	11	0	1	1	0	0	0
악플테러	206	183	10	17	14	9	28	23	12	8	25	46	24
안구마우스	1342	607	10	5	8	48	35	115	372	178	514	39	28
알파맘	825	452	10	47	152	204	44	106	37	22	100	73	40
알파맨	53	28	8	3	2	9	0	2	1	3	0	2	31
알파우먼	284	202	10	58	25	68	21	20	18	13	7	53	1
압박속옷	25	18	10	1	1	1	4	1	1	2	10	3	1
애그플레이 션	5056	2737	10	201	1150	121	953	595	1737	114	125	34	26
어탐찌	134	50	5	68	10	2	0	0	0	4	50	0	0
얼음조끼	811	681	10	67	57	68	149	80	99	106	40	69	76
엄친딸	19297	13445	10	4	326	2278	390	2307	2578	3860	909	5659	986
엄친아	11591	9050	10	27	613	274	851	4051	2782	235	4	37	2717
에듀맘	152	77	9	5	5	18	3	28	19	0	51	6	17
엔지족	256	143	10	73	21	14	74	1	4	8	2	46	13
엔터테인먼트 트지수	37	24	5	25	9	0	0	1	1	0	0	1	0
엠세대	142	97	10	7	1	3	21	29	16	3	14	40	8
연말증후군	145	33	9	50	13	4	16	39	3	6	4	10	0
오디세이기	28	30	5	18	0	0	3	1	2	0	4	0	0
오일볼	620	222	6	556	15	2	9	0	0	0	32	0	6
온빙하	126	145	10	13	2	1	1	2	3	4	68	7	25
와타나베부 인	2298	1046	10	163	209	256	210	369	309	340	144	155	143
완모	207	149	10	5	1	5	27	30	13	27	31	34	34
우왕ㄱ굳ㄱ	90	39	9	58	15	0	3	1	5	3	2	2	1
웁잘	2202	2103	10	50	22	15	44	32	154	371	344	978	192
워크홀릭	4137	3541	10	127	72	45	36	38	115	567	1273	1108	756
워킹족	207	155	10	2	8	31	6	19	18	75	30	6	12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원링스팬	359	151	8	88	208	10	5	3	16	0	2	27	0
원샷경선	2148	1363	9	1181	5	0	7	140	358	17	354	40	46
웹버족	407	100	8	42	34	8	8	0	0	1	5	308	1
위키리크스	26940	10895	10	31	46	22	13469	4762	2301	396	824	1983	3106
유기데이	139	79	10	12	5	16	6	9	5	7	22	52	5
음파라치	32	27	5	11	4	14	2	0	0	1	0	0	0
이노스텔	307	103	10	68	65	48	48	47	11	12	6	1	1
인포데믹스	127	81	10	29	32	17	3	13	1	4	4	23	1
일렉바이올 리니스트	35	22	6	1	24	3	0	0	3	0	0	3	1
입술갈림증	144	131	10	31	10	4	12	26	20	17	9	8	7
입퇴사	36	45	10	2	4	2	2	2	2	1	3	7	11
자가성형	30	18	6	3	3	13	2	1	8	0	0	0	0
자연결핍장 애	22	15	6	15	1	0	1	0	0	0	2	2	1
자폐성장애 인	2183	1537	10	15	61	126	111	148	171	322	496	342	391
장르극	328	297	10	15	1	3	12	4	7	24	90	62	110
장미족	361	252	10	93	71	41	15	12	6	37	10	52	24
전라디언	278	196	10	10	2	7	11	9	53	95	31	46	14
조립모형	102	136	10	14	2	3	6	6	9	17	8	18	19
중영후유증	30	28	10	4	2	1	3	5	7	1	3	1	3
주택연금	28993	7833	10	2398	1561	2571	2835	2435	78	1499	996	3177	1144 3
중간광고	12111	4935	10	4504	693	370	686	645	174	1202	1451	506	1880
쥐똥고추	73	47	7	5	0	11	0	0	9	6	7	18	17
책임여행	374	200	10	63	70	87	66	20	13	14	14	15	12
처분조건부 대출	1417	583	7	801	600	6	1	2	5	0	0	2	0
출사족	114	96	10	1	4	7	17	7	14	18	3	11	32
친구데이	1476	584	9	43	5	0	232	63	69	30	22	1007	5
친디아	4626	2482	10	1620	1304	347	293	296	194	118	167	211	76
캥거루효과	27	24	7	7	2	0	0	1	1	2	0	13	1
컷트어웨이	40	32	8	4	0	2	3	6	2	10	2	11	0
코친디아	474	318	9	216	127	50	24	33	5	4	10	5	0
쿨때기	70	56	5	40	0	0	18	7	3	2	0	0	0
큐세대	66	21	5	60	3	0	1	0	1	0	0	1	0
킹왕짱	1130	738	10	58	159	82	168	106	69	78	118	243	49
타르볼	342	161	8	184	36	56	40	1	2	3	20	0	0
타임리프	1108	849	10	83	5	10	5	25	30	20	61	280	589
투척용소화 기	517	247	10	200	161	17	7	8	4	13	19	21	67

신어	총빈도	기사 건수	출현 연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트러킹	237	78	10	4	3	16	80	22	25	15	15	23	34
파파라치룩	27	18	8	12	3	2	2	0	2	2	0	1	3
팔십팔만원 세대	3214	2920	7	0	0	0	1	2	135	1088	878	807	303
팔찌춤	145	110	5	128	11	0	1	0	0	0	1	4	0
패셔놀로지	73	44	9	3	12	8	2	11	3	1	0	25	8
포키데이	37	23	7	2	1	0	0	0	3	2	2	18	9
폭력남	116	114	10	10	2	2	1	7	18	7	7	25	37
폰테크	654	326	10	20	32	112	31	75	106	121	93	56	8
폴짝춤	38	18	5	30	1	0	0	2	0	2	3	0	0
풍선내시경	41	22	7	0	0	11	10	3	0	6	3	7	1
프런티어마 켓	2448	985	10	239	643	142	141	96	168	426	431	114	48
프레전티이 즘	78	30	6	45	2	2	0	0	0	0	2	3	24
프리키스	235	106	10	147	1	1	1	44	5	4	1	28	3
프리홈	28	29	8	4	0	1	1	0	5	4	3	6	4
하나마나송	171	134	9	82	47	15	2	1	15	2	0	6	1
해킹보험	139	77	9	10	1	24	0	3	4	33	24	20	20
허드렛바지	28	26	6	5	0	1	0	1	3	2	16	0	0
허본좌	1054	691	10	31	235	449	91	32	48	18	90	30	30
홀로가정	164	161	10	16	9	19	9	20	15	20	16	29	11
휴대전화투 표	2676	1139	10	2501	13	10	6	35	19	11	48	5	28
흙춤무	72	58	9	2	30	6	10	4	10	5	0	2	3

연구 책임자: 남길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동 연구원: 안미애(동국대 파라미타칼리지 교수)
최준(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홍미주(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연구 보조원: 이수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서은영(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오선영(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예니(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이민주(경북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강현아(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김세연(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신원석(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담당 연구원: 위진(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17년 11월 30일

발행일: 2017년 11월 30일

인 쇄: 경대디지털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17년 신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